

석사학위논문

4·3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 교육시설의 피해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權 仁 赫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教育專攻

尹 錫 贊

2001年 8月

4·3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 교육시설의 피해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權 仁 赫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年 4月 日



尹錫贊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1年 7月 日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국문초록>

4·3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 교육시설의 피해를 중심으로 --

尹錫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教育專攻
指導教授 權仁赫

4·3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그 발생 배경과 양민학살문제 등이 중심을 이루어, 문화·예술·가정·여성문제 등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교육분야의 피해 실태도 조사된 바 없어, 본 연구에서는 광복 이후 제주지역에서 꽃핀 학교설립운동과 제주 4·3에서의 교육시설의 피해를 중심으로 4·3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의 교사들은 광복 이후 인민위원회 등에 활발히 참여했고, 4·3 발발 직전 김달삼·이덕구 등 교사출신들이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좌익계 교사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자치의식과 민족의식을 강조하면서 학생과 주민들간에 공동체적 분위기를 형성시켰다. 이러한 좌익 성향으로 4·3의 주도 인물에 교사출신이 많았고, 그 체자들도 입산해 무장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연유로 제주의 교사와 학생들은 사상적으로 의심받아 큰 회생을 치루었고, 교육시설도 피해를 입게 되었다.

둘째, 광복 이후 마을공동체의 합의를 모아 학교설립운동이 전도적으로 일어났다. 초등학교는 광복 당시 52개교에서 1948년에 95개교로 183%의 성장(전국 성장률 121%)을, 중학교도 광복 전 2개교에서 1948년에 16개교로 증가(전국 증가율 229%)했다. 미군정기에 설립된 초등학교 43개교의 77%인 33개교가 1946년에 세워졌다. 1946년은 제주에서 인민위원회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다. 대정, 한림, 조천, 애월면지역의 인민위원회는 학교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셋째, 지금까지 4·3으로 인한 교육시설의 피해 실태가 제대로 조사된 바 없어, 필자 나름대로 각종 문헌과 증언채록을 통해 소실 42, 건물해체 6(초등), 폐교 2개교(중등) 등 50개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소실된 42개교는 초등 39, 중등 3개교로, 초등학교는 전체 95개교의 41%인 39개교, 중학교는 16개교의 19%인 3개교가 소실되었으며, 이 중 무장대에 의해 60%인 25개교, 토벌대에 의해 40%인 17개교가 손실을 입었다. 건물이 해체된 6개교와 폐교된 2개교도 당국에 의해 교육적 중단이 나타난 것이므로, 토벌로 입은 피해는 모두 25개교였다. 따라서 무장대에 의해 25개교가 소실되고, 토벌대에 의해 25개교가 손실을 입게 되어 제주교육의 기반은 무장대와 토벌대 양쪽에 의해 초토화되었다.

도민들은 4·3의 혼란 속에서 교육시설의 복구에 온 힘을 기울였다. 학교의 소실은 마을공동체의 파괴였으며, 그 복구는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자 제주 4·3을 극복해 나간 교육적 노력이었다.¹⁾

* 본 논문은 200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한계	4
II. 광복 이후 제주교육의 동향	7
1. 교사들의 동향	8
1) 전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에의 참여	8
2)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에의 가입	11
3) 청년운동단체 및 민전에의 가입	12
4) 좌익 성향 교사들의 교육활동	14
2. 학생들의 동향	19
1) 학원 내의 좌익 단체	19
2) 학원 내의 우익 단체	22
3) 교내 좌우익의 대립	23
4) 동맹휴학의 전개	25
3. 3·1 사건 이후 제주교육의 동향	28
1) 3·1 사건과 교육계 참여	28
2) 3·10 총파업과 교육계 참여	30
3) 군정 재판과 숙정을 통한 교육계 탄압	35
4) 서청출신 교사의 등장	38

Ⅲ. 광복 이후 학교 설립 운동	40
1. 학교 설립 운동	41
1) 초등학교	41
2) 중등학교	45
2. 학교 증축 운동	47
1) 교육시설의 미비	47
2) 교사 신축·증축 운동	49
3. 인민위원회의 학교 설립	50
4. 제주도민의 학력 수준	56
Ⅳ. 4·3으로 인한 교육시설의 피해	58
1. 교육시설 피해에 대한 각종 기록의 검토	59
2. 교육시설의 피해 상황	61
1) 교육시설 피해 일지	61
2) 4·3으로 인한 교육시설의 피해	82
3. 교육시설의 피해 이유	88
4. 4·3의 교육적 극복	94
V. 요약 및 결론	98
참고 문헌	104
<ABSTRACT>	110

< 표 목 차 >

<표-1> 교육피해 조사 항목	5
<표-2> 미군정기 교육인구의 양적 증가 현황	40
<표-3> 연도별 중학교 상황(1945~1948)	41
<표-4> 미군정기 초등학교 설립 현황(1945~1948)	44
<표-5> 미군정기에 교육을 수행했던 중등학교들	45
<표-6> 제주도세요람(1953)이 제시한 교육시설의 피해 상황	60
<표-7> 4·3에서의 교육시설의 피해 종합	83
<표-8> 4·3으로 폐교되거나 해체된 학교	84
<표-9> 4·3에서 소실된 초등학교	84
<표-10> 4·3에서 소실된 중학교	85
<표-11> 지역별 교육시설 피해 현황	8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3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한동안 재일교포와 미국인에 의한 연구 수준¹⁾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가 4·3이 일어난 지 40년이 지난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에야 국내에서도 4·3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석사학위논문²⁾ 등 학술논문의 발표, 새로운 자료의 발굴³⁾, 증언과 취재 결과의 간행⁴⁾ 등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러나 연구 성과가 쌓일수록 4·3을 바라보는 시각⁵⁾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

-
- 1) 김봉현·김민주,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 (대판:문우사), 1963.
김봉현, 「濟州島 血の歴史」, (대판 도서간행회), 1978.
John Merrill, "The Cheju-do Rebellion", Journal of Korea Studies Vol. 2, 1980, pp.139~198.
 - 2)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8.
박명림, "제주도 4·3 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8.
양정심, "제주 4·3항쟁에 관한 연구-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1995.
김대근, "제주도 4·3사건의 정치적 배경에 관한 연구", 동의대 석사학위 논문, 1996.
박진순, "제주도 4·3항쟁 연구-배경 및 성격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이정주, "제주 '호미'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4·3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9.
김지수, "4·3과 중산간 마을의 거주공간 변모-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무등이왓을 사례로",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3) 김익렬 회고록, 제주신보, 수형인 명부 등
 - 4)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①~⑤, 도서출판 전예원, 1994~8.
제주4·3 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I·II), 도서출판 한울, 1989.
 - 5) 4·3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폭동으로 보는 관점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서울: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7 ; 김점근, 「한국전쟁과 노동력 전략」, (서울:박영사), 1973.
둘째, 반란으로 보는 관점 : John Merrill(1980), 앞의 논문.
셋째, 인민무장 투쟁으로 바라보는 관점 : 김봉현·김민주(1963), 앞의 책.
넷째, 민중 수난사로 보는 관점 : 이는 학문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제주도민의 정서라 할 수 있다. 현기영의 「순이삼춘」 등 문학 작품에 드러나고 있다.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4·3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원하는 제주인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는 4·3의 진실을 찾기 위한 학문적 업적이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빈곤과 연구 인력의 부족, 더 나아가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 구조로 말미암아 4·3 연구 자체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해, 그 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가르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4·3 연구나 증언채록이 주로 그 발생 배경과 원인 조사, 무수한 양민의 대량 학살 등 정치, 사회적 요인과 그 결과에 매달리다 보니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모든 역사적 사건이 남긴 상처의 치유와 화해는 진실의 규명 뒤에 가능할 것이다. 정치학, 국제정치학, 민속학,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 법학, 문학, 인류학, 여성학, 가정학 등 각각의 측면에서 따지고 물어 대답해야 할 물음들이 술하게 널려 있는 것이 4·3의 문제이다.⁶⁾

그리고 진실의 규명은 정확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역시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연구 업적이나 피해조사는 인명피해와 짓밟힌 인권문제 등을 주로 다루어 왔다. 무수한 인명이 희생⁷⁾되었고, 제주도민의 인권은 철저히 짓밟혔기 때문이었

다섯째, 항쟁으로 보는 관점 : 양한권(1988), 앞의 논문 ; 박명림(1988), 앞의 논문 ; 양점심(1995), 앞의 논문 ; 고창훈, "4·3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해방 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9 ; 아라리연구원, 「제주민중항쟁」(I·II), 소나무, 1988.

여섯째, 국가 폭력에 의한 양민학살사건이며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

6) 박명림, "민주주의, 이성, 그리고 역사 이해-제주 4·3과 한국현대사",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pp.453~455.

7) 아직도 인명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인명 피해설이 주장되어지고 있다.

첫째, 8,000~9,000명설 : 1957년 4월 3일자 「제주신보」, 박서동은 「영원한 우리들의 아픔 4·3」(도서출판 관광제주, 1990)에서 4·3 민간 희생자는 8,038명으로 이는 70%의 정확성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 27,719명설 : 「광복제주30년」(부만근, 문조사, 1975) ; 「제주교육사」(제주도교육위원회, 1979) ; 「제주도지」(상)(제주도, 1982) ; 「대하실록제주백년」(강용삼·이경수, 태광문화사, 1984) ; 「제주경찰사」(제주도경찰국, 1990).

셋째, 3만여~4만여명설 : 「제주도지」제2권(제주도, 1993) ; J.Merrill(1980), 앞의 논문.

넷째, 5만여~6만여명설 : 고창훈(1989), 앞의 논문 ; 김점곤(1973), 앞의 책.

다섯째, 7만~8만여명설 : 1960년 6월 22일자 제주신보 재경학우회 관련기사 ; 김봉현·김민주(1963), 앞의 책.

위의 인명 피해설은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 「제주도 4·3 피해 조사 보고서」 수

다. 따라서 문화, 예술, 역사, 민속, 가정, 여성 등 여러 부문에서의 피해조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⁸⁾

필자는 중산간마을 모 초등학교의 연혁을 조사하는 중에 “4·3으로 전소되어 폐교”란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전소일자도 방화의 주체도 기록되지 않고 단지 “전소폐교”였다. 타 학교의 연혁에도 이런 류의 표현이 많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4·3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몇 안 되는 제주교육 관계 문헌⁹⁾을 뒤졌으나 동일한 표현들이었고, 교육시설의 피해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 논문도 전무함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교육부에서 제주 4·3의 피해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절감하였고, 그 피해조사가 이루어져야 4·3의 총체적 진상 규명이 한결음이라도 더 진전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본 연구에 임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광복 이후 제주지역에서 꽃피었던 학교설립운동과 4·3에서 교육시설이 입은 피해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4·3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여, 필자 나름대로 교육사적 측면의 진상 규명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일제하 민족독립운동의 한 축(軸)을 이루었던 좌익 성향의 교사들이 광복 이후 인민위원회 구성에서 3·1사건 및 4·3에 이르기까지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한 가장 중요한 지도세력이었다. 학생들도 선생을 따르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시위, 맹휴, 입산의 길을 택했으며, 특히 1947년 3·10 총파업에 교사와 학생들이 한몸음이 되어 파업을 단행, 미군정에 끝까지 저항함으로써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되었고, 제주 4·3을 일으킨 주역 중에

정·보완판, 1997, pp.13~15에서 인용하였음.

- 8) 최근에 제주 4·3에서 유린당한 여성의 인권문제를 다룬 논문들이 나왔다. 이는 제주 4·3의 총체적 피해조사를 위해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오금숙,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 사례”,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제주4·3연구소, 역사비평사, 1999.
김성례(1999), “국가폭력과 여성체험”, 앞의 책(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이정주(1999), 앞의 논문.
- 9)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교육연혁지』(I·II), 1987.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교육사』, 1979.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사』, 1999.

교사와 학생들이 많았다. 따라서 4·3에서 토벌당국에 의해 그 사상을 의심받아 교사와 학생 심지어 교육시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밝혀 보고자 한다.

둘째, 광복 이후 제주에서 타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놀라운 학교설립운동이 일어났고, 당시 대정·한림·조천·애월면 등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이 학교설립과 운영에 인민위원회가 관여했다는 것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4·3에서 소실·폐교·건물해체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은 어느 정도였고, 무장대와 토벌대 어느 쪽이 방화의 주체였으며, 학교시설이 소실된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교육시설의 피해로 말미암아 제주교육의 기반이 초토화되었을 뿐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파괴를 가져왔고, 나아가 도민들은 4·3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어떻게 경주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한계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취하였다.

첫째, 연구의 성격상 1차 사료¹⁰⁾의 절대 부족으로 4·3에 대한 증언채록이나 취재 결과를 반영한 기록¹¹⁾과 광복 이후 제주에서 학교설립운동을 다룬 문헌¹²⁾들을 연구했다. 또 4·3에서의 교육시설의 피해 실태는 각 초등학교 발간 향토지(198

10) 제주 4·3에서 1차사료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장대가 남긴 기록, 경찰의 문건, 미군정 보고서, 당시의 신문 등을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 활용된 1차 사료로는 제주4·3연구소에서 발굴한 「제주신보」(1947.1.1~1948.4.20)와 제주도의회의 「제주 4·3자료집 : 미군정보고서」(제주4·3연구소, 2000.)가 대표적이다.

11) 제주4·3 연구소, 「4·3과 역사」, 24~31호, (제주:온누리 인쇄문화사), 1996~8.

제주4·3 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해준다 I·II).

제주4·3 연구소, 「4·3 장정」1~6, 1990~3.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①~⑤, 도서출판 전예원, 1994~8.

오성찬, 「한라의 통곡소리」, 소나무, 1988.

박서동(1990), 앞의 책.

12) 양진건, “미군정기 제주교육(I)”, 「탐라문화」17호, (제주:경신인쇄사), 1997.

제주도교육위원회(1979), 앞의 책.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행정발전사」, 1991.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6~7)와 각 마을 향토지 그리고 각급 학교 총동문회에서 발간한 서적들을 활용했다.

둘째, 앞에서 언급된 문헌들이 주로 증언채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어서, 비록 보다 검증된 내용을 실었겠지만, 역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증언채록 자체가 똑 같은 사실이라도 증언자가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 보통이고, 그 다음은 단순한 표현의 차이를 넘어 사건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채록자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채록했는가에 따라 똑 같은 사건이라도 다르게 파악되기도 한다.

따라서 필자는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4·3으로 전소된 학교들의 소실날자와 방화의 주체를 파악하기 위해 증언자 선정을 놓고 고심했다. 광복 이후 제주교육의 동향, 학교설립운동, 교육시설의 피해 등 구체적인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상황을 가장 공정하게 증언할 수 있는 분은 4·3 당시 교직에 몸담았던 선생님들일 것이라 결론을 내리고, 당시 교사들을 중심으로 증언채록에 임했다. 채록 과정에서 기존 증언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이 과연 타당한 지도 필자 나름대로 검증도 해 나갔다.

그리고 필자는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증언채록할 내용을 <표-1>과 같이 작성했다.

<표-1>

교육피해 조사 항목

조사 항목		증 언 내 용
1	해당 학교 근무 기간	
2	4·3 당시 학급 수	
3	소실 일시	
4	소실의 정도	
5	방화의 주체	
6	4·3 당시 교사들	

조사 항목		증언 내용
7	4·3 당시 학생 수	
8	학적부 등 장부 소실	
9	수업 차질	
10	복구 상황	
11	학생 피해	
12	학부모 피해	
13	교사 피해	
14	교사 가족 피해	
15	교사 사이의 사상 대립	
16	좌익계 교사	
17	입산한 교사	
18	서청계 교사	
19	학생 사이의 사상 대립	
20	입산한 학생	
21	학교에 군대 주둔	
22	학교에 난민수용소 설치	
23	교정에서의 총살 사례	
24	학교 소개지	
25	1947년 3월 1일 상황	
26	1947년 총파업 상황	
27	5·10 총선 상황	
28	동맹 휴학의 전개	
29	인근 학교의 피해 상황	
30	민보단 활동	
31	축성 작업	
32	무장대의 위협	
33	경찰에 잡혀 곤욕	
34	인민위활동 등 마을분위기	
35	빼라 살포	
36	마을의 활동가들	

그밖에 그 당시 학생이었던 분, 마을 주민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름대로 성의를 갖고 4·3으로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4·3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가 도내 전역에 걸쳐 있어, 어떤 경우에는 시간의 부족으로 동료 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다.

그리고 앞에서 논의한 증언채록의 한계를 필자 스스로 극복했다고 자부할 자신도 없다.

또한 제주교육이 4·3에서 입은 피해는 교육시설 등 물적 피해만이 아니었다. 4·3을 일으킨 주역 중에 교사와 학생들이 많았던 관계로, 본의 아니게 그 사상을 의심받아 4·3에서 희생된 교사와 학생들이 너무도 많았다.

따라서 4·3으로 희생된 교사와 학생들의 피해 상황을 더불어 조사·연구했어야 4·3이 제주교육에 미친 총체적 영향이 바르게 파악되어 교육사적 측면에서 4·3의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의 피해만을 다룬 한계가 너무도 큰 것 같다. 이 문제는 과제로 남기고 훗날을 기약하고자 한다.



Ⅱ. 광복 이후 제주교육의 동향

1945년 8·15 광복이 가져다 준 의미는 한 마디로 감격 그것이었다. 광복이 가져다 줄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민중들은 진정으로 압제와 착취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했다.¹³⁾

그러나 1945년 9월 7일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우리 나라를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을 쌓을 수 있는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¹⁴⁾로 만들기 위해 38선 이남을 직접 통치함으로써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간 미군정시대를 열고 말았다.

13) 이재오,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서울:형성사), 1984, p.44.

14) 양진건(1997), 앞의 논문, p.144.

광복 이후 이루어져야 할 민족사적 핵심 과제는 첫째, 친일파 청산을 이루어 식민지 잔재를 일소하여 민족정기를 확립하는 것, 둘째, 분단을 막고 민족자주통일국가 수립하는 것, 셋째, 기본권이 보장되는 민주화의 구현을 이루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그런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수호한다는 명분¹⁶⁾ 아래 남한에 친미 반공 우익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한 미국의 구체적인 남한 점령정책은 친일파의 보호·육성으로 나타났다.¹⁷⁾

광복 이후 교육계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 힘으로 일제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불식하고 민주국가건설에 부합되는 새로운 교육이념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교육체계를 세우는 일이었다.¹⁸⁾

그러나 우리는 미군정의 통치로 일제 식민 잔재를 청산하지도 못한 채 반공의 빙벽을 내세운 미국 교육정책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학생 수는 급증하는데, 교실과 교사는 부족했고, 교육과정마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우리의 교육은 큰 혼란에 처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좌우익의 심각한 이념 대립이 학원에도 몰아닥쳤다.

광복 이후 제주에서도 자주독립국가의 수립과 일제 잔재 교육의 청산이라는 당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1. 교사들의 동향

1)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에의 참여

일제시대 제주에서도 민족독립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제주지역의 항일

15) 강정구, "미국의 한반도전략과 조선의 분단-4·3항쟁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제주4·3연구소, 1999, p.88.

16) 이현희, 「우리나라 현대사의 인식방법」, (서울:삼광출판사), 1998, p.234.

17) 강정구(1999), 앞의 논문, p.98.

18) 경상북도교육청, 「경북교육50년사」(상), (대구:신홍인쇄소), 1998, p.205.

운동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인물들이 주도했다.¹⁹⁾ 농업, 상업, 신문기자, 교사 등의 직업을 가진 지식인과 중소자본가들이 그 중심 세력이었다.²⁰⁾

박두규, 송중현, 이신호, 김시곤, 임상국 등이 1919년에서 1932년 사이의 민족독립운동을 주도한 교사였고, 고자화, 양두옥, 고행만 등 서당 훈장들이 1932년에서 1945년 경의 민족독립운동을 주도한 세력에 속했다.²¹⁾

이밖에 민족독립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교사들로 오문규²²⁾, 김한정²³⁾ 등을 꼽을 수 있다.

일제 말기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교사출신들을 포함한 민족독립운동의 주도 세력들은 광복을 맞아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와 인민위원회(이하 '인민위')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을 전개했다.

제주도 건준은 1945년 9월 10일 결성되었다. 그 임원진은 위원장에 오대진, 부위원장 최남식, 총무부장 김정로, 치안부장 김한정, 산업부장 김용해, 집행위원 김시택·김필원·김임길·이원옥·조몽구·현호경·문도배 등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²⁴⁾ 건준은 10월 9일에 이르러 오대진 중심의 좌익계 건준과 홍순영·최남식 중심의 우익계 건준으로 분열되었다.²⁵⁾

이 건준의 조직 구성에 전현직교사였던 홍순영²⁶⁾·최남식²⁷⁾·김한정과 강성

19) 제주도에서는 1920년대에 사회주의 운동의 뿌리가 내려져 있었다. 1920년대 사회주의 민족독립운동단체인 신인회 결성을 비롯해, 1930년대 제주청맹사건, 혁우동맹 및 야채 이카사건 등 사회주의 노선의 비밀조직을 규합했다가 일제로부터 탄압받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다(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197).

20) 고창훈, “제주민중항쟁의 경제사회적 해석”, 『제주항쟁』창간호, 제주4·3연구소, (서울: 실천문학사), 1991, p.59.

21) 박찬식, “일제하 제주도 민족해방운동 주도 세력의 성격”, 앞의 책(제주항쟁 창간호), pp.104~109.

22) 하도보통학교 교사 역임(제주4·3 연구소(1992), 앞의 책(4·3 장정 5), p.59.).

23) 가파도에서 1921년 설립된 신유의숙에서 8년여를 교사로 재직(제주4·3 연구소(1990), 앞의 책(4·3 장정 2), p.28.).

24) 이운방(대정읍 하모리, 당시 대정건준 대표)의 증언 : 제주도, 『제주도지』제2권, 1993, p.49에서 인용.

25) 강용삼·이경수, 『대하실록 제주백년』, (서울:태광문화사), 1984, p.513.

26) 1912년 제주농업학교에 교유로 부임, 1939년 화북교 교장 취임, 광복 후 제주고등여학교(현제주여중)의 초대 교장에 취임, 1949년 5월 10일 북제주군 갑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 당선되었다(김찬흡,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0, pp.424~425.).

건28) 등이 참여했음을 고려할 때, 일제시대 항일운동의 중심 세력의 하나였던 교사들이 광복 초기부터 건국준비사업의 중심에 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건준이 발전적으로 해소되어 1945년 9월 22일 제주도인민위가 결성되었다(위원장 오대진, 부위원장 최남식). 각 읍·면에서도 9월 하순부터 인민위가 결성되어 갔다.²⁹⁾

건준과 인민위는 일제하 민족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들로 대부분 구성되었다. 조천·구좌·애월·성산·중문·대정면 등 일제하 민족독립운동이 강했던 지역은 처음부터 민족독립운동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고문역할을 담당했다. 조천의 안세훈·김유환·김시범·김시택, 구좌면은 문도배·오문규, 애월면은 김달준·김용해, 대정면은 이신호·문달진, 성산면은 현호경 등이 건준과 인민위 결성에 직접 관여했고, 이들이 직접 위원장이나 간부를 맡음으로써, 도건준 간부 70% 이상은 민족독립운동 경력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또 각 읍·면의 건준과 인민위의 역원들의 직업적 분포는 농업, 어업, 중소상인, 관료, 교사 경험자 등 다양했다.³⁰⁾

이들 중 당시 전현직 교사출신들로는 앞서 언급된 최남식과 오문규 외에 문달진³¹⁾, 이신호³²⁾, 김덕준³³⁾, 허기준³⁴⁾ 등을 거론할 수 있다.

-
- 27) 1918년 인천공립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북교와 화북교의 교사로 재직. 1949년 제주농업중학교 제4대 교장에 취임(김찬흠(2000), 앞의 책, p.390).
- 28) 효돈서원(현 효돈교)에서 교사 역임(제주농업학교총동창회, 「제후80년사」(I), (제주:경신인쇄사, 1990, p.646). 광복 당시 서귀면 건준 치안부장 역임(조남수, 「4·3 진상」, (제주:태화인쇄사), 1988, p.11.).
- 29) 제주4·3 연구소(1992), 앞의 책(4·3 장정 5), p.12.
- 30) 제주4·3 연구소(1992), 앞의 책(4·3 장정 5), pp.16~18.
- 31) 신유의숙 초기부터 광복을 맞을 때까지 교사로 재직. 광복 후 대정면 인민위 교육부장(제주4·3 연구소(1990), 앞의 책(4·3 장정 2), p.32.).
- 32) 신유의숙의 교사로 재직(제주4·3 연구소(1990), 앞의 책(4·3 장정 2), p.30.).
- 33) 어도초등학교의 전신인 보성서당의 교사 역임. 남읍출신으로 애월면 2대 인민위원장(제주4·3 연구소(1990), 앞의 책(4·3 장정 3), p.51.).
- 34) 신유의숙 교사 출신으로 일제 때 목포형무소에 수감됨. 광복후 대정면 인민위 치안책임자(제주4·3 연구소(1990), 앞의 책(4·3 장정 2), pp.32~33.).

2)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에의 가입

1945년 12월 9일 조선공산당 제주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런데 좌익활동가들은 제주도에서는 조선공산당의 이름으로 외부 활동을 한 일이 거의 없었다. 초기에는 대중적 조직인 인민위 활동에 주력했고, 민전이 나온 다음에도 인민위나 민전의 이름으로 대중 활동을 전개했다.³⁵⁾ 그러다가 1946년 11월 23일 중앙에서 남로당이 결성되자, 1947년 2월 경에 조선공산당 제주도위원회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³⁶⁾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의 지도 간부들은 다음과 같다.³⁷⁾

- ◎ 도당위원장 : 안세훈, 조몽구, 김유환, 강규찬, 김용관
- ◎ 군사부장 : 김달삼, 이덕구 ◎ 총무부장 : 이좌구, 김두봉
- ◎ 조직부장 : 이종우, 고칠중, 김민생, 김양근 ◎ 농민부장 : 김완배
- ◎ 선전부장 : 김은한, 김석환 ◎ 부녀부장 : 고진희
- ◎ 청년부장 : 강대석 ◎ 경리부장 : 현복유

이들 중 김용관³⁸⁾, 김달삼³⁹⁾, 이덕구⁴⁰⁾, 고칠중⁴¹⁾, 김양근⁴²⁾, 김석환⁴³⁾, 현복유⁴⁴⁾

35) 제주도(1993), 앞의 책, p.53.

36) 박서동(1990), 앞의 책, p.7.

37) 노민영, 「잠들지 않는 남도」, 은누리, 1988, pp.147~148 ; 아라리연구원(1988), 앞의 책 (Ⅱ), p.89 ; 강용삼·이경수(1984), 앞의 책, p.599 등을 참고.

38) 3·1대회를 주도하여 피검될 때까지 하귀초등학교 교장(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 I), p.242.).

39) 대정중학교는 김달삼이 교사로 재직했던 관계로 많은 학생들이 연루되어 희생되었다(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274.).

40) 남로당 세포로 활동하다 4·3 직전 경찰에 붙잡혀 전향, 경찰에 투신한 김생민은 이덕구가 조천중학원의 교사 겸 초대 원장이었다 함(오성찬(1989), 앞의 책, p.193.).

41) 8·15 이후 제주농업학교 교사로 1947년 3·1 사건에 연루되어 형을 받고, 출옥 후 제주도당 조직부 책임을 맡음(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 I), p.236.).

42) 함덕초등학교 교사 역임(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 I), p.241.).

43) 조천초등학교 교사로 조천중학원에서 역사 과목 담당(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 I), p.240.).

44) 조천중학원장 겸 사회 담당(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 I), p.255).

등이 교사출신이었다. 따라서 남로당의 구성에 교사출신들의 비율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무장투쟁의 전개 시기를 놓고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강·온건파간 노선 갈등이 나타나, 4·3발발 직전에 젊고 급진적인 김달삼, 이덕구, 김용관 등 교사출신들이 동 위원회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들이 주도권을 잡게된 것은 닥쳐 올 5·10 단선 저지를 위한 명분론과 그대로 앉아서 당할 수 없다는 위기론이 득세⁴⁵⁾한 탓도 있지만, 대정중학교와 조천중학원 등 일선학교에 무장세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제자들이 많았던 것도, 이들의 발언권을 강화시킨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당시 대정중학교 2학년이었던 한 학생은 “대정중학생 600여 명 중 450여 명이 입산하여 무장대로 활동했다.”⁴⁶⁾라고 증언했다.

또한, 당시 남로당 대정면당 역원을 지냈던 이운방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다수의 청년 학생들은 당을 무조건 이해하려고 했으며, 당의 지도에 오류가 없을 뿐 아니라 당이 지휘하는 투쟁이야말로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것으로 무조건 확신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무기만 수여된다면 언제든지 전선에 참가할 용의를 가졌으며, 인적 자원 또한 풍부했다.⁴⁷⁾

위 증언들을 통해 청년 학생들이 김달삼, 이덕구 등의 세력 강화에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년운동단체 및 민전에의 가입

광복 이후 제주의 진보적 청년운동은 처음부터 단일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전도적으로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한 대중조직으로 발전했다.⁴⁸⁾

45)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587.

46) 나해옥의 증언 : 고문승, 「제주사람들의 설움」, (제주:일신옵셋인쇄사), 1991, p.116에서 인용.

47) 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 I), p.223.

48) 제주4·3 연구소(1992), 앞의 책(4·3 장정 5), p.43.

제주의 진보적 청년단체의 활동은 건준청년동맹의 결성(1945년 9월말), 제주도 청년동맹의 결성(1945년 12월 중순), 민청제주도위원회의 결성(1947년 1월), 민애청제주도위원회의 결성(1947년 7월)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 단체들은 광복 이후 일제 잔재의 청산과 새로운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가장 전면에서 활동했다.⁴⁹⁾

이 청년단체들은 미군정의 탄압과 우익청년단체의 강화로 그 활동력이 쇠퇴되었지만, 제주 4·3발발 직전까지 활발히 활동했고, 이후 재산유격대 활동에서도 실질적인 행동세력으로 등장했다. 민청과 민애청에서 활동했던 강대석·김평원은 도 군사부 간부로, 송태삼은 서귀면 군사부장, 이종우는 남로당 청년부 책임을 맡았다.⁵⁰⁾

이들 단체에는 농민, 노동자, 교사, 학생 등 각계 각층의 청년들이 가입했다.⁵¹⁾ 그리고 다음 절에서 논의되겠지만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교생에게도 그 조직이 확대되어 갔다.

1947년 2월 23일 제주도 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민전')이 결성되었다. 민전이 결성된 시기는 전국적으로 제28주년 3·1절 기념행사를 둘러싸고 좌우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제주에서도 2월 17일 좌파세력 중심으로 '3·1운동기념 준비위원회'를 결성⁵²⁾, 군정당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이때 구성된 민전 간부진은 의장단에 안세훈·이일선·현경호, 부위원장에 김용해·김택수·김상훈·오창훈, 그리고 김정노 등 33명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또 실무를 담당할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는데, 사무국장 겸 조직부장 김정로, 선전부장 좌창립, 문화부장에 김봉현 등이 선임되었다.⁵³⁾

이 민전 조직에도 당시 제주중학교교장 현경호와 오현중학교교사 김봉현 등이 위원장, 문화부장 등 핵심 부서에 포진되었다.

인민위 설립과 병행하여 부녀, 교육자, 노동자, 문화인 등의 운동도 활발히 전개

49) 제주4·3 연구소(1992), 앞의 책(4·3 장정 5), p.24.

50) 제주4·3 연구소(1992), 앞의 책(4·3 장정 5), p.24, p.43.

51) 제주4·3 연구소(1992), 앞의 책(4·3 장정 5), p.43.

52) 제주4·3 연구소(1992), 앞의 책(4·3 장정 5), p.21.

53)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219.

되어 도부녀동맹, 노동조합, 소비조합, 제주문화협회, 교육자동맹도 조직되었다.⁵⁴⁾

제주문화협회는 일본군으로 징병되었다 귀환한 학병들로 구성되었는데, 설립 목적은 도민의 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치안 유지에 협력하는 것이었다. 이 조직은 처음에는 치안 활동에 주력했고, 건준청년동맹이 발족되면서부터는 문화 사업에 치중했다. 회지 발간을 통해 계몽 활동도 전개했는데 이 단체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교사로 김봉현을 꼽을 수 있다.⁵⁵⁾

교육자동맹의 대표는 제주농중교사 이시행이었다.⁵⁶⁾ 1946년 경 도내 교원 수는 1,500명⁵⁷⁾으로 추정되며, 김봉현은 “이 중 1,200명이 교육자동맹에 가입했고, 그 조직이 강화되면서 학생들을 사상·정치적으로 교양한 결과, 양과자 반대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⁵⁸⁾라고 하였다.

당시 도내 교원 수에 대한 통계가 없어, 김봉현이 제시한 교원의 수를 신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좌익 성향이 강했던 광복 이후 교원들의 좌익쪽 참여가 상당했으리라는 것을 이 통계는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광복 이후 일선 교육 현장은 대체로 이들 좌익계열 교사들이 주도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⁵⁹⁾

4) 좌익 성향 교사들의 교육활동

광복 이후 좌우익의 대립으로 학원에도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좌익화 되는 교사와 학생이 증가하면서, 교사와 교사,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간에 이념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혼란으로 교육의 실효를 제대로 거둘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김녕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창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 증언이 있었다.

54) 노민영(1988), 앞의 책, pp.95~96.

55) 제주4·3 연구소(1992), 앞의 책(4·3 장정 5), p.30.

56) 아라리연구원(1988), 앞의 책(Ⅱ), p.17.

57) 노민영(1988), 앞의 책, p.103.

58) 아라리연구원(1988), 앞의 책(Ⅱ), p.30.

59) 북제주군, 「북제주군지」(상), (제주:경신인쇄사), 2000, p.1255.

광복 후에 선생님들이 많이 분열되었어. 강봉의선생과 김군봉선생의 지도로 머리에 띠를 두르고 '공책을 달라, 연필을 달라' 외치며 초등학생 전부 김녕을 한 바퀴 돌았지. 후에 보니 그 선생님이 좌익 쪽이었주. 강봉의선생은 초등학교에서 국어를, 김군봉선생은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어.⁶⁰⁾

다음 증언은 구좌중앙초등학교에서 교사들간 좌우익 갈등이 매우 심각했었음을 전해 주고 있다.

남로당 간부이며 면인민위원장인 오모(구좌읍 S리)의 사위 김기× 선생이 있었다. 김선생은 자취집 지붕에 올라 마을 약도를 그려 공산도배들에게 제공했고 숙직 때는 불은책자를 등사기로 제작 배포했다. 이런 사실이 발각되어 동료 교사의 축창에 찢려 월정리 선창가에서 살해되었다.⁶¹⁾

위 증언에서처럼 일선학교에는 좌익 성향의 교사들이 있었고, 이밖에도 제주농중에서 “고칠종·강창우·이형 등 교사들이 마르크스주의를 교실에서 강의를 했다.”⁶²⁾라고 회고하는 증언도 있었다.

또, 한경면 조수초등학교에서도 좌익에 물든 김××으로 인해 양공옥, 김창심 등 교사들이 좌익 사상에 기울게 되었다는 증언이 전해진다.⁶³⁾

그리고 1947년 8월 8일 안덕면 동광리 보리성출애 마을청년 50여 명이 관공리 4명을 집단 구타한 사건도 동광교장사 강영호 등이 주도했다.⁶⁴⁾

또한, 여성동맹 부위원장을 지낸 김이완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나는 딸의 초등학교 선생인 이달군에 의해 활동을 시작했지. 1946년 가을 운동회 때 나를 보고 협조해 달라 해서 활동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북촌리에서 일하다 조천면 전체

60) 제주4·3 연구소(1991), 앞의 책(4·3 장정 4), p.57.

61) 박서동(1990), 앞의 책, p.173.

62) 고문승(1991), 앞의 책, p.111.

63) 오성찬(1989), 앞의 책, p.47.

64) 제주4·3 제50주년 학술·문화 사업추진위원회,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서울:학민사), 1998, pp.74~75.

에서 활동을 했어.⁶⁵⁾

이 증언들을 통해 좌익 성향의 교사들이 학생, 학부모, 주민들을 상대로 활발히 활동해 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의 이러한 활동은 조천중학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조천읍 와흘리의 한 주민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부르조아민주주의 등 사상에 관계되는 말들을 조천중학원 선생님이 와서 이야기해서 들었고, 조천중학원 선생님이 청년들을 모으더니 북초등학교 3·1 기념 행사에 참석하라고 했어.⁶⁶⁾

지금까지 조천중학원에서 전반적으로 교사들이 수업에서 사상교육을 했다는 증언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⁶⁷⁾ 그러나 위 증언에서 중학원교사들이 중산간마을인 와흘리에서도 활동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조천중학원교사들이 제자인 학생들에게 산 쪽과의 연락 등 심부름을 시킨 사례도 다음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돕거나 직접 활동하여 항쟁 와중에 대부분 죽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심부름시키면 중산간의 밤길을 혼자 다니다 잡혀 고문도 당했습니다.⁶⁸⁾

교사들의 이러한 활동은 초등학생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초등학생 시절 선생님들에게 적기가, 혁명가 등 노래를 배웠다는 증언이 동광초등학교⁶⁹⁾와 외도초등학교⁷⁰⁾ 학생들에게서 나왔다.

당시 함덕초등학교장 김보현은 교사 중 상급 학년 학생에게 혁명가를 가르치고

65) 제주4·3 연구소(1991), 앞의 책(4·3 장정 4), p.48.

66) 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 I), p.78, p.92.

67)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566.

68) 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 I), p.18.

69) 제주4·3 연구소(1990), 앞의 책(4·3 장정 3), p.10.

70) 고문승(1991), 앞의 책, p.131.

부르도록 하는 일이 있는 것을 알고, 조회 시간에 전교생과 교사들에게 “밥을 달라는 아이들에게 왜 술을 마시라고 합니까? 잘못된 처사가 아닙니까?”라는 의미심장한 한 마디를 던진 적이 있다고 한다.⁷¹⁾

그런데 좌익 성향의 교사들은 학생들과 마을주민들에게 상당한 신뢰와 신망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 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귀초등학교장과 남로당 당책을 지낸 김용관에 대해, “당시 하귀교학생들은 ‘훌륭한 교장선생님’으로 존경했고, 학생들이 3·1대회를 수감된 교장을 경찰서까지 면회 갈 정도였다.”⁷²⁾ 또 “김용관이 하귀교 교장으로 있을 때, 학교 교사들이 그의 영향으로 인민위에 귀속되었고, 교사들은 사태 때 거의 죽었다.”⁷³⁾라는 증언은 학생과 교사들이 김용관을 상당히 신뢰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천중학원교사 이덕구도 학생과 주민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받은 것 같다. 이덕구는 학생들과 잘 어울렸고, 글씨가 닭발이며 수업할 때에는 침이 튀어 나왔으나, 강의는 열심히 했고 체육대회 때는 응원단장을 자원, 삼삼칠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얼굴이 얇아 학생들에게는 ‘덕구덕구이덕구 박박 얇은 그 얼굴’이란 노래가 유행하기도 했다 한다. 또한 1946년 말부터 조천지서에 근무했던 한 경찰관은 육지 경찰이 오기 전까지 이덕구는 지서순경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는 등 자주 어울렸다고 회고했다.⁷⁴⁾

이렇게 학생과 마을주민들에게 얻은 신뢰는 중학원을 중심으로 주민, 학생, 교사들간에 공동체적 분위기를 형성시켰을 것으로 보인다.⁷⁵⁾ 그 결과 4·3에서 조천중학원생들이 선생을 따르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입산하여 무장대의 세력 강화에 큰 힘이 되었다.

조천중학원생들의 입산 사례는 다음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4·3 때 케뜨르(조천읍 와홀리의 한 마을)에서 세 명이 입산했는데, 이덕구가 조천중

71) 함덕초등학교총동창회, 「함덕초등60년사」, (제주:하늘출판인쇄), 1999, pp.119~120.

72) 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Ⅱ), p.115.

73) 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Ⅱ), p.64.

74)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566.

75) 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Ⅰ), p.16.

학원을 할 때, 거길 들어가서 중학원을 같이 다니다가 산에 오르게 되었어.⁷⁶⁾

또 다음과 같이 이덕구에 대한 강한 원망을 토로하는 증언도 있었다.

우리 마을이 유달리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는 이덕구가 선생을 한 탓이야. 그 놈한테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그를 따르자 남로당에 가입 폭동을 선동했다는 것 때문이지. 이 때문에 사라진 젊은 녀들이 얼마나 많아? 요 웃마을도, 아랫마을도 다 그래. 딴 사람들은 다 용서받아도 그놈은 용서가 안돼. 선생이면 열심히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칠 일이지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뭇 때문에 정치놀음을 해. 한심한 놈!⁷⁷⁾

위 증언 역시 선생을 따라 활동한 제자들이 많았음을 전해주는 사례라 하겠다.

고창훈은 일제하 민족독립운동을 주도한 주요 세력은 농업·상업·신문기자·교사의 직업을 가진 지식인과 중소자본가였으며, 광복 이후 인민위 구성에서 3·1 사건까지를 주도한 중심 세력은 농업·상업·교원의 직업을 가진 지식인과 중소자본가, 마을단위의 민청·직장단위의 노조·학교단위의 동맹 세력이었고, 4·3과 5·10에서의 지도 세력은 교원·농업에 종사하는 지식인들과 남로당 조직, 마을단위의 청년학생 세력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이러한 현상은 항쟁 세력의 중심이 중소자본가보다는 교원으로 바뀌고, 마을단위의 인민위와 자주교육의 영향을 받아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과 학생 세력이 지도 세력으로 발전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⁷⁸⁾

지금까지 필자는 학교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과 마을주민간에 공동체적 유대가 강해지면서, 학생과 마을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은 좌익 성향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들간에 끈끈한 유대가 형성되었고, 이 유대가 4·3에서 무장세력의 한 축으로 발전한 학연적 관계를 그려 보았다.

76) 제주4·3 연구소(1990), 앞의 책(4·3 장정 2), p.14.

77) 박서동(1990), 앞의 책, p.82.

78) 고창훈(1991), 앞의 논문, p.59.

조남현은 광복 이후 제주도에서 공산주의 이념이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이른바 학습, 학교교육,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좌익의 기반 구축 및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았다.⁷⁹⁾

이 역시 광복 이후 학교교육을 통해 선생과 제자 사이의 유대가 강해지면서 4·3으로 나가는 과정을 지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학생들의 동향

1) 학원 내의 좌익 단체

광복 후 교육계의 상황은 일제시대 반민족적인 친일 황민화 교육에 몸담고 있던 교사들이 대부분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군정청의 문교간부들도 친일 교육계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일제시대 잔존 교직원으로 구성된 교육계는 광복이 되었으나 정책상 어떠한 창조적 대안도 없이 학교의 명칭을 복구하거나, 학제의 부분적 변경 즉, 신입기·졸업기의 변경, 전문학교의 대학 승격 등 지극히 형식적인 변화만을 가져왔다. 따라서 광복 이후 학원의 진실한 해방을 염원하던 학생들과 교육제도와 그 내용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학원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어 갔고, 그 결과 학원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⁸⁰⁾

특히 일제 잔재 교육 시비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면서, 일제시대에 교단에 섰던 많은 교육자들은 황국신민화에 음으로 양으로 관여했던 전력으로 광복 직후에는 일반대중이나 학생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이런 연유로 학원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당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약해진 반면 학생들의 발언권은 드세어지게 되었다.⁸¹⁾

79) 조남현, 「제주 4·3사건의 쟁점과 진실」, 돌담, 1993, p.68.

80) 이재오(1984), 앞의 책, pp.82~83.

81)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212.

광복 이후 학원의 진실한 해방을 염원하던 학생사회는 좌우익의 대립이 심화되어, 탁치논쟁·학병동맹사건·국대안 문제 등으로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특히 국대안의 확정 발표로 학원민주화를 부르짖는 학생운동이 약 1년간에 걸쳐 맹렬히 일어났다. 전국적으로 맹휴 참가 57개교, 참여 인원 4만여 명에 이르렀다.⁸²⁾ 군정 당국은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교사, 학생에 대한 검거를 단행했다.⁸³⁾

특히 1946년 3, 4월 경 경찰 단속에 직면한 좌익학생들은 학교별로 학생자치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기성 사회인과 결합하여 각종 사회운동에 참여했다.⁸⁴⁾

한편 당시 좌익조직들도 세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었는데, 특히 1946년 4월 27일에 열린 민청 제1회 중앙위원회는 하부조직으로 소년부와 학생부를 결성⁸⁵⁾하고 중등학생과 초등학생에게까지 손을 뻗어 갔다. 미군정에 의해 해산명령을 받은 후에도 민청은 각 지부에 “회원 확장에 주력하라. 모든 학교의 학급에 당대표를 심어라.”⁸⁶⁾라는 조직 확장 사업을 전달했다.

민청에 이어 나타난 민애청도, 민애청 경남 주재 중앙 오르그가 1949년 7월에 경남 도위원장들에게, “공장·농촌·학교·유격지구·관청 내에 조직을 확대할 것, 학생 조직을 확대할 것.”⁸⁷⁾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아 학생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찰의 탄압을 받게 된 좌파 성향의 학생들은 이들 좌익조직과 연대 내지 흡수되면서 새로운 활동 방향을 모색해 갔다.

이러한 현상이 제주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제주지역의 청년동맹이나 민청도 집행 부서에 소년부(학생 포함)를 두고, 면지역마다 차별성은 있었지만 소년부에는 12, 3세의 어린 학생들도 특별 회원으로 받아들였다.⁸⁸⁾

82) 이재오(1984), 앞의 책, pp.83~84.

83) 이재오(1984), 앞의 책, p.53.

84) 이재오(1984), 앞의 책, p.80.

85) 「조선인민보」, 1946년 4월 29일 : 류상영, “8·15 이후 좌·우익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해방전후사의 인식」4, 한길사, 1989, p.81에서 인용.

86) “G-2 Weekly Summary”, no.93,3c,374(13) : 류상영(1989), 앞의 논문, p.84에서 인용.

87) 대검찰청 수사국, 「좌익사건 실록」제2권, pp.327~328 : 류상영(1989), 앞의 논문, p.87에서 인용.

88) 제주4·3 연구소(1992), 앞의 책(4·3 장정 5), p.33.

제주에서는 이들 청년 조직과 광복을 맞아 활동을 재개한 좌익계 인사, 귀환학생, 일본 등에서 돌아온 유학생, 그리고 좌익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발휘, 광복 이후 4·3에 이르는 학생운동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

특히 조천중학원에서 학생들의 좌익 쪽 참여가 상당했었음을 알려주는 다음과 같은 기록과 증언이 있다.

학생들 70~80%는 직접 도당의 지시를 받을 만큼 당에서도 역원으로 활동했다.⁸⁹⁾

1학년에 입학하면 세포로 가입하게 되는데, 거의 모든 학생들이 가입하게 되지. 몇몇이 몇 개월쯤 학습하다, 1946년 가을 쯤 어디로 오라해서, 교대로 2명씩 보증을 서서 입당했어, 당시 농업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는데, 송○필이란 농고생이 와서 세포활동을 하기도 했지.⁹⁰⁾

위 증언들을 통해 학생들이 남로당에도 가입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그 활동이 학교간 연계활동으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계 활동을 밝혀주는 다음과 같은 증언이 있다.

당시 농업학교·오현중·제주중·제주고등여학교 학생들 사이에 연계가 있었지, 우린 독서회를 통해 사상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을 했어. 독서회를 열다 경찰이 오면 도망쳤지. 하루는 학교에서 동맹파업을 해 모두 학교 밖으로 나오자 어디로 모이라는 지시가 왔어. 이 호리 쭈므로 생각되는데, 처음엔 단합대회인가 했는데 그게 입산으로 이어졌어.⁹¹⁾

광복 이후 제주지역에서 학생들이 좌익활동가들과 연계하여 활동했음을 규명해 줄 수 있는 자료나 연구 업적이 없어, 그 대강을 알아내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에 민청·민애청 등이 마을별로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있었고, 가시리의 경우 “마을청년 대부분이 이 조직에 가입했었다.”⁹²⁾라는 증언

89) 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 I), p.18.

90) 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 I), pp.52~53.

91) 제민일보 4·3취재반(1997), 앞의 책(④), p.237.

이 있었음을 상기할 때, 학생들도 당시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민애청 등 좌파조직이 교내에 결성되었고, 학생들 일부는 세포로서 당과 연계되어 시위와 빼라살포 등의 활동을 주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학원 내의 우익 단체

제주도의 우파세력은 1946년 말까지도 인민위, 민청 등 좌파 세력에 밀려 맥을 쓰지 못했다. 우파진영의 세력이 크게 확산된 것은 1947년 3·1사건 이후의 일이었다.⁹²⁾ 응원경찰 등 외부 물리력이 대거 내도, 좌파진영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거선봉을 일으키면서 좌파진영이 위축된 반면 상대적으로 우파진영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⁹⁴⁾ 이는 1947년 10월 대동청년단 제주도지단부 결성, 11월 서북청년단(이하 '서청') 제주도지부결성, 12월 조선민족청년단 제주도단부 결성 등으로 나타났다.

광복 이후 좌익단체의 약진 속에 우익 성향의 학생 조직인 전국반탁학생연맹 제주도연맹이 1946년 8월 초에 태동했다.⁹⁵⁾ 이 반탁학련 조직은 우익청년단체와 유대의 길을 모색해 갔고, 거의 같은 시기에 제주농증을 비롯한 도내 각 중학교에 대동학생단이 조직되었다.⁹⁶⁾

이 반탁학련이 전국학생총연맹에 편입되면서 전국학련 제주도연맹이 1947년 8월 발족되었다. 학련제주연맹은 제주농증, 오현중, 제주중, 교양 대표 등을 주축으로 했다. 제주학련 결성대회에는 제주읍 유지들과 도지사까지 참석했다.⁹⁷⁾

학련은 제주읍지부를 설치하고 이어 각 학교마다 분회를 두면서 좌익세력에 맞서 나갔다.

그런데 이 학련활동을, “좌익학생들과 피나는 투쟁을 벌이는 등 많은 공적이 있

92) 제주4·3 연구소(1992), 앞의 책(4·3 장정 5), p.33.

93) 제주도(1993), 앞의 책, p.55.

94)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p.490~491.

95) 신상준, 「제주도4·3사건」상, (제주:한국복지행정연구소), 2000, p.686.

96) 강용삼·이경수(1984), 앞의 책, pp.585~586. 그리고 1947년 12월 8일자 「제주신보」에 12월 5일에 대정면 대동학생단이 대정중학교에서 결성되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97) 제주농업고등학교총동창회(1990), 앞의 책, p.204.

었으나 중립적인 학생들을 흡수시키는 과정에 일부 간부들의 횡포가 있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⁹⁸⁾라고 하여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학련대의 횡포는 이 비판 이상으로 4·3에서 인명을 살상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제주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는 증언들이 많다.⁹⁹⁾

당시 학생사회에서 좌우익 어느 쪽이 영향력을 더 발휘했는지를 제주고등여학교 재학생이었던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학교에서는 수시로 성금을 거두어 산에 올렸습니다. 한 학년에 두 반이 있었는데, 반의 학생수가 60명이니까 전교생은 360명이었습니다. 대부분 성금을 냈습니다. 나도 성금을 냈지요. 어쩌다 돈이 없어 못 내면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1년 선배들이 활발히 활동했는데 모두 공부 잘 하고 똑똑해서 학교를 주도했습니다. 그때는 그들 주장이 옳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사태가 악화되자 분위기가 반전되었지만, 그런데 대동학생단 소속 학생 11명만은 성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난 사상은 몰랐고 산쪽의 선배든, 대동학생단의 선배든 모두와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서로 자신들의 모임에 나오라고 했지요. 그러나 대동학생단은 소수였습니다.¹⁰⁰⁾

위 증언을 통해 당시 좌익학생 쪽이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더 발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교내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이들 좌익학생들이 시위, 뼈라살포, 교사배척 등의 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교내 좌우익의 대립

좌우익 학생단체간에 벌어진 갈등이나 대립은 일부 증언들에 의하면 보다 심각했던 것 같다.

98) 제주농업고등학교총동창회(1990), 앞의 책, p.214.

99)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146 ;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1997), 앞의 책, pp.734~735, pp.746~747 ; 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Ⅱ), p.186.

100) 고태향(제주시 건입동)의 증언 : 제민일보 4·3취재반(1997), 앞의 책(④), pp.235~236에서 인용.

일제 말기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중학교에 입학했으나 연일 가혹한 근로봉사에 시달렸고, 광복이 되자 새로 한글을 깨우치기 위해 초등학생들과 함께 '가갸거겨'를 배워야 했다. 이어 불어닥친 것이 국토분단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충돌이었다. 학생들은 좌우익단체인 민애청, 학련에 가입하는 파가 생겼는가 하면 공부에만 전념하는 중립파 등 사분오열되었다. 올바르게 시국이나 사상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도 없이 제 나름대로 사상적인 선동이나 책 몇 권을 읽었던지 아니면 교사나 친구들의 권유에 못 이겨 좌익단체에 가입하기도 했다. 학생단체간에도 화합이란 없고 항상 극단적인 대결로 일관했다.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주먹싸움과 테러만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등교하면 아침부터 회의다, 선생배척이다, 동맹휴학이다 하여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으니 공부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었다. 급기야 좌익계열은 4·3을 일으켰고 좌익학생들 대부분이 교실에서 사라져 상호간에 삶과 죽음의 극한적인 투쟁이 시작되었다.¹⁰¹⁾

1945년 겨울부터 시작된 이념적 갈등은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심화되었다. 교내에 적색기가 나붙고 교실에서 적색가를 부르고 가르쳤다. 좌우익의 대립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수업 중 교실에서 폭탄이 터지다가 하면 낮잠 자는 교사의 이마에 뼈라가 붙고 기숙사에서 학생이 칼에 찔리기도 했다.¹⁰²⁾

위 증언들은 심각했던 교내 좌우익의 대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좌우익 학생들이 대립하는 이러한 분위기는 많은 학생들을 방황케 했을 것이다. 당시 육지로 전학의 길을 택했던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이 무렵을 회상했다.

학교에서 민애청원들은 적기를 부르며 동조하지 않는 학생을 소외시키거나 위협하면서 조직을 확장하고, 불온뼈라를 뿌리며 동맹휴학을 유도했다. 나는 민애청원들이 적기를 부르며 학습분위기를 헤치는데 염증을 느껴 목포로 학적을 옮겼다.¹⁰³⁾

101) 제주농업고등학교총동창회(1990), 앞의 책, p.212.

102) 제주농업고등학교총동창회(1990), 앞의 책, p.187.

103) 자유수호협의회, 「제주 4·3 사건 자료집」, (제주:선진인쇄사), 1997, p.19.

학원에서 폭력과 테러가 발생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 좌에도 우에도 속할 수 없었던 학생들의 고민과 방황의 모습이 나타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4) 동맹휴학의 전개

광복 이후 학원의 진실한 해방을 염원하던 학생들에게 좌우익의 대립이 심화되어, 탁치논쟁·학병동맹사건·국대안문제로 학생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특히 국대안의 확정 발표로 학원민주화를 부르짖는 학생운동이 약 1년간에 걸쳐 맹렬히 일어나, 전국적으로 맹휴 참가 57개교, 참여 인원 4만여 명에 이르렀음을 의미하였다.

제주지역에서도 학생운동이 전개되었다. 1946년 후반부터 맹휴가 터지면서, 1947년 2월 양과자반대 시위, 3·1사건에 이은 3·10 총파업에 동조한 맹휴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뼈라살포운동, 제주고등여학교·제주농업중학교·대정중학교의 맹휴가 연이어 일어나 1947년에 제주학생운동은 절정에 달했다.

1946년 2학기를 맞아마자 제주농업중학교 학생들은 일제 잔재 교육과 파쇼적 교원에 반대하는 맹휴를 단행했다.¹⁰⁴⁾ 1946년 12월 19일에는 오현중학생들이 파쇼적 교원 절대 반대 등을 외치며 맹휴에 돌입했다. 이 오현중의 맹휴로 학교당국, 부형회, 도학무과, 교육단체인 문화협회·교학동맹·교사회, 그리고 제주농중·제주중·제중여중 학생대표들로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위원회의 중재로 문×오·양×울 교사가 사의를 표명하자, 1947년 1월 22일에 맹휴는 일단락되었다.¹⁰⁵⁾

이 사건은 학생들에게 투쟁·성취의식을 심어 주어, 제주읍내 중등학교 학생들이 연합전선을 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연합활동은 중등학교연맹의 주도로 교내 문제보다는 정치·사회적 색채를 띠고 전개되었다. 그 첫번째 시도가 양과자반대 시위였으며, 두번째 시도가 3·1절 시위였다.¹⁰⁶⁾

104) 노민영(1988), 앞의 책, p.105.

105) 「제주신보」, 1947년 1월 22일자와 1월 26일자.

양과자반대운동은 제주읍내 중학생들이 1947년 2월 10일 도내 중등학교연맹 주도로 관덕정 광장에서 “조선의 식민지화는 양과자로부터 막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위를 벌임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시위는 제주농중, 오현중, 제주중, 교양 등 무려 천 수백명의 학생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였다.¹⁰⁷⁾ 미군정보고서는 “학생들이 미군정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자 시위대를 해산하고 학생들을 제주읍내에서 내쫓았다. 나중에 학생들이 잔디에 불을 붙였으나 별 피해 없이 불은 꺼졌다.”¹⁰⁸⁾라고 하여, 이 시위를 미군정에 반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과자반대 시위가 발생한 20일 후 3·1사건이 일어났고, 이어 발생한 3·10 총파업에 도내 거의 모든 초·중등학교 교사들은 파업으로, 학생들은 맹휴로 동참, 미군정에 끝까지 저항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3·1사건 이후 증강된 응원 경찰 등 공권력이 대규모 검거선봉을 일으키자 학생운동은 한동안 크게 위축되었다. 잠잠하던 학생운동은 1947년 6월 2일 제주고등여학교 3학년 학생 180명이 학교 당국에 고등과 설치를 요구하며 맹휴에 돌입함으로써 재개되었다. 이 맹휴는 학교장의 교육방침 등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되었으나, 경찰이 3학년 급장과 자치회 간부 등을 연행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급기야 학부모회가 나서서 학교 당국과 중재안을 만들어 학생들을 설득하고, 경찰도 연행 학생들을 훈방함으로써, 이 사건은 3일만에 진정되어 갔다.¹⁰⁹⁾

당시 제주사회의 분위기는 점차 굳어 가고 있었다. 3·1사건 이래 육지부 경찰이 대거 제주에 배속되면서 민·경의 사이는 더욱 나빠졌다. 특히 행정명령 제3호¹¹⁰⁾가 발효된 5월 이후부터 무허가 집회와 삐라살포 혐의로 검속되는 사건이 도내에서 빈발했다. 이 무렵 자신들의 주장을 삐라로 만들어 살포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도내 전역에 삐라가 살포되었다. 이는 다음 증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06)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213.

107) 「제주신보」, 1947년 2월 10일자.

108) 제주도의회(2000), 앞의 책, p.200.

109)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466.

110) 군정당국이 1947년 5월 17일 미소공동위원회 속개 기간 중에 정치적 집회를 일체 금지시켰던 조치. 이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정치적 목적의 가두시위는 계속 단속하겠다는 7월 9일부로 행정명령 제3호를 해제했다.

아무튼 그때는 마을이란 마을은 민주 세력의 뼈라로 파묻혀져 있었습니다. 제주는 돌담이 많지만, 그 어디에도 돌아가며 붙여져 있었습니다. 주변이 온통 뼈라였습니다. 깨끗한 종이가 있을 리 없고, 모두 현 신문지 위에 쓴 것들이었습니다.¹¹¹⁾

경찰 당국은 뼈라 살포자들을 검거,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1947년 6월에만 뼈라살포 사건으로 제주농중생 외에 교양생 남녀 11명과 조천중학원생 2명이 체포되었다.¹¹²⁾

1947년 7월 3일 제주농중에서 학교 당국과 학생들이 대립하는 분규가 일어났다. 뼈라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 나온 2명의 3학년 학생이 퇴학처분을 당하자 학생들이 이에 반발하여 농성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퇴학처분 취소, 파면당한 교사의 복직, 파쇼 교원의 숙청을 내걸었고, 2·3학년 학생들이 합동 퇴학원을 제출하는 등 진통을 겪다가, 7월 16일에 극적으로 수습되었다.¹¹³⁾

1947년 10월에 대정중학생들이 맹휴를 일으켰다. 이 학교는 이미 3·10 총파업에 호응해 즉각 맹휴를 단행했었고, 10월에 또 맹휴를 감행했다. 그런데 10월 맹휴는 학교 운영권을 장악한 서청출신 교장과 교사들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었다.

이 맹휴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당시를 회상했다.

3·1사건 이후 대정에 들어온 서청들은 대정중학교 교사들을 강제로 사퇴시키고, 그 자리를 자파의 단원으로 채웠고, 이때 서청단원이었던 최근식이 교장이 되었어, 주동은 민애청원들이 했는데, 교장이 악질이었고,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니까 시작된 거지.¹¹⁴⁾

2차 맹휴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이 중 60여 명은 검거의 위험을 느껴 산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¹¹⁵⁾

111) 김봉현의 증언(재일 문예지 “민도”와 인터뷰에서) : 고문승(1991), 앞의 책, p.386에서 인용.

112)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467.

113)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p.467~469.

114) 맹휴사건 때문에 산에 숨었다가 잡힌 고우경(대정읍 신평리)의 증언 : 제주4·3 연구소(1993), 앞의 책(4·3 장정 6), pp.38~39에서 인용.

115) 제주4·3 연구소(1993), 앞의 책(4·3 장정 6), p.39.

1947년 말에도 맹휴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는 다음 1947년 12월 1일~12월 2일 미군정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임 미군정장관(윌리엄.F.딘장군)이 지난 주 제주도를 방문한 동안 학교는 휴교했고, 회사도 잠시 문을 닫았다. 장관이 제주읍을 통과할 때 주민들은 침묵 속에 경원했다.¹¹⁶⁾

3. 3·1 사건 이후 제주교육의 동향

1) 3·1 사건과 교육계 참여

수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일반 군중과 함께 참여했던 1947년 3월 1일은 제주 현대사의 분수령을 이룬 날이었다. 제28주년 3·1절 기념일을 맞아 좌파세력이 주도한 시위에서 군정경찰이 군중에게 발포함으로써 빚어진 이날의 사건은 큰 소요가 없던 제주사회를 들끓게 했다. 이 발포사건에 항의 표시로 총파업이 시작되었고 미군정은 이에 맞서 응원경찰과 서청 등을 제주에 대거 내려보내 물리력으로 검거선봉을 전개함으로써 미군정과 도내 좌파세력이 전면 대립 국면으로 돌입했으며, 제주 전역은 건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갔다.¹¹⁷⁾

원래 3·1사건은 남로당 중앙의 결정에 따라 계획되었다. 당시 남로당 중앙은 3·1절 기념 행사를 무기휴회에 들어간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 투쟁과 결부시킬 것을 각 지방에 지령했다.¹¹⁸⁾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각 산하 단체에 '3·1운동 기념 투쟁의 방침'을 내려보내 3·1운동기념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것을 지시했다.¹¹⁹⁾

1947년 2월 17일 '3·1기념투쟁 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 위원 명단은 위원

116) 제주도의회(2000), 앞의 책, p.118.

117)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253.

118) 김남식, 「남로당 연구」, 돌베개, 1984, p.276.

119) 제주4·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서울:실천문학사), 1991, p.161.

장에 안세훈, 부위원장 현경호¹²⁰⁾·오창훈, 이밖에 총무부, 재무부, 선전부 등 조직을 두었다.¹²¹⁾ 특히 선전부에는 제주농중교사 고칠중, 제북교교사 김임생 등도 있었다. 그리고 3·1기념행사의 모든 문제를 준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2월 23일에는 제주민전이 결성되었다. 무려 8시간 동안 진행된 이 결성대회의 주요 안건 역시 3·1절 기념행사를 치르는 문제에 대한 논의였다. 또한 3·1기념행사를 전도적으로 치르기 위해 각 학교 대표자회의에 '3·1기념투쟁 준비위원회'와 보조를 같이할 것을 당부했다.¹²²⁾

이에 따라 1947년 2월 24일 각 학교 대표자회의가 열려 제주도 3·1기념위원회와 보조를 맞춰 학교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현중에 교사와 학생을 집결시킨 뒤 제북교 집회와 합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¹²³⁾

이 좌파 중심의 3·1절 집회는 성산면을 제외한 제주읍과 한림, 대정, 안덕, 중문, 서귀, 남원, 표선, 구좌면 등 도내 거의 전역에서 열렸다.¹²⁴⁾

제주읍에서는 학생 중심의 청소년층은 오현중으로, 대부분의 청장년층은 제북교 쪽으로 모여들었다.¹²⁵⁾ 오전 9시를 전후 해 오현중 교정에는 제주농중·오현중·제주중·교양·제주고등여학교 학생, 그리고 교사들과 주변의 일반 군중들이 몰려 그 수효는 2,000여 명에 달했다.¹²⁶⁾

오현중에서 기념행사를 끝낸 학생들은 경찰의 저지를 뚫고 도대회가 열리는 제북교로 밀고 들어갔다.¹²⁷⁾ 오전 11시쯤 제북교에서 '제28주년 3·1절 기념 제주도 대회'가 개최되었다. 3만여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이날 기념행사는 오후 2시쯤 끝났고, 곧 군중들은 학교와 마을별로 뿔뚝이 떨어져 가두시위를 벌였다.¹²⁸⁾

120) 당시 제주중학교장

121)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제주:일신출판사), 1990, p.281.

122) 제주4·3연구소(1991), 앞의 책(제주항쟁 창간호), pp.237~238.

123) 제주도(1993), 앞의 책, p.69.

124) 제주도(1993), 앞의 책, p.71. 그런데 대공문제 전문가 K씨는 3월 1일에 제주읍을 비롯한 각 직장에서는 10시에 기념식을 갖고 휴무로 들어갔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문승(1991), 앞의 책, p.312.).

125) 강용삼·이경수(1984), 앞의 책, p.552.

126)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263.

127) 조남현(1993), 앞의 책, p.83.

128)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266.

이날 행사에는 수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참가했고,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참가했다는 증언들도 있다. 제북교학생들은 이날 “4학년 이상은 참석하도록 통지되었다.”¹²⁹⁾라고 하며, 하귀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증언이 있다.¹³⁰⁾

2) 3·10 총파업과 교육계 참여

불행히도 이날 관덕정 앞에서 군정경찰의 발포로 제주북초등학교 5학년 허두용 등 주민 6명이 사망했다.¹³¹⁾ 경찰은 무차별 발포로 격앙된 도민들의 감정을 수습하기보다 다음날부터 3·1사건 주동자 검거에 주력했다. 3·1절 준비위원회 간부들이 검속되고, 중학생 25명이 연행되고, 심지어 무조건 구타와 고문까지 가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신문 보도가 나왔다.¹³²⁾ 발포사건과 그 이후의 경찰의 이러한 조치로 제주도 민심은 견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

김봉현은, “3월 2일의 검거선봉을 계기로, 이미 일부 직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파업이 단행되어 전도의 학생은 맹휴에 돌입했다.”¹³³⁾라고 기술했다. 제민일보는, 3월 2일부터 경찰이 민전간부들과 주동 학생들을 연행하자 이런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어, 직장마다 출근율이 떨어지고 서귀중 등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맹휴에 돌입했던 것을 취재했다.¹³⁴⁾

그러나 필자가 만난 당시 서귀중교사였던 김황수는 이와 다른 증언을 했다. 김교사의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7년 3·1절 기념 행사를 10시에 우리 학교(서귀중)에서 학생·교직원 합동으로

129) 송상순(당시 제북교 3학년)의 증언 :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269에서 인용.

130) 하귀교에서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참석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학생끼리 의논해서 안 간 학생 없이 거의 참석했다는 증언이 있다(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Ⅱ), p.115.).

131)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276.

132) 「제주신보」, 1947년 3월 8일자와 3월 14일자.

133) 노민영(1988), 앞의 책, p.119.

134)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297.

치루기로 했는데, 학생들이 창고중학원출신 좌익계교사 고두규·송두원·김태봉 등과 함께 좌파에서 주도한 서귀초등학교에서 열린 서귀면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진작 학교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 어쩔 수 없이 출근한 교사들만 교무실에서 3·1절 기념행사를 치루었지. 그리고는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안 들으니 우리는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하여, 교장을 포함한 교사 모두 사직서를 쓰고 다음날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어. 이런 상황이 거의 20일 지속되었지. 이때 총파업이 일어났는데, 우리 학교는 이미 교사들이 사직서를 쓰고 출근 안 했으니 총파업에 휘말릴 이유도 없었지. 총파업에서 우리 학교는 교사들이 연행되는 일도 없었어.¹³⁵⁾

김교사의 말을 종합하면 서귀중의 상황은 3·1발포에 반발한 맹휴가 아니라, 교사들이 학생들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한 수업거부 사태였다. 제민일보 취재 결과와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정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좌파세력은 3·1 발포 이후의 민심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초기에는 사상자 구호금 모금을 벌여 나갔다.¹³⁶⁾ 그리고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좌파세력의 움직임에 배후에서 주도하면서 1947년 3월 5일 ‘제주도 3·1사건대책 남로당투쟁위원회(위원장 김용관)’를 결성하고, 동 투쟁위원회는 3월 10일 정오를 기해 총파업을 단행할 것을 결정했다.¹³⁷⁾

3월 7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각 읍·면 위원회에 ‘3·1사건 대책 투쟁에 대하여’라는 지령서를 내려보냈다.¹³⁸⁾ 마침내 3월 10일 도내 거의 모든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166개 기관 단체에서 41,211명이 참여한 총파업이 시작되었다.¹³⁹⁾ 1947

135) 김황수(1921년생, 제주시 일도2동, 제주도교육감 역임)의 증언(증언일자 2001년 1월 5일).

136)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293.

137) 제주도경찰국(1990), 앞의 책, pp.289~290.

138) 각 학교의 투쟁 슬로건으로 “교원의 생활을 국가의 손으로 보장하라(교원), 교육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 절대 반대(교원), 관료적인 국대안을 즉시 철회하라(교원), 과소교육 절대 반대(생도), 학문의 연구와 발표의 자유를 보장하라(생도), 생도와 아동에게 학용품을 배급하라(생도)”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제주4·3연구소(1991), 앞의 책(제주항쟁 창간호), p.194).

139) 당시 경찰 집계로, 제주도청을 비롯한 23개 기관 516명, 제주농업학교를 비롯한 13개교 교직원·학생 3,999명(중학교), 제북교를 포함한 92개교 35,861명(국민학교), 제주우체국을 비롯한 8개 우체국 136명, 제주여행객 및 남진운수를 비롯한 7개 업체 121명, 식산은행을 비롯한 8개 은행 36명, 남전 출장소를 비롯한 15개 단체 542명 등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제주도경찰국(1990), 앞의 책, p.290.).

년 3월 13~14일 작성된 미군정보고서는 “모든 학교의 교사와 학생이 파업 중이다.”¹⁴⁰⁾라고 하여 도내 초·중등학교가 파업에 거의 동참했음을 밝혀 주고 있다.

당시 위미초등학교 교사로 파업에 참여했던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1947년 3·1사건 직후 도에서 각 학교대표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는데, 학무과장 이관석이 14일에는 학교도 파업해야 한다고 지시했어. 그 지시대로 ‘내일부터는 학교에 등교 말라’해서 위미교도 파업에 들어갔지. 다음날 남원면 대책위원회 모임이 있어 남원으로 갔는데, 당시 도의 지시가 교사 한사람이 파업을 장려하는 내용의 뼈라를 20장씩 써서 가져오라 했으므로 4·6전지 반 정도의 뼈라를 붓으로 써서 주머니에 넣고 갔어.¹⁴¹⁾

위 증언을 통해, “전학교는 교사·학생들이 한목음이 되어 폐교를 단행했다.”¹⁴²⁾라는 주장과 달리, 자발적이 아닌 상부의 지시로 파업에 돌입한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이 위미교의 파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위미교 교사였던 분을 만났는데, 이 분도 “자발적이 아닌 상부 지시에 의한 파업이었다.”¹⁴³⁾라고 당시의 사정을 전해 주었다.

조남현은 초등학교까지 문을 닫게 된 것에 대해, 좌익 성향의 교사들의 영향이 컸지만 마을단위의 선전선동과 위협으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도 주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¹⁴⁴⁾

그런데 교육계의 이 총파업은 교사들에게는 파업이었지만 학생들에게는 맹휴의 연속이었다. “대정중학교의 학생들도 3·10 총파업에 호응하여 즉각 맹휴에 들어갔다.”¹⁴⁵⁾라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140) 제주도의회(2000), 앞의 책, p.58.

141) 강태보(초등학교장 정년퇴임)의 증언 : 오성찬(1989), 앞의 책, p.104에서 인용.

142) 이운방의 증언 : 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 I), p.209에서 인용.

143) 김윤조(1926년생, 남원읍 의거리, 초등학교장 정년퇴임)의 증언(증언날자 2001년 4월 1일).

144) 조남현(1993), 앞의 책, pp.87~88. 학부모들이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상황이 3월 3일부터 나타나고 있었음을 김영진 북제주군수가 조천리의 한 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사들과의 대화에서 확인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이 결석사태는 전도적 현상이라고 하였다(강용삼·이경수(1984), 앞의 책, pp.563~564.).

145) 제주4·3연구소(1993), 앞의 책(4·3 장정 6), p.38.

전도적인 총파업에 직면한 경찰 당국은 응원 경찰력을 크게 증강시키면서 민심 수습을 위한 특별한 조치도 없이 3월 15일부터 바로 파업 주동자 검거에 들어갔다. 검거 명령이 내린 3일만에 관공리, 교원, 학생 등 200명이 무더기로 구금되었다. 이 같은 사태의 급전으로 3월 16일 경부터 일부 관공서들이 파업을 풀기 시작했다.¹⁴⁶⁾ 3월 18~19일의 미군정보고서는 “제주도의 모든 파업이 학생들을 제외하고 끝났다.”¹⁴⁷⁾라는 기록을 남겼다.

또한 서울신문(1947년 3월 21일자)에는 파업 기관수와 파업해소 기관수를 분야별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3월 16일 시점에서 파악된 이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청 1(1)(괄호내는 파업해제 수) ▲ 군청 2(2) ▲ 읍사무소 1(1) ▲ 면사무소 12(8) ▲ 학교 108(10) ▲ 우편국 12(6) ▲ 무전국1(1) ▲ 기타 관공서 10(9) ▲ 산업기관 13(7) ▲ 금융기관 9(7) ▲ 교통기관 5(4)¹⁴⁸⁾

이 기사를 통해 관공서들은 거의 파업을 해제했으나 학교에서는 파업해제를 계속 거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신보(1947년 3월 24일자)에도 각 처의 파업해제 상황을 게재¹⁴⁹⁾했는데, 이 기사에서도 초등학교의 파업은 거의 종결되었으나 중학교의 파업은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등학교의 파업해제 상황은 3월 28일자 「제주신보」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시내 각 중등학교는 24일부터 일부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 첫날 등교율은 30%였고, 26일에는 50%로 점차 등교율이 증가하고 있다.

146)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p.355~356.

147) 제주도의회(2000), 앞의 책, p.58.

148)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연구원, 「제주민중항쟁」(Ⅲ), 소나무, 1989, p.79.

149) 「제주신보」 1947년 3월 24일자에 실린 3월 21일부로 원상 회복된 직장들 : ▲ 한림면 : 우편국, 초등학교 일부 ▲ 대정면 : 우편국, 금융조합 ▲ 중문면 : 초등학교 일부 ▲ 서귀면 : 우편국, 초등학교, 남군청, 면사무소 ▲ 남원면 : 면사무소, 각초등학교 ▲ 표선면 : 면사무소, 각초등학교 ▲ 성산면 : 금융조합, 면사무소, 각학교, 우편국 ▲ 구좌면 : 면사무소, 초등학교 일부 ▲ 조천면 : 면사무소, 초등학교.

제주도 총파업 사태는 1947년 3월 말로 일단 진정 국면을 맞았으나, 학교의 파업 상황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 그것은 1947년 4월 4일 관민대표자회의에서 민심 수습책이 논의되었을 때, 각급 학교의 휴교사태를 해소하는 방안¹⁵⁰⁾이 거론된 것에서 학교의 휴교사태는 계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파업 참여 학생에 대한 계속된 검거 선봉으로 오랫동안 학교를 나가지 못했다는 다음과 같은 증언도 있다.

여름방학 때지, 내가 2학년 때니까. 3학년으로 올라가기 직전이야, 3월 1차 맹휴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다가 8월이 되니까 무조건 학생은 학교 다니라 했어, 다 봐준다고. 그제서야 학교에 나갔지”¹⁵¹⁾

3·1사건과 총파업 이후의 검거 선봉으로 제주도는 초긴장 상태로 치달았다. 경찰 검거가 시작된지 3일만에 200명이 구금되었고, 3월말에는 300명으로 늘었으며, 4월 10일에는 무려 500명을 돌파했다.¹⁵²⁾ 그리고 4월에는 연행자들이 군정 재판에 회부되어 갔다.

이들 구금자 중에는 고급관리, 교원 등 당시 제주지역 지도층 인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도 상당수 포함되었다. 특히 3월 31일에는 제주교육을 총괄하는 학무과장이 관석이 전격 연행되었다.¹⁵³⁾

이러한 연행과 구금 조치에 따른 반발도 생겼다. 중문에서 3·1행사와 총파업에 가담한 지역 인사들이 3월 16일 중문지서에 연행되었다. 지역민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중문중학원장 이승조와 중문면 민청위원장 김성추 등도 연행되었다. 지역 유지들이 수감되자 이 지역의 민심은 들끓기 시작했다. 3월 17일 중문중학원에서 면민대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3·1사건으로 인한 수감자를 즉시 석방할 것을 경찰에 요구하는 결의를 한 뒤 중문지서로 향했다. 특히 이 시위에는 교장이 구금당한 중문중학

150) 제주도(1993), 앞의 책, p.81.

151) 고우경(대정읍 신평리)의 증언 : 제주4·3 연구소(1993), 앞의 책(4·3 장정 6), p.38에서 인용.

152)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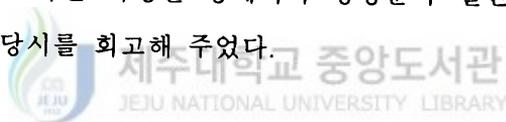
153)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361.

원생들이 많이 참여했었음을 다음 1947년 3월 24일자 「제주신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3월 17일 오후 1시 경 중문리 향사에 다수의 면민이 집회하여 3·1사건으로 인한 수감자 석방을 요구하자는 등의 결의를 한 다음 중학생을 선두로 일반 군중 700여 명이 해방의 노래를 부르며 경찰 지서를 향해 행진했다.

제민일보는 이날 경찰의 발포로 상예리 주민 강상준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강상준은 이날 발포로 오른팔이 절단당하는 큰 부상을 입어 얼마 후 사망했다는 것을 취재했다.¹⁵⁴⁾

그런데 필자에게 증언을 해 준 당시 중문중학원 2학년이었던 이치근은, “경찰의 발포로 중문중학원 2학년 학생인 상예리의 강상준과 일반인 1명이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¹⁵⁵⁾라고 당시를 회고해 주었다.



3) 군정 재판과 숙정을 통한 교육계 탄압

(1) 군정 재판

이 무렵 경무부 수뇌부는 제주도 주민의 80~90%가 붉은 물에 물들여졌다 고 정세분석하고 있었다. 이 수뇌부의 인식은 응원경찰의 수사요원들에게 전달되었고, 응원경찰대는 조금만 혐의점만 보여도 사람들을 잡아들였다. 경찰서 유치장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쳤다.¹⁵⁶⁾

경찰에 구금된 3·1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군정 재판이 도민의 비상한 관심 속에 열려 갔다.

3·1사건과 총파업에 연루된 교사들에 대한 군정 재판이 4월 3일 제주농중교사

154)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p.348~349.

155) 이치근(1930년생, 서귀포시 중문동, 고등학교장 정년퇴임)의 증언(증언일자 2001년 4월 19일).

156)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363.

한병택¹⁵⁷⁾, 4월 11일 애월교교사 이경천¹⁵⁸⁾, 4월 21일 제주농중교사 강창유, 제북 교교사 김임생·김용원·김재은·김기종·박단원·홍무생·송문옥¹⁵⁹⁾, 하귀교교장 김용관 등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밖에 제주제일중학원교사 강순현·고봉식¹⁶⁰⁾, 중문중학원장 이승조와 김녕국민학교교사 강봉의¹⁶¹⁾, 대정중학교교사 강달훈 등도 재판에 회부되었다.

공판 결과 한병택 체형 6개월, 이경천 징역 8개월, 벌금 5,000원의 무거운 형량을 언도받았다. 이밖에 송문옥 체형 10개월, 김용원·김기종·김임생·김재은·강창유·김용관 등이 체형 6개월, 강순현 벌금 5,000원, 체형 6개월, 3년 집행유예, 홍무생 벌금 3,000원, 체형 6개월, 3년 집행유예, 고봉식 벌금 2,000원, 체형 6개월, 3년 집행유예를 각각 언도 받았다. 또 강달훈은 6개월 징역에 1년 집행유예를 이승조와 강봉의 등은 실제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는 기록물의 미비로 확인할 길이 없다.¹⁶²⁾

공판에서 김임생교사는 교원파업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주장했다.

우리 교직원들은 오직 아동 교육의 일념에서 때로는 입고 있는 의복까지 파는 등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생활을 해 왔는 만치 전교원은 이미 파업 기운이 성숙해 있었고, 때마침 부자연한 3·1사건이 돌발하자 우리들은 이에 결부시켜 이러한 옳지 못한 사회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파업을 했다.¹⁶³⁾

(2) 교원 숙정

3·1 사건과 총파업, 그 후에 불어닥친 검거 선포로 행정기능은 마비되었고, 특히 교육계는 전면 마비 현상을 빚었다. 3월 총파업에 도내 거의 모든 초·중등학교들이 동참했다. 그리고 관공서들이 파업을 해제, 업무를 재개할 때에도 마지막까지 버틴 곳이 교육계였다. 따라서 교육계는 경찰로부터 가장 주목받게 되었

157) 「제주신보」, 1947년 4월 6일자.

158) 「제주신보」, 1947년 4월 14일자.

159) 「제주신보」, 1947년 4월 22일자.

160) 「제주신보」, 1947년 4월 28일자.

161) 「제주신보」, 1947년 4월 30일자.

162)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p.365~379.

163)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376.

다. 검거 선봉이 일면서 교직원들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다.

이때 많은 교사들이 체포되었고, 잡히지 않은 교원들이 수배를 피해 숨어 버리는 바람에 교원이 절대 부족하게 되었다. 대정중의 한 교사는 관사의 마루를 뜯어 그 속에서 3개월 가량 생활을 하다 나중에 자수하기도 했다.¹⁶⁴⁾

이러한 교원 부족 현상을 초래한 또 한 요인은 1947년 4월 21일 도백으로 부임한 유해진의 관공리에 대한 숙정 때문이었다. 총과업을 주도하거나 가담했던 관리들을 사상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파직시켰다. 이 숙정은 도청, 군청, 경찰, 운수, 체신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제주도청의 경우 관공리 수가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유지사의 숙정 조치는 교육계에도 불어닥쳤다.¹⁶⁵⁾

기록의 부재와 증언채록의 미비로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이 시기에 숙정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과업이 거세었던 제북교에서 사상이 의심되어 쫓겨난 교사는 10여 명을 헤아렸고, 그 대상은 시골학교에까지 미쳤다.¹⁶⁶⁾

특히 1948년 국가보안법의 제정으로 좌익계 교사와 학생에 대한 탄압이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모든 학교에 학생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학교는 좌익운동에 가담한 교사와 학생의 행적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강요당했다. 이를 추진한 인물이 당시 문교부장관 안호상이었다. 안호상은 “공산주의거나 좌경 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명확한 신념이 없는 교사는 모든 직위에서 몰아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¹⁶⁷⁾ 안호상의 명에 따라 서울시내 초·중등 교장은 교사 감시자가 되었고, 그 후 연일 ‘불온교사 숙청’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어 1949년 3월 15일에는 다음과 같은 명분으로 전국적인 대과면 숙청을 단행했다.

의무교육 실시를 앞두고 국민교육에 충실코자 문교부에서는 각 대학·중학교·국민학

164) 강달훈(대정읍 하모리, 고등학교장 정년퇴임)의 증언 :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365에서 인용.

165)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405.

166) 강용삼·이경수(1984), 앞의 책, pp.582~583.

167) 한준상·정미숙, “1948~53년 문교정책의 이념과 특성”, 『해방 전후사의 인식』4, 한길사, 1989, p.350.

교에서 학원의 민주화를 파괴하는 불순 교직원의 숙청을 각 시·도 당국에 요청했다.¹⁶⁸⁾

이때의 교사 숙청으로 충북·제주·강원을 제외한 여섯개 도에서 초등학교 교사만도 1,641명이나 파면당했다.¹⁶⁹⁾

4) 서청출신 교사의 등장

교원의 구속과 피신, 그리고 숙정작업으로 학교마다 교원 절대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빈 자리는 육지나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로 채워졌다. 특히 서청출신들이 그 자리를 메꾸는 경우가 많아졌다. 가령 대정중학교는 제주출신보다 오히려 이북출신 교사가 더 많기까지 했다.¹⁷⁰⁾ 서청출신 교사들이 일선학교에 배치되면서 제주의 교사와 학생들은 큰 수난을 당해야 했다.¹⁷¹⁾

그런데 서청출신 교사들이 교사로서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만난 당시 남원교 교사였던 김윤조도 제주교육계에선 서청출신들이 학력과 경력 변조로 교사자격을 취득했을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고 증언했다.¹⁷²⁾

서청출신의 학력 변조에 대한 단서는 국대안반대 투쟁을 벌이던 좌익학생을 제압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서청 중앙본부 제2대 학생부장 김계룡과 당시 문교부장관 유억겸과의 타협에서 찾을 수 있다. 이때 이북출신 학생들의 학력증명을 서청위원장의 확인증으로 대치하기로 했다. 이리하여 1947년 2월중순부

168) 「동아일보」, 1949년 3월 17일 : 한준상·정미숙(1989), 앞의 논문, p.350에서 인용.

169) 한준상·정미숙(1989), 앞의 논문, p.350.

170)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p.365~366.

171) 김윤조(1926년생, 남원읍 의귀리, 당시 위미·남원교 교사, 증언 날짜 2001년 4월 1일)·오남련(1925년생, 서귀포시 중앙동, 당시 위미교 교사, 초등학교장 정년퇴임, 증언 날짜 2000년 8월 27일)·이치근(1930년생, 서귀포시 중문동, 고등학교장 정년퇴임, 증언 날짜 2001년 4월 19일)의 증언.

172) 김윤조(1926년생, 남원읍 의귀리, 당시 위미·남원교 교사)의 증언(증언일자 2001년 4월 1일).

터 1달 사이 3,600명이 서청위원장 도장이 찍힌 증명서 하나로 대학을 비롯한 중등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었고 그해 가을까지 발급된 증명서는 무려 6천여 장이나 되었다 한다.¹⁷³⁾

이 과정에서 잡음도 많았다. 학력증명서 실무를 맡았던 서청 학생차장 임약철의 다음 증언은 그러한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터리 가짜도 적지 않았어요. 이북학교에서의 진짜 수학연도보다 높여 기재하거나 졸업 못 했는데도 졸업생인 양 증명을 떼갔죠. 일일이 확인할 방도가 없어 신청한 대로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었어요.¹⁷⁴⁾

서청은 월남청년들에게 일터를 열어주는 방편의 하나로 여러 기업체에 소개해 노조간부로 자리잡도록 했다.¹⁷⁵⁾ 이것은 마치 월남청년들을 대거 학교에 편입학시켜 학업기회를 주는 한편 학원의 좌익세력을 분쇄했던 것과 같은 차원의 것이었다.¹⁷⁶⁾

서청은 이처럼 학력이나 전직 직업을 신고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교사로 얼마든지 원하는 곳에 배치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수의 서청출신 교사들이 제주에서 교사로 근무했고, 교직자로서의 신망을 받으신 분들도 있었지만,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서청출신 교사들이 주로 한 일은 좌익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류된 제주의 교사와 학생들의 동태 파악이었다. 서청출신 교사들의 밀고로 희생당한 교사와 학생이 상당히 많았다는 증언들이 있다.¹⁷⁷⁾

173) 이경남, 「분단시대의 청년운동」(상), 삼성문화개발, 1989, p.84.

174) 이경남(1989), 앞의 책(상), p.85.

175) 문봉제, “서북청년회”(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중앙일보」, 1973년 1월 29일자.

176) 임대식, “제주 4·3항쟁과 우익 청년단”,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pp.221~222.

177) 대표적인 사례로 중문중학교에서 서청 출신 교감 서리 전문규(1950년 4월 부임)의 밀고로 이경주·원문상 등 교사들이 예비검속 때 희생되었다는 이치근의 증언이 있다 (1930년생, 서귀포시 중문동, 고등학교장 정년퇴임, 증언날자 2001년 4월 19일).

Ⅲ. 광복 이후 학교 설립 운동

광복 이후 민주주의 이념에 의한 교육의 기회 균등에 자극된 국민의 교육열과 해외 이주민의 귀환 등으로 야기된 교육인구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교육시설의 부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표-2>178)에서 알 수 있듯이 군정 3년 동안 초등학교 학생 수는 2배, 중등학교 학생 수는 무려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표-2> 미군정기 교육인구의 양적 증가 현황

	초 등 학 교		중 등 학 교		고 등 교 육 기 관	
	학생수	교원수	학생수	교원수	학생수	교원수
1945	1,372,883	23,474	79,846	1,186	7,110	753
1946	2,159,336	26,338	111,934	4,866	10,315	1,170
1947	2,493,462	36,382	227,449	7,933	25,813	2,775
1948	---	41,592	278,512	---	24,000	1,265

*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요람」(1963) ; 한국교육30년편찬위원회, 「한국교육 30년」(1980) ; 유네스코·온크라 교육사절단, 「한국교육상황예비조사보고서」(1952)

그리고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1946년 9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발표되면서 320만 명에 달하던 미취학 아동들179)이 대거 수용되어 교실 부족 사태가 전국적으로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2부제·3부제의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학교설립 혹은 교실증축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초등학교는 1945년 광복 당시 2,834개교에서 1948년에 3,443개교로 급증180)하여 121%의 성장을 가져왔다.

178) 이광호, “미군정의 교육 정책”, 「해방 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1987, p.508.

179) 경상북도교육청(1998), 앞의 책, p.514.

180) 경상북도교육청(1998), 앞의 책, p.527.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 급증세가 더욱 두드러졌는데,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중학교의 증가 추세는 <표-3>¹⁸¹⁾과 같다.

<표-3> 연도별 중학교 상황(1945~1948)

연도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비고
1945	166	1,186	80,828	조선연감 1948
1946	344	4,899	124,468	
1947	385	6,304	197,859	
1948	380	5,112	278,512	교육10년사 p.108.

* 이 시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완전히 구별되지 않았으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준의 학교를 합한 것임「자료 : 문교부, 문교개관(1945~1972)」

위 표를 통해 중학교는 1945년 166개교에서 1948년 380개교로 229%의 증가율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학교설립과 증축운동이 전도적으로 전개되어 수많은 학교가 설립되었다. 수많은 초등학교가 마을 단위로, 중등학교는 읍·면 단위로 설립되었다. 그 결과 제주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융성하게 꽃피게 되었다.

1. 학교 설립 운동

1) 초등학교

(1) 광복 이전에 설립된 초등학교

최근 조사에서 광복 이전에 설립되어 있었던 초등학교는 52개교였다. 이 학교들을 시·군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⁸²⁾

181) 유봉호, “중등교육”, 『한국근현대교육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p.221.

182)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p.392~393.

- 제주시(7개교) : 제주북교(1907), 화북교(1926), 도리교(1936), 외도교(1939), 삼양교(1939), 제주동교(1943), 노형교(1945.4).
- 서귀포시(6개교) : 서귀포교(1920), 중문교(1929), 효돈교(1938), 도순교(1940), 서호교(1943), 예래교(1944).
- 북제주군(25개교) : 하도교(1921), 조천교(1921), 애월교(1923), 한림교(1923), 김녕교(1923), 구좌중앙교(1923), 추자교(1925), 연평교(1936), 함덕교(1937), 신창교(1938), 세화교(1938), 구업교(1939), 조수교(1939), 하귀교(1940), 고산교(1940), 귀덕교(1940), 신양교(1941), 대흘교(1943), 광령교(1943), 고성교(1943), 어도교(1943), 북촌교(1943), 금악교(1944), 송당교(1944), 선흘교(1944).
- 남제주군(14개교) : 표선교(1909), 대정교(1911), 동남교(1923), 남원교(1924), 안덕교(1929), 성읍교(1937), 위미교(1939), 보성교(1940), 무릉교(1940), 신산교(1941), 의귀교(1943), 난산교(1944), 동광교(1944), 대정북교(1944).

(2) 광복 이후 설립된 초등학교

제주교육사(1999)에 실린 광복 이후 미군정기에 설립인가를 받아 새로이 설립된 초등학교는 42개교였다. 이 학교들을 시·군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⁸³⁾

- 제주시(5개교) : 봉개교(1945.9.1), 제주남교(1945.10.1), 아라교(1945.10), 오라교(1946.2.1), 도평교(1947.4.12).
- 서귀포시(4개교) : 법환교(1946.7.18), 강정교(1946.9.1), 보목교(1946.9.1), 토평교(1946.9.1).
- 북제주군(14개교) : 신촌교(1945.9.1), 평대교(1945.9.1), 장전교(1946.8.21), 남읍교(1946.9.1), 더덕교(1946.9.1), 광금교(1946.9.1), 금릉교(1946.9.15), 수원교(1946.9.1), 용수교(1946.11.4), 종달교(1946.12.2), 판포교(1946.9.1), 협재교(1946.11.15), 저지교(1946.3.1), 청수교(1947.3.1).
- 남제주군(19개교) : 성산교(1946.1.15), 가시교(1946.9.1), 가파교(1946.9.1), 덕수교(1946.9.1), 사계교(1946.9.1), 서광교(1946.9.1), 신산교(1946), 대평교(1946.9.1), 온평교(1946.9.1), 창천교(1946.9.1), 태흥교(1946.9.1), 풍천교(1946.9.1), 화산교(1946.9.1), 홍산교(1946.9.1), 신례교(1946.10.31), 하례교(1946.10.31), 신도교(1946.9.1), 시흥교(1947.1.16), 무릉북교(1947.4.1).

183)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393, pp.521~535.

그런데 필자는 이 통계에 제주시 영평교와 성산읍 수산교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남제주군 성산읍 신산교가 광복 이전, 이후 양쪽 시기에 모두 설립된 것으로 이중 집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주교육사(1999)에 “1968년 3월 1일 4·3으로 소실된 영평교를 아라교영평분교장으로 복구했다.”¹⁸⁴⁾라는 기록이 있었다. 이 말은 적어도 제주 4·3 이전에 영평교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밝혀주는 근거로 생각했다. 그런데 제주교육사(1979)에도 “1968년 3월 1일 아라교영평분교장이 설립인가되어, 1969년 3월 1일 본교로 승격, 동년 5월 15일 개교했다.”¹⁸⁵⁾라고 하여 4·3 이전의 영평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서북청년단이 영평교에 주둔했다”¹⁸⁶⁾라는 증언자료를 읽고, 4·3 이전에 이미 영평교가 설립되어 있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1987년 영평교에서 펴낸 향토지에서 “1945년 12월 설립인가 받아, 1946년 3월 석조와가 교실4실·변소1동·숙직실1동을 준공하여 1~4학년울 모집해 공부했다. 교장은 송태평, 교사로 한유생·유도훈 등이 있었다.”¹⁸⁷⁾라는 기록을 확인했다.

따라서 영평교는 이미 1945년 12월에 설립되었음이 확실해졌다. 이는 유인옥·문경행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¹⁸⁸⁾

성산읍 수산교도 “1948년 5·10 총선 당시 이 학교에서 근무했다.”¹⁸⁹⁾라는 기록을 접할 수 있었고, 확인 결과 “1946년 11월 15일 설립인가를 받고, 1946년 12월 1일 개교했다.”¹⁹⁰⁾라는 기록을 찾아냈다.

그리고 성산읍 신산교는 1946년에 설립인가¹⁹¹⁾된 학교가 아니라, 1941년 6월 14일 설립인가 받아 같은 해 7월 5일 개교한 학교였다.¹⁹²⁾

184)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1111.

185) 제주도교육위원회(1979), 앞의 책, p.211.

186) 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Ⅱ), p.217.

187) 영평국민학교, 「영평·월평향토지」, (제주:대동원색인쇄사), 1987, p.45.

188) 유인옥(1926년생, 제주시 영평하동)·문경행(1934년생, 제주시 영평하동, 증언날자)의 증언(증언날자 2001년 4월 26일). 증언자들은 학교 설립일자는 모르지만 영평하동에 4·3 이전에 영평교가 설립되어 있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189) 석산 김옥찬 선생 기념문집발간위원회, 「성장의 보람」, (제주:경진인쇄사), 1995, p.558.

190)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수산리지」, (제주:신명인쇄사), 1994, pp.91~92.

191)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393.

따라서 광복 이후 설립된 초등학교는 제주교육사(1999)의 42개교에 영평교와 수산교를 포함하고, 신산교를 제외한 모두 43개교였다.

그러므로 미군정기에 교육활동을 전개했던 초등학교는 광복 이전에 설립된 52개교를 합하여 모두 95개교가 된다. 이 학교들을 설립 연도별로 구분하면 <표-4>와 같다.¹⁹³⁾

<표-4> 미군정기 초등학교 설립 현황(1945~1948)

연도	시·군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광복이전	7	6	25	14	52
광복~45.12.31.	4 (영평교포함)		2		6
1946	1	4	11	17 (수산교포함) (신산교제외)	33
1947	1		1	2	4
1948					
계	13	10	39	33	95

* 제주교육사(1999)를 참고로 필자가 작성한 통계임

1947년 1월 26일 도총무국장 김두현은 “도승격 전, 즉 1946년 8월 이전 제주도 초등학교는 50개교였으며, 1947년 1월 현재 초등학교는 95개교에 달하고 있다.”¹⁹⁴⁾ 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한 95개교 중 도평교(1947.4.12), 청수교(1947.3.1), 무릉북교(1947.4.1) 등이 1947년 2월 이후 세워진 학교라는 것을 감안하면, 1947년 1월까지의 초등학교는 모두 92개교로, 95개교라고 한 김총무국장의 발표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192) 제주도교육위원회(1979), 앞의 책, p.230 ;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287.

193)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394를 토대로 영평·수산교를 포함한 통계임.

194) 『제주신보』, 1947년 1월 26일자.

2) 중등학교

(1) 광복 이전의 중등학교

일제시대에 ‘민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기만적 교육정책으로 고등 교육을 제한하고 초등교육과 실업교육만을 강요했다. 따라서 광복 당시 제주도 중등학교는 4년제 제주공립농업학교와 서귀포에 2년제 제주도공립농업실수학교가 있었을 뿐이었다.¹⁹⁵⁾

제주공립농업학교는 1907년 사립의신학교를 모체로 1912년 제주공립간이농업학교로 개편되어 제주도 유일의 중등교육기관이자 농업교육의 본산으로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농업실수학교는 1936년 5월 29일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했고, 수업연한은 1년이었으나, 1943년 4월 1일 2년제로 개편되고, 1944년 2개 학년에 학급당 학생 정원 50명으로 편성된 2학급이 완성되었다.¹⁹⁶⁾

(2) 광복 이후 설립된 중등학교

광복 이후 초등학교 설립 열기 못지 않게 중등학교의 설립운동도 활발했다. 광복 이후 미군정기에 기존의 학제를 개편하거나 새로이 신설되어 실제로 교육을 수행했던 중등학교는 정규·비정규 학교 합해 <표-5>¹⁹⁷⁾의 16개교였다.

<표-5> 미군정기에 교육을 수행했던 중등학교들

	일제시대 설립	광복 이후	정규중학교인가
1	제주농업학교	제주공립농업중학교(1946.9.1)	(기존의 학제 개편)
2	서귀농업실수학교	서귀초급중학교(1946.10.3)	(기존의 학제 개편)
3		중문중학원(1945.10.4)	부(중)문중학교(1950.4.2)
4		하귀중학원(1945.11.18)	단국중학교(1948.4.2)--(폐교)
5		제주중학원(1945.12.1)	제주초급중학교(1946.12.1)

195)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394.

196) 서귀농업고등학교총동창회, 「서농 60년사」, (제주:경신인쇄사), 1997, p.76.

197)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p.394~396, pp.536~541를 참고로 필자가 작성.

	일제시대 설립	광복 이후	정규중학교인가
6			제주고등여학교(1946.2.10)
7		대정중학원	대정초급중학교(1946.9.24)
8		조천중학원(1946.)	(폐교)
9		애월중학원(1946.1.20.)	애월초급중학교(1947.7.5)
10		제주제일중학원(1946.2.15.)	오현초급중학교(1946.10.22)
11		김녕중학원(1946.9.1)	김녕초급중학교(1947.7.8)
12		신성여자중학원(1946.9.3)	신성여자중학교(1949.8.3)
13		한림중학원(1946.10.1)	한림초급중학교(1947.12.7)
14		남원중학원(1947.1.15.)	남원고등공민학교(1948.9.28) --> 남원중학교(1953.4.7)
15		성산중학원(1947.3)	성산초급중학교(1949.9.29)
16		추자청년중학원(1947.9.)	추자고등공민학교(1952.1.5) --> 추자중학교(1955.4.27)

* 제주교육사(1999)의 내용을 기초로 필자가 작성

이 중 제주농업중학교와 서귀초급중학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다가 학제를 개편(198)한 학교이고, 나머지 14개교는 미군정기에 신설된 학교들이다.

광복 이후 도내에 새로 설립된 중등학교들은 그 설립 과정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처음부터 정규학교로 설립된 경우, 둘째는 중학원(199)으로 설치된 후 정규학교로 승격한 경우, 셋째는 중학원에서 고등공민학교를 거쳐 정규학교로 된 경우(200), 넷째는 고등공민학교에서 정규학교로 승격되는 경우(201)가 있었다.

처음부터 정규 중학교로 설립된 경우는 제주고등여학교가 유일했다.

미군정기의 정치·사회적 혼란에다 경제적으로 흉년까지 겹친 상황에서 도민들은 정규중학교 설립 이전 단계로, 정규학교보다 설립인가가 용이한 중학원을 먼저

198) 제주공립농업학교는 1946년 9월 1일 학제의 변경으로 6년제 제주공립농업중학교로 개편되었고, 제주도공립농업실수학교는 1946년 10월 3일 서귀공립초급중학교로 개편되었다(제주교육사(1999), 앞의 책, p.395).

199) 중학교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사설학술 강습소에 해당됨.

200) <표-5>에서처럼 남원·추자중학원의 경우가 이에 해당됨.

201) 신창중학교, 표선중학교, 안덕중학교, 고산중학교 등이 해당됨.

설립해 갔다. 미군정기에 설립되어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했던 중학원은 <표-5>에서처럼 중문·하귀·제주·대정²⁰²⁾·애월·제주제일·조천·김녕·신성여자·한림·남원·성산·추자청년중학원 등 13개교였다.

이 중학원들은 1년제 또는 3년제로 운영되는 등 일정한 수업 연한이 없었다.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설립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인가받지 않고 설립하거나 설립 후 인가받는 경우도 있었다.

광복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까지 <표-5>에서처럼 제주·제주제일·한림·대정·애월·김녕·하귀중학원 등 7개 중학원은 각각 제주초급중학교, 오현초급중학교, 한림초급중학교²⁰³⁾, 대정초급중학교, 애월초급중학교, 김녕초급중학교, 단국중학교로 승격되거나 흡수되었다.

2. 학교 증축 운동



1) 교육시설의 미비

광복 이후 설립된 제주지역의 초·중등학교들은 설립 당시부터 기반 시설을 완비하고 개교하지는 못 했다.²⁰⁴⁾ 일본군들이 사용했던 시설물이나 마을공회당을

202) 제주교육사(1979, 1999)에 대정중학교는 처음부터 정규학교인 초급중학교로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대정중학교 설립에 관여했던 이운방의 증언에 의해 대정면 인민위에서 처음에 중학원의 형태로 설립한 학교였음이 밝혀지고 있다(제주 4·3 연구소(1992), 앞의 책(4·3 장정 5), p.16.).

203) 양진건은, “한림중학원과 한림초급중학교는 각기 독자적으로 설립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다.”라고 하였다(제주도교육청(1991), 앞의 책, p.309.). 그러나 한림중학교에서 펴낸 자료에는, “한림중학원은 1946년 10월 1일 개원되었고, 한림초급중학교는 1947년 12월 7일에 인가되어 1948년 4월 19일 개교했다. 한림초급중학교 학적부에 의하면 2·3학년 학생은 한림중학원에 재학 중 입학한 것으로 되었고, 위치 상으로도 같은 위치에 있어 한림중학원은 한림초급중학교의 전신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리고 「한림읍지」(1963)에는 ‘한림중학원이 1946년 10월 3일 개원절을 기해 당시 한림면 회의실에서 2학급으로 개원했고, 동년 10월 29일 학생 자치적으로 한림동국민학교로 옮겼으며, 1947년 초급중학교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한림중학교, 「한림중학교 50년사」, (제주:신명인쇄사), 1997, p.116.).

204) 이운방이 “당시의 학교들은 책·결상이나 만들어서 개교하는 정도였다.”라고 증언한 것에서 당시의 학교 실정을 짐작할 수 있다(제주4·3 연구소(1990), 앞의 책(4·3 장정

임시 교사(校舍)로 사용하는 학교들이 많았다. 광복 전에 설립된 학교들도 광복 이후 늘어난 학생 수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시설이 부족했다.

일본군들이 사용했던 시설물을 이용한 학교로 제주동초등학교와 대정중학교를 들 수 있다. 제주동교는 일본군들이 사용했던 창고를 가교사로 쓰는 바람에 겨울에는 벌벌 떨면서 수업을 해야 했다.²⁰⁵⁾ 대정중학원도 일본군들이 쓰던 대촌병사의 막사를 접수하여 설립되었다.²⁰⁶⁾ 이밖에 성산서국민학교도 일제 때 양잠실로 사용했던 곳을 가교사로 사용했다고 한다.²⁰⁷⁾

또한 당시에는 공회당이나 향사가 아니면 50명 이상의 학생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교사를 갖추지 못 하고 개교한 학교들은 대부분 향사건물에서 수업을 했다. 향사나 공회당을 이용했던 학교로는 온평교²⁰⁸⁾, 하례교²⁰⁹⁾, 신례교²¹⁰⁾, 강정교²¹¹⁾, 판포교²¹²⁾, 신도교²¹³⁾, 서광교²¹⁴⁾, 중문중학원²¹⁵⁾, 애월중학원²¹⁶⁾, 남원중학원²¹⁷⁾ 등을 들 수 있다.

관공서 시설을 이용해 개교하거나 수업한 학교도 있었다. 한림중학원은 1946년 10월 1일 한림면사무소 문서창고 1동을 이용해 4년제 8학급으로 개설되었다.²¹⁸⁾ 서귀포 형설중학원(일명 ‘창고중학원’)도 남군 농회창고를 빌려 수업²¹⁹⁾했고, 조천중학원도 리사무소에서 교육이 일부 이루어졌다.²²⁰⁾

42주기특집), p.81).

205) 「제주신보」, 1947년 12월 20일자.

206) 제주4·3 연구소(1993), 앞의 책(4·3 장정 6), p.28.

207) 석산 김옥찬 선생 기념문집발간위원회(1995), 앞의 책, p.554.

208)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온평리지」, (제주:경신인쇄사), 1991, p.121.

209) 하례마을, 「하례마을」, 도서출판서울문화사, 1999, p.170 ; 서귀포시, 「서귀포시지」,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1987, p.917.

210) 남원읍 신례1리, 「예촌지」, (제주:영동인쇄사), 1988, p.132.

211) 강정마을회, 「강정향토지」, (제주:도서출판 서울문화), 1996, p.452.

212) 판포리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판포리지」, (제주:경신인쇄사), 1995, p.136.

213) 청암정년기념논문집발간위원회, 「못 다한 사도」, (제주:남경인쇄사), 1995, p.47.

214) 고보화(1934년생, 안덕면 서광동리, 초등학교장 정년퇴임)의 증언(증언일자 2001년 3월 15일).

215) 중문마을회, 「중문향토지 불난디야 불싸지라」, (제주:유경인쇄사), 1996, p.356.

216) 제주농업고등학교총동창회(1990), 앞의 책, p.688.

217) 제주농업고등학교총동창회(1990), 앞의 책, p.689 ; 현입영(일명 현영립, 1915년생, 제주 시 연동, 남원중학원 설립자)의 증언(증언 날짜 2001년 4월 5일).

218) 한림읍, 「한림읍지」, (제주:신명인쇄사), 1999, p.480 ; 한림중학교(1997), 앞의 책, p.116.

219) 제민일보 4·3취재반(1997), 앞의 책(④), p.283.

220) 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해준다 I), p.47.

교실부족으로 분산수업을 한 학교로 한림중학교가 있다. 한림중은 한림면사무소 창고와 옹포리 협신식품 공장창고까지 이용해야 했다.²²¹⁾ 하귀중학원도 3학년은 미수동공회당, 2학년은 동귀리민관, 1학년은 가문동동민관 등 세 곳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²²²⁾

2) 교사 신축·증축 운동

광복 전 설립된 학교들이나 새로이 설립된 학교들은 광복 이후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시설이 부족했다. 그래서 교사의 신축·증축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운동은 주민들의 모금 활동, 노동력 제공 같은 자발적인 학교 후원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²²³⁾

마을공회당에 학생들을 수용해 설립된 온평교는 교실 하나로 4학년까지 모두 합반 수업을 했다. 학교 운영이 어려워 '학교 바당'이 생겼다. 온평리 해안가는 상당히 길며, 바다 양쪽 경계(신산리와 신양리)를 공유화해 마을에서 관리했었다. 당시는 미역값이 상당했으므로 미역을 캐서 1/2을 잠수들이 갖고, 1/2은 마을경비로 쓰다가 기성회 임원들이 상의해 1/2을 학교 운영비로 제공했다. 그래도 경비가 모자라자, 양쪽 경계의 수입 전부를 학교에 헌납하기로 했다. 이때 해녀들은 미역을 캐서 관리하고 그 금액을 학교 운영비로 사용했다. 학교가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해녀 학부모들의 공로는 대단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해녀 공로비를 세웠다.²²⁴⁾

1946년 10월 31일 설립인가 받아 마을향사에서 수업하던 하례교는 신축기성회를 조직하여, 리민이 하나가 되어 산의 나무를 베어 굴리고, 등으로 지고 우마로 끌며 판자를 장뜰으로 오려가며 4개 교실을 준공했다.²²⁵⁾

1945년 10월 4일 창설된 중문중학원은 중문교 교실 일부를 빌어 수업을 하던 중 1946년 1월 28일 중문면민대회를 개최하여 중학교 설치기성회를 조직하고 중

221) 한림읍(1999), 앞의 책, p.480 ; 한림중학교(1997), 앞의 책, p.116.

222) 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II), p.109 ; 제주도교육청(1991), 앞의 책, p.313.

223)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394.

224)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1991), 앞의 책, p.121.

225) 하례마을(1999), 앞의 책, p.170.

문리 향사로 이전했다. 그후 1946년 7월 중문중학 학술강습소 개설인가를 받아 교육열기가 더욱 고조되었고, 마침내 1946년 9월 5일 학생들이 자력으로 목조 2층(직원실, 숙직실)을 준공했다.²²⁶⁾

1946년 9월 1일 설립인가된 가시교는 동년 12월 5일 개교했으나, 학교건물이 없어 가교사인 초가건물과 일반 사택 등에서 수업을 했다. 가시교 신축기성회가 조직되고, 기금모금을 위해 청년들이 농악대(걸궁)를 구성해 1개월여를 마을 전체를 돌며 모금하는 등 마을주민 모두 교사건축에 힘을 모았다.²²⁷⁾

한림초급중학교도 기성회 150만원과 한림중학원 학생 자치적으로 150만원을 부담²²⁸⁾해, 한림공립초급중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설립인가되었다.

이처럼 학교설립과 증축을 위해 마을주민 모두 자금이나 노동력을 제공했고,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비용의 일부를 기꺼이 부담하는 등 교육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거웠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3. 인민위원회의 학교 설립

광복의 환희에 충만되었던 도민들은 각 읍·면별로 다투어 공사립 중등교육기관의 설립에 분주했고, 또 각 마을마다 초등교육기관 설립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당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설립운동이 매우 활발했는데, 그 결과 초등학교는 경북지역의 경우 광복 당시 444개교에서 1948년에 560개교²²⁹⁾로 126%의 성장을, 전국적으로는 1945년 광복 당시 2,834개교에서 1948년에는 3,443개²³⁰⁾로 121%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제주도는 광복 당시 52개교에서 95개교로 183%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나타냈다.

광복 이후 한국교육에서 가장 급진적인 성장을 보인 것은 중등교육 부분이었

226) 중문마을회(1996), 앞의 책, p.356.

227)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가스름」, (제주:대동원색인쇄사), 1988, p.165.

228) 한림읍, 「한림읍지」, 1963, p.98 : 한림중학교(1997), 앞의 책, p.118에서 재인용.

229) 경상북도교육청(1998), 앞의 책, p.527.

230) 경상북도교육청(1998), 앞의 책, p.527.

다.²³¹⁾ 중등학교는 광복 당시 전국적으로 <표-3>에서처럼 166개교에서, 1948년 380개교로 229%의 성장을 보였다.

제주도의 경우도 광복 전 2개 학교²³²⁾에서, 미군정기에 교육을 수행했던 중등학교가 <표-5>에서 16개교로 집계된 것을 생각하면 매우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광복 이후 제주교육사가 논의될 때, 학교설립의 주도 인물들로 교육행정 당국의 지원²³³⁾보다는 읍·면 단위 각 마을유지, 향교의 유림, 종교단체 지도자, 신진 지식인, 재일동포 등 다양하게 거론되었다.²³⁴⁾

미군정기 본도에 설립된 초등학교 43개교의 경우 <표-4>에서처럼 77%에 해당하는 33개교가 1946년 불과 1년 동안에 세워졌다. 1946년은 흉년²³⁵⁾과 호열자의 유행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30만에 불과했던 도민의 힘으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²³⁶⁾ 도민들은 학교부지를 회사하거나 기금모금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노동력까지 제공하여 스스로 학교를 세워 나갔다.

여기에서 우리는 학교설립은 주민들의 집단적 후원과 연대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학교설립과정은 마을공동체 합의의 도출 과정이었다. 주민들은 향회를 열어 집단적 공동의사를 결정하고, 기금을 모으기까지 마을 전체를 돌며 결궁(농약)을 하는 등 주민 모두의 참여를 권장하고, 마을주민 모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마을공동체의 단합을 통해 학교를 설립해 갔다.

그러면 이 당시 마을공동체의 의사를 결정·도출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그 어떤 조직이 있지 않았을까? 학교설립의 주도 인물로 거론된 마을유지, 유림,

23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충북교육사」, 고려서적주식회사, 1979, p.350.

232) 4년제 제주공립농업학교와 2년제 제주도공립농업실수학교(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394.)

233) 광복 후 납읍교의 교사 신축에 정부 보조금 30만원을 기금으로, 잔여금은 향민이 부담해 교사 신축을 추진했다(북제주군 애월읍 납읍리, 「증보납읍향사」, (서울:평범사), 1984, p.93.). 또 광령교도 1947년 교사 증축에 총사업비 72만원 중 군보조금 16만원, 각호 배당금 22만원, 공유재산 방매대금 및 기타 기부금 34만원을 투자하여 마을 직영으로 교사 증축공사를 착공했다(광령1리, 「광령약사」, (제주:재승종합인쇄사), 1990, p.114.).

234)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395.

235) 더군다나 이 해는 제주도민의 주식인 보리 농사가 대흉작이어서 광복 전 수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제주4·3 연구소(1991), 앞의 책(4·3 장정 4), p.49.).

236)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394.

종교 지도자, 지식인 등을 포함한 주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었던 어떤 자치조직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제주교육사에서 광복 이후 학교설립의 주도 세력으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마을별 인민위의 존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77%라는 경이적인 초등학교 설립이 이루어진 1946년은 제주에서 인민위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제주도 인민위는 광복 이후 사실상 제주도 전역을 지배한 도내의 자치행정기구로서, “제주도의 유일한 정당인 동시에 모든 면에서 정부 행세를 한 유일한 조직체”²³⁷⁾로서, 도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기구였다.

미군정도 인정하듯이 8·15부터 1947년 초까지 인민위는 제주도 전역을 지배했으며, 수적으로 강했고 대다수 민중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²³⁸⁾ 인민위는 학습회, 강연회, 웅변회, 체육대회 등 계몽활동을 통해 도민 속에 파고 들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제하고 있었으며, 도내 유일의 신문인 제주민보를 간행했다.²³⁹⁾ 이 결과 제주도는 1945년~1946년 사이에 인민위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었다.²⁴⁰⁾

당시 인민위가 수행했던 학교설립 등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현재까지 파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전국인민위 대표자대회의 중앙인민위 확대 집행위원회(1945.11.24~11.25)에 보고된 강원(남) 지방의 인민위 활동은 제주도 인민위의 학교설립과 그 운영을 유추하는데 참고가 된다. 이 보고에 따르면 강원(남) 지방의 도 인민위에서는 군의 세금으로 37개 소학교와 2개 중학교를 운영했다.²⁴¹⁾

제주도 인민위의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제민일보는 각 지역의 인민위들은 학습회·체육대회 등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야학과 학교설립사업 등

237) E. Grant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New York:King's Crown Press, Columbia Univ), 1952, p.185 :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76에서 인용.

238) 제주4·3연구소(1992), 앞의 책(4·3 장정 5), pp.13~14.

239) 아라리연구원(1988), 앞의 책(Ⅱ), pp.17~18.

240) 아라리연구원(1988), 앞의 책(Ⅰ), p.101.

241) 전국인민위원회(편), 『전국인민위원회대표자대회 의사록』, (서울:동대회 서기부), 1946, p.106. : 아라리연구원(1988), 앞의 책(Ⅰ), p.101에서 인용.

을 인민위 조직에서 추진했음을 취재했다.²⁴²⁾

제주4·3 연구소는 인민위의 기능을 치안유지, 적산관리, 행정 및 공익 기능으로 나누어 기술하면서, “대정면 인민위는 대정중학원을 개설했으며, 각 면·리 인민위도 초등학교, 중학원을 개설하는 등 자치적으로 교육사업에 적극 관여했다.”²⁴³⁾라고 하였다.

제주4·3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대정중학원의 설립 과정을 설명했다.

대정면 인민위에서는 1945년 말경부터 기성회를 조직해 각 마을에서 8~9개월 동안 오백원씩, 천원씩 모금을 시작했다. 동시에 대정교교사를 하던 강달훈·이태식과 광복이 되어 고향에 돌아온 유학생인 이경선, 이승진 등이 초기교사로 들어왔다. 이렇게 교사를 확보하여 대정중학원을 설립한 다음, 1946년 9월에 일단 개교를 했다. 대정면 인민위는 1946년 9월에 도지사 박경훈을 찾아가 공립학교로 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공립인가에 필요한 100만원도 대정지역민 모금으로 만들어 공립인가를 받았다.²⁴⁴⁾

대정면지역의 각 리 인민위에서도 국민학교를 개설하는 등 교육사업에 적극 관여했고, 이 시기에 세워진 국민학교로 가파교와 신도교를 들 수 있다고 한다.²⁴⁵⁾

한림면지역에서 인민위 활동으로 개설된 학교로는 1946년에 시작된 한림중학원이 거론된다.²⁴⁶⁾ 한림면 인민위 문교부는 자치교육에 적극 관여하여 주민들이 설립한 한림중학원과 각 마을 초등학교를 관리하는가 하면 학습회, 강연회를 열어 계몽활동을 펼치기도 했다.²⁴⁷⁾

이에 대해 당시 한림중학원 학생이었던 양창옥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학교는 인민위에서 관리를 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는 인민위에서 추천하여 들어오는 선생님들도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청년활동을 하던 김봉현선생이 있었어.²⁴⁸⁾

242)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72.

243) 제주4·3 연구소(1992), 앞의 책(4·3 장정 5), p.16.

244) 이운방 증언 : 제주4·3 연구소(1990), 앞의 책(4·3 장정 42주기특집), pp.81~82에서 인용 ; 제주4·3 연구소(1993), 앞의 책(4·3 장정 6), pp.28~29.

245) 제주4·3 연구소(1993), 앞의 책(4·3 장정 6), p.28.

246) 제주도교육청(1991), 앞의 책, p.309.

247) 제주4·3연구소(1991), 앞의 책(제주항쟁 창간호), p.233.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광복 이후 학교설립의 주체는 지역유지를 포함한 마을주민 모두였고, 이를 이끌어 나간 기구가 각 면·리의 인민위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앞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도 인민위 설립 과정에서 전·현직교사들이 많이 참여했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각 마을에서 벌어지는 학교설립운동에 음으로 양으로 관여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제주도 전역이 아닌 인민위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대정, 한림면지역에 한정된 논의였다.

인민위의 학교설립에 대한 연구나 증언채록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논의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광복 이후 인민위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으로 대정, 한림면지역 외에도 조천, 애월면지역이 있었다. 대정, 한림, 조천, 애월면지역은 모두 일제하 민족독립운동이 매우 활발했던 곳이었다.²⁴⁹⁾

고창훈은 광복 이후 제주에서 인민위의 교육활동을 주목하고는, 조천중학원과 인민위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인민위의 구성과 병행하여 민중이 주력한 것은 자주교육운동을 통한 사상과 문화의 보급이었다. 일제시대에 농업학교밖에 없던 제주도에 광복 후 오현중·제주중·제주여중 등을 창설하는 것을 필두로 1945년부터 1946년까지 27개 학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문맹퇴치를 위한 무수한 강습소를 세우고 「제주신문」도 펴냈다. 바로 이러한 교육운동과 문화운동이 인민위와 민중을 연결하는 공간이며, 자치 의식과 민족 의식을 드높이는 근원으로 작용했다. 자주교육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조천중학원이었는데 1946년 가을에 생겨 5·10 선거 때 강제폐교를 당할 때까지 진보적 지식인과 지역유지들에 의해 운영되었다.²⁵⁰⁾

또한 애월면지역도 조천면지역과 마찬가지로 광복 이전 활발했던 야학운동이 광복 이후 지역민의 학교설립운동으로 귀결되면서 하귀중학원이 타 지역보다 빠른 1945년 11월에 문을 열었다.²⁵¹⁾

248) 제주4·3연구소(1991), 앞의 책(제주항쟁 창간호), p.233.

249) 제주4·3연구소(1992), 앞의 책(4·3 장정 5), p.19.

250) 고창훈(1989), 앞의 논문, p.258.

251) 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 I), pp.19~20.

지금까지 논의된 조천·하귀중학원과 인민위와의 연관관계를 살피기 위해 당시 이들 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들의 활동 모습을 살펴본다면 인민위와의 연관관계가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조천중학원의 경우 교사인 이덕구, 윤일오, 김민학, 현복유 등은 대부분 일본 유학생으로 그들 중 90%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고, 4·3에서 대부분 끝까지 싸웠으며, 학생들 또한 선생을 돕거나 직접 활동해 4·3에서 대부분 죽었다.²⁵²⁾

하귀중학원의 경우도 하귀지역 유지들의 도움을 받아 태동했다. 설립자는 고창옥(교장)이었고, 교사들은 거의 좌익계²⁵³⁾로, 김포길, 국어 홍모, 문두희, 김홍률 등이 있었다.²⁵⁴⁾ 특히 증언들 중에 학교, 주민, 인민위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당시 하귀주민 과반수 이상이 인민위 사상에 꼭 차 있어서, 하귀근방에는 중학원학생들이 벽보와 배라를 뿌리지 않아도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²⁵⁵⁾

하귀중학원의 설립자 고창옥은 애월읍 초대 인민위원장을 지낸 인물²⁵⁶⁾로, 그를 통해 인민위와 하귀중학원이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서귀면지역에서도 광복 후 인민위를 주도한 이갑출, 이도백, 송태삼, 고중호, 김태봉, 이창옥 등이 남군 농회창고를 빌어 창고중학원을 만들어 교육사업을 했다.²⁵⁷⁾

당시 이 학교에 다녔던 변창호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광복 후 이창옥·고중호 등이 창고중학원을 만들었어요. 재정문제는 이도백 등이 맡았던 것으로 압니다. 교사로는 송두경, 고중호, 김태봉, 이창옥이 있었습니다.²⁵⁸⁾

252) 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 I), p.18.

253) 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 II), p.124.

254) 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 II), p.111.

255) 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 II), p.112.

256) 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 II), p.277.

257) 제민일보 4·3취재반(1997), 앞의 책(㉔), p.283.

258) 제민일보 4·3취재반(1997), 앞의 책(㉔), pp.283~284.

후일 이 창고중학원은 서귀농업실수학교가 서귀초급중학교로 개편될 때 서귀초급중학교에 흡수·통합되었다.²⁵⁹⁾

또한 안덕면 창천리 인민위가 창천지역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사용했던 목재로 초등학교를 설립했다는 주장도 있다.²⁶⁰⁾

지금까지 광복 이후 벌어진 학교설립운동과 그 운영 과정에 각 면·리의 인민위가 관여하고 있는 모습을 대정, 한림, 애월, 조천면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인민위의 학교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각 마을단위에서 초등학교설립을 주도하거나 각 읍·면 단위에서 중학원의 설립을 주도한 인물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이들이 광복 이후 인민위의 활동에 어떠한 형태로 참여했는지가 밝혀진다면 제주지역의 학교설립과 인민위와의 관계가 보다 분명해 지리라 생각한다.

4. 제주도민의 학력 수준

브루스 커밍스는 지방 인민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분석틀의 하나로 교육수준을 비교했다. 커밍스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전제 아래, 1947년 2월 시점에서 경기도를 제외한 각 도에서 2개군씩, 그리고 제주도에서 북제주군 등 모두 15개 군을 비교지역으로 삼았다. 15세 이상의 남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이상의 졸업생 비율을 분석한 이 조사에서 북제주군이 35.7%로 교육수준 1위로 나타났다.²⁶¹⁾ 이는 단적으로 광복 전후 제주교육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1947년 1월 26일자 「제주신보」에도 그 당시의 급진적인 교육 붐을 시사하는 김

259) 서귀농업고등학교총동창회, 앞의 책, p.300에 실린 이기휴교장의 회고 참고. 그런데 제민일보는 “1947년 3·1 사건으로 이도백(벌금형)과 송태삼(체형8개월) 등이 연루되면서 학교도 호지부지 되었다.”라고 취재했다(제민일보4·3취재반(1997), 앞의 책(④), p.284). 그러나 전후 정황으로 보아 1947년 3·1사건 이전인 1946년 10월 경 창고중학원은 서귀초급중학교로 흡수된 것으로 보여 진다.

260) 김동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역사비평」, 봄호, 1991, p.199 ; 제주4·3 연구소(1992), 앞의 책(4·3 장정 5), p.15.

261)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하), 청사, pp.202~203 ;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p.210~211에서 재인용.

두현 총무국장의 발표문이 있었다. 이 기사는 1946년 8월 도 승격 이후 대략 6개월 동안의 교육실태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초등교육 : 도 승격 전 본도의 국민학교는 50개교에 취학아동 수가 2만명 정도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초등학교 수가 95개교이며 취학 아동수가 3만 8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중등교육 : 도 승격 전 본도에는 농업학교 1개교 뿐으로 취학생도 수도 300여 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농업학교에 고등과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대정·서귀 양 공립초급중학교가 설치되었고, 오현·향교 양 사립초급중학교가 인가되어 취학생도 수가 3천 6백명에 달하고 있으며, 사설학술 강습소도 10여 개소에 달하고 있다.

사범교육 : 초등학교교사의 소질을 향상하며 부족한 교사를 보충하기 위해 초등교원양성소를 설치하여 제1회 졸업생 100여 명은 비로소 초등학교 교단에 서고 있으며 제2회 입소생은 수강 중에 있으나 장차 사범학교로 승격하도록 중앙청에 교섭 중에 있다.²⁶²⁾

이 기사는 광복 이후 제주교육의 열기가 그 어느 곳보다도 뜨거웠음을 다시 말해 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커밍스의 분석틀을 인용한다면 교육수준이 높았던 제주지역은 다른 지방에 비해 진보성향이 보다 강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²⁶³⁾

이는 당시 대정, 한림, 애월, 조천면지역에서 인민위 주도로 마을공동체의 향의를 도출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교사를 초빙하였던 자치교육의 전개에서도 이러한 진보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제주도 인민위 설립 과정에 전·현직교사들이 많이 참여했고,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이들은 인민위를 중심으로 각 마을의 학교교육에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더욱이 일제시대 민족운동 세력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광복 후 교사로 활동하는 계기를 갖게 됨에 따라 이들에 의한 자치의식과 민족의식의 강조는 학생과 주민들 사이에 널리 수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²⁶⁴⁾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일제하 민족독립운동을 주도한 중심세력의 하나인 교사들은 광복 이후 인민위 구성에서 3·1시위사건까지를 주도한 중심세력의 하나였으며, 4·3과 5·10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도 세력으로 행동했다.²⁶⁵⁾

262) 「제주신보」, 1947년 1월 26일자.

263)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212.

264) 제주도교육청(1991), 앞의 책, p.323.

이러한 좌익 성향이 결국은 수많은 교사와 학생들을 4·3에 연루시키고 말았다. 4·3의 주도 인물들 중 김달삼·이덕구·김용관 등 교사출신이 많았고, 그 제자들이 선생을 따르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입산하여 무장활동에 참여하기도 함에 따라 토벌 당국에 의해 그 사상을 의심받아, 제주지역의 교사와 학생들이 큰 희생을 치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교육시설도 큰 피해를 입게되는 것이다.

IV. 4·3으로 인한 교육시설의 피해

4·3에서 수많은 교육시설이 무장대와 토벌대의 양쪽에 의해 소실되거나 파괴되었다. 이들 교육시설들은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광복 이후 마을의 향의를 모아 마을공동체에서 건립한 단순한 건물이 아닌 마을공동체의 상징이었다.²⁶⁵⁾ 따라서 이러한 학교시설의 소실은 마을공동체의 파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3에서 입은 교육시설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연구는 지금까지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저 단편적인 기록이나 부정확한 신문 보도 내용만이 있었다.

따라서 4·3에서 교육시설이 입은 피해 실태의 파악은 정밀한 조사와 증언 채록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을 두고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작업이라 하겠다.

필자는 이러한 한계를 무릅쓰고 단편적인 문헌 기록과 증언채록을 바탕으로, 그 피해의 대강이라도 밝혀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조사에 임했다. 먼저 피해 상황을 언급한 기록들과 신문 보도 내용을 점검하고, 필자가 문헌 조사와 증언채록을 토대로 파악한 학교시설의 피해 상황을 약술하고자 한다.

265) 고창훈(1991), 앞의 논문, p.59.

266) 학교건물의 상징성을 잘 표현해 주는 말로, “공회당과 국민학교는 우리 별도의 상징인데 이것이 소각되는 불꽃은 마을이 폐허로 가는 신호가 되고 말았다”라는 표현이 있다(화북동운영위원회, 「화북동향토지」, (제주:재송종합인쇄사), 1991, p.147.).

1. 교육시설 피해에 대한 각종 기록의 검토

4·3으로 소실된 교육시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언급은 4·3이 발생한지 1년이 채 안 된 1949년 3월 30일자 「서울신문」에 연재된 이기영의 “동란의 제주도 현지 실정보고”라는 기사가 우선 눈에 띄었다. 이기영은 이 시점에서 학교 소실 숫자를 34개교로 파악하고 있었다.²⁶⁷⁾

4·3 발발 거의 만 1년 경과 후인 1949년 4월 19일자 「자유신문」은 초등학교 96개교 중 45개교, 중학교 11개교 중 2개교가 소실된 것으로 보도했다.²⁶⁸⁾ 이 「자유신문」 보도에는 모두 47개교의 교육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기사가 정확한 통계에 의한 것이라면 약 20일 동안에 13개교가 더 소실되었거나, 전소된 학교를 찾아냈다는 말이 된다.

1949년 6월 19일자 「동아일보」는 6월 17일부터 도 사회국장 회의에 참석한 윤 제주도 대표의 기자 회견 내용이라며,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3개교가 전소된 것으로 보도했다.²⁶⁹⁾

이 「동아일보」 보도는 제주도 사회국장의 발표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어쩌면 보다 신빙성이 있는 보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자유신문」 보도와 비교했을 때 중학교는 1개교가 더 소실된 것으로 되었으나, 오히려 초등학교 통계는 5개교가 줄어들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 신문 보도 내용을 종합했을 때 그 당시에 학교 소실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김봉현은 통계 집계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광복 30년」의 기록을 재인용하여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3개교가 4·3에서 소실된 것으로 보았다.²⁷⁰⁾ 김봉현이 인용한 통계는 어쩌면 「자유신문」의 초등학교 부분과 「동아일보」의 중학교 부분을 합한 통계인 듯 하다.

부만근은 1948년부터 1950년까지라는 구체적인 통계 집계의 시점을 밝히고, 피해

267)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연구원(1989), 앞의 책, p.190.

268) 제주도교육청(1991), 앞의 책, p.324.

269)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연구원(1989), 앞의 책, p.222.

270) 노민영(1988), 앞의 책, p.251.

상황을 57개교 321교실(국314, 중7)이 불타거나 파괴된 것으로 기술했다.²⁷¹⁾

제주교육사(1979)는 중학교 1개교와 초등학교 약 60개교가 소실된 것으로²⁷²⁾, 제주도지(1982)는 중학교 1개교와 초등 및 기타 학교가 60개교가 소실된 것으로 기록했다.²⁷³⁾ 그런데 제주교육사와 제주도지는 통계 집계 시점을 밝히지 않았는데, 학교피해의 규모로 보아 4·3 전과정에 나타난 교육시설의 피해로 보인다. 그리고 제주도지에서 말하는 기타 학교란 개량서당 등을 지칭하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었다.

교육시설의 피해를 말할 때 교과서적으로 거의 모든 자료에 인용된 통계가 있다. 바로 다음 <표-6>의 제주도세요람(1953)²⁷⁴⁾의 것이다.

<표-6> 제주도세요람(1953)이 제시한 교육시설의 피해 상황

구분 학교별·군별		피해 상황				비 고
		피해 학교 수	피해 교실 수	피해 정도	피해액	
초등학교	북제주군	31	134	전소30, 파괴1	312,340,000	
	남제주군	45	180	전소43, 파괴2	379,713,000	
	소계	76	314	전소73, 파괴3	692,053,000	
중학교	남제주군	1	7	전소1	12,386,000	서귀중학교
	소계	1	7	전소1	12,386,000	
총 계		77	321	전소74, 파괴3	704,439,000	

* 제주도세요람(1953)의 통계

이 통계는 4·3 전과정에서 입은 교육시설의 피해 실태로 초등학교는 전소 73개교·부분 전소 3개교, 중학교는 서귀중학교 1개교만이 전소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주도세요람의 통계도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정확한 것이 아니었다. 다음 절에서 밝히겠지만 중학교의 경우 서귀중학교 외에 중문중학원과 남원고등공민학교가

271) 부만근, 「광복제주30년」, (서울:문조사). 1975, p.251.

272) 제주도교육위원회(1979), 앞의 책, p.121.

273) 제주도, 「제주도지」(하), 1982, p.423.

274) 제주도청, 「1953년도 제주도세요람」, 1954, p.35.

전소되어, 중학교는 3개교가 전소되었기 때문이었다.

현재까지도 4·3으로 입은 교육시설에 대한 정확한 피해 집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4·3의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그 피해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그 바탕 위에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4·3의 피해조사는 수없이 희생된 양민들의 신원과 명예회복을 위해 부득이 인명피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4·3의 극복을 위해서는 인명피해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의 피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4·3이 초래한 총체적인 피해를 종합할 수 있고, 그런 연후에야 제대로된 진상 규명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교육시설의 피해 상황

1) 교육시설 피해 일지



교육시설의 피해 상황에 대한 논의의 전개를 위해 학교시설의 피해가 발생한 순서대로 일지를 작성하였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3에서 제일 먼저 소실된 학교는 무장대에 의한 1948년 5월 10일의 수산초등학교였고, 마지막으로 소실된 학교도 역시 무장대에 의해 1951년 4월 초순에 전소된 난산초등학교였다.

(1) 수산초등학교

제주교육사(1979, 1999)나 성산읍 수산리의 「수산리지」에는 수산교의 4·3에서의 피해 실태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 그런데 당시 이 학교에 근무했던 김옥찬 교사는 정년퇴임 후 회고록에서, 1948년 5월 10일 무장대가 당시 학교교사로 사용하던 공회당에 투표소가 설치되자, 학교교실에 석유를 뿌려 불태웠다는 기록을 남겼다.²⁷⁵⁾

필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옥찬 교사를 만나 증언을 들었다. 당시 수산교는

275) 석산 김옥찬 선생 기념문집발간위원회(1995), 앞의 책, p.558.

1학년은 수산2리 향사에서, 2학년은 수산1리 공회당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고, 무장대가 습격했을 때 증언자 자신이 수산1리 학교에서 일직근무 중이었으며, 이날 습격으로 공회당에 마련된 교무실과 1개 교실이 소실되었다고 회고록의 내용을 확인해 주었다.²⁷⁶⁾

수산교는 이때 2학년이 공부하는 수산1리 공회당만 소실되었기 때문에, 수산교의 피해는 부분 전소로 볼 수 있다.

(2) 저지초등학교

1948년 5월 13일 무장대가 마을을 습격하면서 한경면 저지교를 전소시켰다.²⁷⁷⁾ 제주교육사(1979, 1999)에는 소실 일자는 밝히지 못했지만 저지교가 4·3으로 소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⁷⁸⁾

(3) 조천중학원

4·3의 여파로 5·10선거를 전후하여 강제폐교 당했는데, 교사들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조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²⁷⁹⁾ 학적부 등도 불타버려 보존될 수 없었다는 증언이 있다.²⁸⁰⁾

(4) 평대초등학교

1948년 9월 초순경²⁸¹⁾ 무장대의 기습과 방화로 구좌읍 평대교와 교사 신축을 위해 쌓아둔 건축자재가 전소되었다.²⁸²⁾

(5) 단국중학교

1948년 4월 2일 조정구 등이 재단을 설립, 하귀중학원을 인수하여 단국중학교로 정식 중학교 인가를 받았다. 48년 7월 단국중학교라는 이름으로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나아가 파군봉 쪽에 교사 신축을 위해 자재까지 들여왔다.²⁸³⁾ 불행

276) 김옥찬(1928년생, 서귀포시 강정동, 당시 수산교 교사, 중등학교장 정년퇴임)의 증언(증언 날짜 2001년 4월 22일).

277) 제민일보 4·3취재반(1995), 앞의 책(③), p.34.

278) 제주도교육위원회(1979), 앞의 책, p.218 ;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529.

279) 제주도교육청(1991), 앞의 책, p.315.

280) 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 I), p.74.

281)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 「평대리」, (제주:일신옵셋인쇄사), 1990, p.97. 그런데 1948년 3월 9일 무장대에 의해 건물, 시설이 소실되었다는 기록도 있다(평대국민학교, 「평대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p.49). 그러나 이 기록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

282)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1990), 앞의 책, p.189.

283) 제주도교육청(1991), 앞의 책, pp.313~314.

히도 4·3 와중에 교내 좌우익의 대립이 심각한 가운데 폐교되었다.²⁸⁴⁾

단국중학교 1회 학생 50명 가량 중 상당수가 좌익으로 분류되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학생은 사상과 전혀 무관하였음에도 1948년 9월에 개학했을 때 등교하면 수료장을 준다는 말을 듣고 학교에 갔다가 희생당했다고도 한다.²⁸⁵⁾

따라서 전후 정황을 고려할 때 단국중학교는 1948년 9월 경 폐교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조수초등학교

정규 교실 7실, 교장관사, 직원숙사 4동, 부속건물 6동(창고2, 숙직실, 변소)의 시설²⁸⁶⁾을 갖추었던 한경면 조수교의 피해 상황을 단순히 “1948년 3월 10일 폐교되었다.”²⁸⁷⁾라고 한 기록이 있다. 또한 「조수향토사」(1988)는 4·3으로 1948년 10월 3일 한경면 조수리에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토벌대에 의해 조수교는 물론 마을의 전 가옥이 불태워졌다라고 기술했다.²⁸⁸⁾ 조남수는 그 시기를 밝히지 못했지만 소개령 이후 토벌대의 조수리 방화를 생생히 증언했다.²⁸⁹⁾

그런데 조수리의 소개 시기를 「조수향토사」(1988)의 1948년 10월 3일이 아닌 그해 11월 3일(음력 10월 3일)이었고, 조수교는 전소된 것이 아니고 소개령이 내린 4, 5일 후에 고산리 민보단에 의해 7개 교실 건물이 해체되어, 그 자재는 고산리에 소개온 조수, 낙천 등의 주민들이 거처할 가건물을 짓는데 사용되었다라는 증언을 채록할 수 있었다.²⁹⁰⁾

그리고 1948년 11월 7일 소개령으로 조수리 사람들 일부가 낙천, 저지 주민들과 함께 고산으로 소개해 왔다는 기록도 있었다.²⁹¹⁾

따라서 조수리의 소개는 1948년 11월 초순 경이었고, 이 무렵에 조수교도 건물이

284)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539.

285) 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Ⅱ), p.117, p.276.

286) 조수리향토사 편찬위원회(1988), 앞의 책, p.133.

287)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282 ; 조수국민학교, 「조수학구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p.35.

288) 조수리향토사 편찬위원회, 「조수향토사」, (제주:대한인쇄사), 1988, p.134, p.276.

289) 조남수(1988), 앞의 책, p.168.

290) 김봉수(1927년생, 한경면 조수1리, 증언일자 2001년 5월 22일)·김소정(1937년생, 당시 조수교 4학년생, 한경면 조수1리, 증언일자 2001년 5월 29일)·홍국화(1926년생, 한경면 조수1리, 증언일자 2001년 5월 29일)의 증언

291)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제주 고산 향토지」, (제주:태화인쇄사), 2000, p.356.

해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 광령초등학교

애월읍 광령교의 피해 상황을 광령교에서 펴낸 「향토지」는 1948년 11월 3일 교사가 전소되어 폐교된 것으로 기록했다.²⁹²⁾ 그리고 광령1리에서 펴낸 「광령약사」에는 1948년 11월에 마을이 일제히 소개됨에 따라 광령교 역시 교사가 소실되어, 자연폐교된 것으로 기술했다.²⁹³⁾

그리고 「광령약사」는 1948년 11월 16일 자정이 가까웠을 무렵에서 다음날 오전 5시경까지, 토벌대가 학교앞을 시작으로 대로변을 따라 도고리왓, 무수천까지 집이란 집은 다 불태우며 순식간에 마을을 휩쓸었던 것이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²⁹⁴⁾

따라서 광령교의 전소는 소개령으로 마을이 불태워졌던 1948년 11월 16일 경 토벌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8) 중문중학원

1948년 11월 5일 새벽 무장대가 중문리를 습격하면서 서귀포시 중문중학원에 2차례 불을 질러 교실과 직원실 뿐 아니라 학적관계 서류까지 전소시켰다.²⁹⁵⁾

(9) 서귀중학교

1948년 11월 7일 공비들이 서귀면을 내습하는 과정에 서귀포시 서귀중학교가 전소되었다. 7개 교실과 제주도공립농업실수학교 시절의 제반서류와 비품 일체도 소실되었다.²⁹⁶⁾

제주교육사(1979, 1999)에는 서귀중이 전소된 날짜를 11월 8일로 기술했는데, 이는 정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10) 노형초등학교

1948년 11월 19일 토벌대가 노형마을을 불태우면서 노형동 함박이굴의 5칸 정도 초가건물인 노형교를 폭도들의 회합 장소로 이용된다며 전소시키고 말았

292) 광령국민학교, 「향토지」, (제주:삼화상사), 1987, p.115.

293) 광령1리(1990), 앞의 책, pp.114~116.

294) 광령1리(1990), 앞의 책, p.30.

295) 중문마을회(1996), 앞의 책, p.356 ; 도봉선생정년기념문집간행위원회, 「사도여정」, (제주:경신인쇄사), 1997, p.102.

296) 서귀농업고등학교총동창회(1997), 앞의 책, p.75.

다.²⁹⁷⁾ 당시 노형초등학교의 규모는 3개 교실 크기였다.²⁹⁸⁾

(11) 봉개초등학교

오성찬은 “봉개교는 4·3으로 전소되어 한때 삼양교에 전입되었다.”라고 기술하면서도 소실 날짜를 밝히지 못했다.²⁹⁹⁾ 봉개교에서 간행한 「향토지」에는 1948년 10월에 교사가 전소된 것으로 기록되었다.³⁰⁰⁾ 이 두 기록 모두 방화의 주체를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토벌대가 소개령을 내려 봉개마을을 잿더미로 만든 것은 1948년 11월 20일이었다.³⁰¹⁾

대부분의 중산간마을들은 1948년 11월 중순 이후 9연대의 초토화작전이 수행되면서 소개령이 내려져 토벌대에 의해 불태워졌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 시설도 이때 같이 전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봉개교의 전소도 소개령이 내려진 그해 11월 20일경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토벌대에 의해 봉개교가 1948년 11월 경에 전소되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증언자로 고운보가 있다.³⁰²⁾

(12) 송당초등학교

1948년 11월 21일 군작전 수행상 구좌읍 송당교가 전소되었다.³⁰³⁾ 그런데 제주교육사(1999)에는 단순히 “1948년 11월 21일 4·3으로 교사가 전소되었다.”³⁰⁴⁾ 라고만 기술되어 있다.

대부분의 기록들이 토벌대가 교육시설을 불태운 경우 이를 명기하지 않고 있다. 4·3의 진상 규명을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기 위해서라도 방화의 주체가 제대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297) 제주4·3 제50주년 학술·문화 사업추진위원회(1998), 앞의 책, p.142. 그런데 노형교의 전소 일자를 1948년 11월 26일로 파악하고 있는 기록도 있다(노형지편찬위원회, 「노형지」, (제주:성심인쇄사), 1996, p.190 ; 노형국민학교, 「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p.49.).

298) 노형국민학교(1987), 앞의 책, p.49 ; 노형지편찬위원회(1996), 앞의 책, p.190.

299) 오성찬, 「제주의 마을 시리즈」⑦ 봉개리, 도서출판 반석, 1987, p.49.

300) 봉개국민학교, 「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p.45 ;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524.

301)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28호, (제주:온누리 인쇄문화사), 1997, p.37.

302) 고운보(1915년생, 제주시 봉개동)의 증언(증언일자 2001년 2월 11일).

303) 송당국민학교, 「송당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p.43.

304)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p.279~280.

(13) 선홍초등학교

조천읍 선홍교에서 “1948년 10월 31일 선홍리 주민 등 8명이 선홍교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에게 희생되었다.”³⁰⁵⁾라는 증언이 있었다. 선홍리 주민들이 소개된 것은 1948년 11월 21일(음력 10월 21일) 경³⁰⁶⁾이었고, 이날 토벌대는 텅빈 선홍리 마을에 불을 질렀으며 숨어 있는 주민들에게도 소개령이 전해졌다.³⁰⁷⁾ 따라서 선홍교가 토벌대에 의해 전소된 시기는 1948년 11월 21일경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선홍교의 전소 날짜를 1949년 10월 18일로 보는 기록들이 있다.³⁰⁸⁾ 선홍리 소개 날짜를 생각하면 1949년 10월 18일은 1948년의 오기인 것 같고, 1948년 10월 31일에 선홍교에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기록은 잘못된 것 같다.

선홍교가 그해 11월 21일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토벌대에 의해 전소되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증언자로 김형조가 있다.³⁰⁹⁾

(14) 대홍초등학교

조천읍 대홍교가 전소되어 폐교된 날짜를 1948년 12월 10일³¹⁰⁾ 혹은 12월 16일³¹¹⁾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들 기록에도 역시 방화의 주체가 숨겨져 있었다. 당시 전소 규모는 2개 교실 및 사무실로 보인다.³¹²⁾ 그런데 1948년 12월 22일에 송정봉(당시 28세) 여인이 9연대에 의해 불타버린 대홍교터로 끌려가 총살되었다는 증언³¹³⁾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2월 22일 이전에 대홍교가 소실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홍리에 대한 방화는 1848년 11월 20일께 벌어졌고, 마을 사람들이 소개 명령에 따라 11월 21일 경부터 해변마을로 내려갔다는 취재 결과³¹⁴⁾를 바탕으

305) 제민일보 4·3취재반(1997), 앞의 책(④), pp.320~322.

306)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30호, (제주:온누리 인쇄문화사), 1998, p.8.

307) 제민일보 4·3취재반(1997), 앞의 책(④), p.413.

308)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279 ; 선홍국민학교, 「선홍학구향토지」, (제주:삼원인쇄사), 1987, p.57.

309) 김형조(1922년생, 조천읍 선홍리)의 증언(증언날자 2001년 4월 17일).

310) 제주도교육위원회(1979), 앞의 책, p.219 ;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278.

311) 김민규, 「조천읍지」, 도서출판제주문화, 1991, p.310 ; 대홍국민학교, 「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p.73.

312) 대홍국민학교(1987), 앞의 책, p.73 ; 김민규(1991), 앞의 책, p.310.

313) 제민일보 4·3취재반(1997), 앞의 책(④), pp.401~402.

로 할 때 토벌대에 의한 학교 소실 시기를 11월 21일 경으로 볼 수 있다. 이웃 마을 선흘리와 선흘교에 대한 방화가 이해 11월 21일 경에 이루어졌다는 김형조의 증언에 비추어 대흘리의 방화도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 졌을 것이다.

대흘리 출신 이두길은 가을이 끝날 무렵 소개가 이루어졌고, 날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토벌대에 의해 대흘교가 전소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³¹⁵⁾

(15) 태흥초등학교

남원면 태흥교에서 펴낸 「태흥리지」는 1948년 10월 23일 태흥교의 가교사가 소실된 것으로 기록했다.³¹⁶⁾ 제민일보는 1948년 11월 23일 무장대가 습격하여 태흥2구에서 보초서던 주민 5명을 살해하고 향사를 전소시킨 사실을 취재했다.³¹⁷⁾

그런데 당시 태흥교는 태흥2구 향사에서 운영³¹⁸⁾되었으므로, 태흥교 전소 일자는 1948년 11월 23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당시는 음력과 양력이 같이 가고 있었으므로 「태흥리지」의 10월 23일은 음력 10월 23일이 되는 것이다.

(16) 가시초등학교

표선면 가시교의 피해 상황에 대해, 소실 여부는 밝히지 않고 단지 “1949년 3월 10일 4·3으로 폐교”³¹⁹⁾되었다거나, “1949년 3월 10일에 소실되어 폐교”³²⁰⁾란 기록처럼 소실 여부는 밝히면서도 그 소실 시기를 폐교 시점에 맞춰 기록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가시교는 1948년 초겨울 마을에 소개령이 내려져 세워진 지 2년만에 문을 닫아야 하는 비운을 맞았고, 신축된 교사도 학생들을 수용해 보지도 못한 채 잿더미로 변하여, 1949년 3월 10일에 폐교되었다라는 기록도 있다.³²¹⁾

가시리에 소개령이 내려진 것은 1949년 1월 11일이었다. 그러나 이미 1948년 11월 15일 9연대의 소탕작전으로 가시리는 360여 세대 중 250여 세대의 가옥이 잿더미로 변했었다.³²²⁾

314) 제민일보 4·3취재반(1997), 앞의 책(④), p.409

315) 이두길(1930년생, 대흘리 출신, 제주시 일도2동)의 증언(증언날자 2001년 4월 24일)

316) 태흥국민학교, 「태흥리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p.56.

317)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118~119.

318) 태흥교 1회 졸업생 김권홍은 태흥교는 김인경의 생가 뒤편 향사에서 개교한 것으로 회상했다(태흥초등학교총동창회, 「동창회지」, (제주:성심인쇄사), 1996, p.30.).

319) 가시국민학교, 「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p.85 ;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531.

320) 제주도교육위원회(1979), 앞의 책, p.229.

321)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1988), 앞의 책, p.166.

따라서 토벌대가 가시교를 불태운 시기도 초겨울로 접어드는 그 해 11월 중순 경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 하다.

토벌대가 가시교를 불태운 것은 오국만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³²³⁾

(17) 구억초등학교

대정읍 구억교는 1948년 4월 28일 당시 9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이 평화협상을 가졌던 곳이었다. 이 구억교에 대해 제주교육사(1979)는 1945년 4월 대정북국민학교로 승격되었고, 1948년 4·3으로 교사가 전소당하여 폐교된 것으로 기록³²⁴⁾하면서도 방화의 주체를 밝히지 못했다.

제주4·3연구소는 구억교를 증축할 계획으로 목재 등 자재를 구입했으나, 마을이 소개되면서 목재를 군인들이 불질렀고, 학교비품은 소개학교인 보성교로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³²⁵⁾

이 두 기록을 종합하면 구억교도 여느 중산간마을 학교처럼 토벌대가 소개령을 내린 후 전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억리에 대한 소개령은 초토화작전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1948년 11월 15일 경 내려졌다. 주민들은 가까운 대정골로 3일에 걸쳐 집을 옮겼으며, 소개 직후 집들은 모두 토벌대에 의해 불태워졌다.³²⁶⁾

따라서 토벌대가 구억교를 전소시킨 것은 1948년 11월 중순 경이었을 것이다. 이때 피해 규모는 2개 교실과 관사 등이었다.³²⁷⁾

토벌대가 구억교와 학교 증축을 위해 확보했던 자재를 전소시켰다는 사실은 오병현, 장찬길, 박근호 등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³²⁸⁾

(18) 위미초등학교

1948년 11월 28일 무장대가 위미리를 습격하면서 남원읍 위미교를 전소시켰다.³²⁹⁾ 당시 위미교 교사였던 오남련은 당시 학교 규모를 동서화장실 2동, 숙직

322)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1988), 앞의 책, p.74.

323) 오국만(1932년생, 표선면 가시리)의 증언(증언일자 2001년 4월 22일)

324) 제주도교육위원회(1979), 앞의 책, p.222.

325) 제주4·3 연구소(1990), 앞의 책(4·3 장정 42주기 특집), p.63

326)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317.

327) 제주4·3 연구소(1990), 앞의 책(4·3 장정 42주기 특집), p.63 참고.

328) 오병현(1920년생, 대정읍 하모리, 당시 대정교교사)·장찬길(1934년생, 대정읍 구억리)·박근호(1930년생, 대정읍 구억리)의 증언(증언 일자 2001년 4월 15일).

329) 위미신용협동조합, 「위미리지」, (제주:일신출판사), 1991, p.75 ; 남원읍 신례2리,

실, 창고, 목조기와 7개 교실로 회고했다.³³⁰⁾

(19) 남원초등학교

1948년 11월 28일 무장대의 기습으로 남원읍 남원교가 전소되었다.³³¹⁾ 당시 남원교 교사였던 김윤조는 학교 규모를 6개 교실, 교장 관사, 숙직실, 창고 등을 갖춘 것으로 회고했다.³³²⁾

(20) 남원고등공민학교

1947년 1월 15일 현중흥, 현입영이 설립한 남원중학원은 1948년 9월 28일 남원고등공민학교로 인가되어 운영³³³⁾되다가, 1948년 11월에 전소되었다.³³⁴⁾

필자는 이 학교의 운영과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이 학교의 설립자였던 현입영(일명 현영립)을 만날 수 있었다.

현용은 남원고등공민학교는 남원리 향사에서 운영되었고, 2개 교실과 숙직실을 갖추었으며, 4·3당시에는 3학년 150여 명이 공부했던 견실한 학교였으나, 무장대가 남원리를 기습한 1948년 11월 28일에 남원교가 전소될 때 역시 소실되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³³⁵⁾

(21) 영평초등학교

당시 석조와가 교실 4실·변소 1동·숙직실 1동의 규모를 갖춘 제주시 영평하동(속칭 '알무드내')의 영평교는 1948년 12월에 전소되었다.³³⁶⁾ 또한 그 소실 일자를 1948년 11월로 보는 기록도 있다.³³⁷⁾ 이 기록들에는 방화의 주체가 표현되지 않았다.

필자가 영평마을에서 만난 유인옥, 문경행은 소개령이 발동되면서 토벌대에 의해 학교가 소실되었고, 그 시기는 1948년 11월 중순 경이라고 증언해 주었다. 그리

「공천포지」, (제주:일신옵셋인쇄사), 1994, p.90.

330) 오남련(1925년생, 서귀포시 중앙동, 당시 위미교 교사, 초등학교교장 정년퇴임)의 증언(증언 날짜 2000년 8월 27일)

331) 남원국민학교, 「향토지」, (제주:영동인쇄사), 1987, p.54.

332) 김윤조(1926년생, 남원읍 의귀리, 당시 위미·남원교 교사, 초등학교장 정년퇴임)의 증언(증언 날짜 2001년 4월 1일).

333)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540.

334) 제주도교육위원회(1987), 앞의 책(Ⅰ), p.580.

335) 현입영(일명 현영립, 1915년생, 제주시 연동 거주)의 증언(증언 날짜 2001년 4월 5일).

336) 영평국민학교(1987), 앞의 책, p.45.

337) 제주도교육위원회(1987), 앞의 책(Ⅰ), p.580.

고 유인옥은 당시 영평교에 주둔하고 있었던 서청에게 마을 부녀자들과 식사 제공을 했었다며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³³⁸⁾

그런데 영평교는 앞에서 논의한 대로 미군정기에 설립된 학교였지만 4·3으로 전소되어 복구된 후 현재까지도 학교 연혁에 4·3 이전의 역사가 등재되지 못한 ‘잃어버린 연혁’을 갖고 있는 슬픈 학교가 되어 있다. 제주교육사(1999)에도 1968년에 설립된 학교로만 기록되어 있음을 앞에서 밝힌 바 있다.

(22) 서광초등학교

안덕면 서광리의 소개는 1948년 11월 15일 경³³⁹⁾ 이루어졌고, 소개 직후인 11월 말 경에 마을과 향사가 토벌대에 의해 전소되었다.³⁴⁰⁾ 당시 서광교는 서광서리의 향사에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향사의 소실이 바로 서광교의 소실이었다.³⁴¹⁾

그런데 일부 문헌에는 방화의 주체를 밝히지 않고 1949년 1월 5일에 학교가 소실되고 부락도 소개를 하였으므로 자연 폐교³⁴²⁾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1월 5일은 소실이 아닌 폐교 날이었다.³⁴³⁾

또한 당시 서광리에는 서광서리의 향사 옆 밭에서 학교건축 공사가 한창이었고, 80%정도의 공사 진전 상태에서 4·3을 맞아, 신축 중이던 서광교 건물이 무장대에 의해 전소되었다는 기록도 있다.³⁴⁴⁾

그리고 전소된 것이 아니라, 태풍으로 신축 중인 학교 건물이 쓰러졌고, 이 상태에서 4·3을 맞아 그 자재들을 서광교의 소개지인 안덕교로 가져갔다는 증언도 있다.³⁴⁵⁾

(23) 동광초등학교

안덕면 동광교의 비극에 대해, “4·3의 참화와 함께 불타 버렸고, 주민들의

338) 유인옥(1926년생, 제주시 영평하동)·문경행(1934년생, 제주시 영평하동)의 증언(증언 날짜 2001년 4월 26일).

339)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261.

340) 고보화(1934년생, 안덕면 서광동리, 초등학교장 정년퇴임)의 증언(증언 날짜 2001년 3월 15일).

341) 고보화의 증언(증언 날짜 2001년 3월 15일).

342) 제주도교육위원회(1979), 앞의 책, p.224.

343) 고보화의 증언(증언 날짜 2001년 3월 15일).

344) 서광교, 「서광리지」, (제주:삼성인쇄사), 1986, p.16.

345) 송성인(1922년생, 안덕면 서광서리)·고상부(1932년생, 안덕면 서광서리)·고상화(1935년생, 안덕면 서광서리)·이공우(1927년생, 안덕면 서광서리)의 증언(증언날자 2001년 3월 18일).

이주와 함께 폐교되었다.”³⁴⁶⁾라는 기록처럼 소실 시기와 방화의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문헌이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동광교학생이었던 신원숙은, “동광리가 소개된 후 토벌대에 의해 학교가 전소되었고, 당시 학교 규모는 2개 교실과 사무실이 있었으며, 학생 수는 약 40여 명이었다.”³⁴⁷⁾라고 증언했다.

제주교육사(1999)에는 1948년 12월에 학교가 전소된 것으로 기록되었다.³⁴⁸⁾ 제민일보는 1948년 11월 15일 새벽 군토벌대가 동광리 무등이왓에서 10여 명을 총살할 때까지 소개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주민들은 소개령이 내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을 취재했다.³⁴⁹⁾

그리고 이웃마을 서광리도 1948년 11월 15일 경 소개되었고, 소개 직후 11월 말경 서광리 마을과 향사가 소실되었다는 증언에 비추어 동광교도 거의 같은 시기인 그해 11월 중순에서 말 경에 토벌대에 의해 전소된 것으로 보인다.

(24) 금악초등학교

한림읍 금악교에서 펴낸 「향토지」는 방화의 주체를 밝히지 않고, 4·3으로 교사·교구가 전소되고 마을이 소개됨에 따라 1949년 10월 1일 폐교된 것으로 피해 상황을 기술했다.³⁵⁰⁾ 제주교육사(1979, 1999)도 방화의 주체나 전소 여부에 대한 표현 없이, 단순히 1949년 10월 1일에 폐교된 것으로 기록했다.³⁵¹⁾

「한림읍지」는 “금악리에 1948년 11월 18일, 20일 사이에 소개령이 내려져 마을은 불바다가 되었다.”³⁵²⁾라고 기술했다. 따라서 금악교도 여느 중산간마을의 학교처럼 토벌대에 의해 1948년 11월말 경에 전소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금악교가 토벌대에 의해 1948년 11월말에 전소되었다는 사실은 박남진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증언자는 당시 학교 규모는 교무실과 2개 교실이 있었다고 했다.³⁵³⁾

346) 서광교, 「서광리지」, (제주:삼성인쇄사), 1986, pp.41~42.

347) 신원숙(1935년생, 안덕면 동광리, 당시 초등학생)의 증언(증언 날짜 2001년 3월 18일).

348)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286.

349)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p.251~252.

350) 금악국민학교, 「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p.19 ; 한림읍(1999), 앞의 책, p.1182.

351)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278 ; 제주도교육위원회(1979), 앞의 책, p.216.

352) 한림읍(1999), 앞의 책, p.1181.

353) 박남진(1935년생, 한림읍 금악리, 당시 금악교 6학년)의 증언(증언날자 2001년 4월 22

(25) 아라초등학교

제주시 아라교에서 펴낸 「아란지」는 향사에서 교육활동을 하던 중 폭도들의 만행으로 1949년 11월에 전소되어 폐교된 것으로 피해 상황을 기술했다.³⁵⁴⁾ 제주교육사(1979, 1999)는 방화의 주체를 표현하지 않고, 1949년 11월에 4·3으로 소실되어 폐교된 것으로 기록했다.³⁵⁵⁾

그러나 아라교는 무장대에 의해 방화된 것이 아니라 1948년 그 해 추수가 끝날 때인 11월 경 아라지역에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토벌대에 의해 전소되었다고 전해 주는 증언자들이 많았다.³⁵⁶⁾

따라서 아라교는 무장대가 아닌 토벌대에 의해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아란지」의 기록은 정정되어야 할 것 같다.

(26) 장전초등학교

1949년 1월 25일 4·3으로 애월읍 장전교가 소실되었다.³⁵⁷⁾ 피해 규모는 40평 석조기와 2개 교실이었고, 방화의 주체는 무장대라는 기록이 있다.³⁵⁸⁾

그리고 1948년 11월 국가의 소개령에 따라 장전마을이 소개되자, 마을과 함께 학교도 전부 전소되었다는 기록도 있다.³⁵⁹⁾

그런데 장전리에서 2회에 걸쳐 증언채록을 한 결과 1948년 11월에 장전리에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학교가 토벌대에 의해 전소되었고, 당시 장전교는 2개 교실과 교무실이 있는 기와 건물이었으며, 1949년 1월 25일은 장전교가 정식으로 폐교된 날이라고 했다.³⁶⁰⁾

따라서 장전교의 소실은 1949년 1월 25일이 아닌 여느 중산간 마을처럼 소개령

일). 그리고 증언자는 소개령이 내려진 시기를 1948년 11월 20일에서 23일(음력 10월 20일에서 23일) 경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354) 아라국민학교, 「아란지」, (제주:선우웁셋인쇄사), 1987, pp.85~89.

355) 제주도교육위원회(1979), 앞의 책, p.211 ;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524.

356) 김태성(1934년생, 제주시 아라2동, 증언일자 2001년 3월 5일)·현관하(1936년생, 제주시 아라2동, 증언일자 2001년 3월 10일)·전춘근(1934년생, 제주시 아라1동 인다마을, 증언일자 2001년 4월 26일)의 증언.

357)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529.

358) 장전국민학교, 「장전학구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pp.22~24.

359) 애월읍(1997), 앞의 책, pp.539~540.

360) 박운표(1936년생, 애월읍 장전리, 당시 장전교 4학년, 증언일자 2001년 4월 22일)·안태영(1927년생, 장전리, 증언일자 2001년 5월 29일)의 증언.

이 내려진 1948년 11월이었으며, 방화의 주체도 무장대가 아닌 토벌대인 것 같다.

그러므로 무장대에 의해 장전교가 전소되었다는 「장전학구향토지」의 기록은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 고성초등학교

애월읍 고성리는 1948년 11월 19일에 일제히 상귀, 하귀로 소개되었다. 그리고 주민들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그해 12월 25일 마을의 가옥과 학교 등이 모두 토벌대에 의해 소실되었다.³⁶¹⁾ 또한 이때 고성간이학교의 학적부와 고성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일체의 기록들도 함께 소실되었다.³⁶²⁾

그런데 1948년 11월 공비에 의해 소실되어 폐교되었다는 기록³⁶³⁾도 있는데, 이는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 세화초등학교

1948년 12월 3일 무장대가 세화리를 습격하면서 길가의 집들을 불 질렀고 닥치는 대로 주민들을 살해하고, 구좌읍 세화교를 불태웠다.³⁶⁴⁾ 그리고 학적부를 제외한 학교의 중요 문서(졸업대장 1회~5회)도 소실되었다.³⁶⁵⁾ 이때 전소 규모는 7개 교실 및 부속건물(교장관사, 숙직실, 창고) 일체였다.³⁶⁶⁾

(29) 구엄초등학교

1948년 12월 19일에 무장대가 구엄리를 습격, 인명을 살상하고 가옥들을 불태우면서 애월읍 구엄교를 전소시켰다.³⁶⁷⁾ 이날 방화로 당직교사 이기형·송창우, 전달수 김여조 등이 소사 순직했다.³⁶⁸⁾

(30) 신례초등학교

남원읍 신례1리에서 펴낸 「예촌지」는 “신례교는 1946년 마을 향사에서 개교되었고, 4·3으로 마을이 공천포로 소개될 때 학교도 함께 소개한 후, 1948년 11월 15일 폐교되었다가 1949년 8월 1일 하례교 신례분교장으로 설립인가되었다.”³⁶⁹⁾라

361)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고성리지」, (제주:대원인쇄사), 1993, p.75.

362)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1993), 앞의 책, p.166.

363) 하귀국민학교, 「하귀학구향토지」, 신제주인쇄사, 1987, p.70.

364)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48.

365) 세화국민학교총동창회, 「세화교50년지」, (제주:대동원색인쇄사), 1988, p.45.

366) 세화국민학교총동창회(1988), 앞의 책, pp.27~32.

367) 애월읍, 「애월읍지」, (제주:선진인쇄사), 1997, p.418.

368) 구엄국민학교, 「구엄학구향토지」, (제주:삼화상사), 1987, p.96.

고 했다. 그런데 그 「예촌지」는 신례1리의 공천포로의 소개 날짜를 1949년 12월 10일이라고도 했다.³⁷⁰⁾

제민일보 4·3 취재반의 취재 결과 토벌진영에서 신례1리에 소개령을 내린 것은 1948년 12월 11일이었다.³⁷¹⁾ 제주교육사(1979)는 신례교가 1948년에 4·3으로 교사가 소실되어 폐교된 것으로 기록했다.³⁷²⁾ 따라서 신례교의 폐교 날짜는 신례1리가 소개된 1948년 12월 11일 이후일 것이다. 그러므로 「예촌지」가 폐교 일자로 말한 1948년 11월 15일은 그해 음력 11월 15일, 양력으로 12월 15일이라고 정정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제주교육사(1979)의 기록처럼 마을 향사인 학교건물이 소실된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 스스로 소개하면서 학교건물을 해체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³⁷³⁾

따라서 신례교 건물의 해체는 마을이 소개되는 1948년 12월 중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신례교가 소실되었다는 기록은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 무릉동초등학교

1947년 4월 1일 무릉북공립국민학교로 인가를 받아 대정읍 무릉2리 향사에서 개교하였으며, 1949년 12월에 4·3으로 부락이 소개되자 학교도 폐교되었다고 제주교육사(1979)는 이 학교의 피해 상황을 기록했다.³⁷⁴⁾ 그리고 이 학교에서 펴낸 「향토사지」는 1948년 10월 마을 주민이 소개되면서 1948년 12월 1일 자연폐교된 것으로 기록했다.³⁷⁵⁾ 제주교육사(1999)는 1949년 3월에 마을이 소개되자 동년 3월 10일 무릉교로 통폐합된 것으로 기술했다.³⁷⁶⁾

제민일보의 취재 결과 무릉2리에 대한 소개령은 1948년 12월 8일에 내려졌고,

369) 남원읍 신례1리(1988), 앞의 책, pp.132~133. 그리고 신례교가 1948년 11월 15일 폐교되었다는 기록이 또 있다(신례국민학교, 「예촌」, (제주:성심인쇄사), 1987, p.52.).

370) 남원읍 신례1리(1988), 앞의 책, p.96.

371)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146.

372) 제주도교육위원회(1979), 앞의 책, p.228.

373) 양석조(1920년생, 남원읍 신례1리, 증언날자 2001년 4월 15일)·양정보(1932년생, 남원읍 신례1리, 초등학교장 정년퇴임, 증언날자 2001년 4월 22일)의 증언.

374) 제주도교육위원회(1979), 앞의 책, p.223.

375) 무릉동국민학교, 「향토사지」, (제주:삼성인쇄사), 1987, p.58.

376)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532.

토벌대는 주민들을 소개시킨 후 마을을 모두 불태웠다고 했다.³⁷⁷⁾

따라서 무릉동교는 무릉2리에 소개령이 내려진 1948년 12월 8일 이후 폐교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학교건물은 중산간 지역의 학교들처럼 불태워진 것이 아니고, “무릉2리 주민들에 의해 해체되어 그 자재로 무릉교에 가교사를 지어 교육에 임하다가, 무릉2리 복구 후 다시 그 자재로 무릉2리 평지동에 있는 지금의 경로당을 지었다.” 라는 증언이 있었다.³⁷⁸⁾

(32) 남읍초등학교

애월읍 남읍교에서 펴낸 「남읍학구향토지」는 이 학교의 피해 상황을 1948년 12월 17일 무장대의 만행으로 교사가 전소되어 1949년 2월 28일 폐교되었으며, 피해 규모는 4개 교실, 교장 사택이라고 기록했다.³⁷⁹⁾ 그리고 1948년 11월 14일 밤 중에 남읍리에 소개령이 내리자, 마을 사람들 스스로 집을 허물어 마을 전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해안마을로 분산했고, 12월에 학교가 소진되었다는 기록도 있었다.³⁸⁰⁾ 그런데 무장대가 학교를 방화했다는 기록은 「남읍학구향토지」에는 있으나, 「애월읍지」나 「증보남읍향사」에는 방화의 주체를 표현하지 않았다.

필자는 대부분의 중산간 마을들이 소개되면서 토벌대에 의해 불태워진 것에 비추어, 남읍교도 소개령 이후 무장대가 아닌 토벌대에 의해 소실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2회에 걸쳐 남읍리에서 증언채록을 했다.

그 결과 남읍리는 다른 마을들보다 경찰관이 많은 곳이어서 마을이 무장대에게 주목을 받게 되자 주민 보호 차원에서 어쩔 수없이 소개령이 12월 13일(음력 11월 13일) 경에 내려졌고, 학교가 소실된 날자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나, 마을이 소개되어 텅 빈 상태에서 무장대가 내려와 학교를 전소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³⁸¹⁾

377)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p.350~351.

378) 이성지(1930년생, 무릉2리 좌기동)의 증언(증언일자 2001년 4월 10일). 이용은 무릉2리에 대한 소개령은 무릉동교의 「향토사지」의 기록과 같이 1948년 10월경에 내려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따라서 무릉 2리에 소개령이 내려진 시기는 정밀한 검증이 필요한 것 같다.

379) 남읍국민학교, 「남읍학구향토지」, (제주:삼화상사), 1987, p.50.

380)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1984), 앞의 책, p.75 ; 애월읍(1997), 앞의 책, p.284.

381) 김순현(1929년생, 애월읍 남읍리, 증언일자 2001년 4월 22일)·진봉원(1924년생, 애월

따라서 이 증언을 통해 남읍교는 중산간학교이면서도 무장대에 의해 1948년 12월 경 소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증보남읍향사」의 남읍리에 소개령이 1948년 11월에 내렸다는 기록은 1948년 음력 11월의 오기인 것 같다.

(33) 청수초등학교

청수리에서는 산양리 연화동과 합의해 1947년 3월 수룡동에 청수국민학교를 설립했다. 4·3으로 신축 중이던 청수교는 교사를 해체하여 자재는 고산리로 소개했다가 1949년 사태가 호전되자 청수리 중심지에 재건립되었다. 후에 저지교와 통합하여 1950년 5월 25일 저청국민학교로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다.³⁸²⁾

청수교의 소개 날자는 “1948년 12월 4일 청수, 산양리 주민들이 고산으로 소개해 왔다.”³⁸³⁾라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34) 도두초등학교

1949년 1월 1일 무장대가 제주시 도두교의 3개 교실을 전소시켰다.³⁸⁴⁾

(35) 외도초등학교

이기영은 1949년 4월 1일자 「서울신문」의 “동란의 제주도 현지실정 보고”라는 기고에서 “외도교가 1949년 1월 1일 무장대의 방화로 형태조차 없어졌다.”³⁸⁵⁾라고 했다.

그런데 당시 이 학교는 7개 교실 규모였으며, 전소 날짜를 1948년 1월 4일로 보는 기록³⁸⁶⁾도 있는데, 이 기록의 전소 날짜는 정정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필자가 만난 당시 외도교 교사였던 김희인은 무장대에게 3개 교실만 소실되었다고 증언해 주었다.³⁸⁷⁾

읍 남읍리, 증언날자 2001년 5월 29일)의 증언.

382) 제주도교육위원회(1979), 앞의 책, p.218.

383) 북제주군 환경면 고산리(2000), 앞의 책, p.356.

384) 오성찬, 「제주의 마을 시리즈」① 도두리, 도서출판 반석, 1985, p.94 ; 도리국민학교, 「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p.87 ; 자유수호협의회(1997), 앞의 책, p.109.

385)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연구원(1989), 앞의 책, p.198.

386) 외도국민학교, 「향토지」, (제주:태한인쇄사), 1987, p.42.

387) 김희인(1920년생, 제주시 용담2동, 당시 외도교 교사, 초등학교장 정년퇴임)의 증언(증언 날자 2000년 10월 28일).

(36) 도평초등학교

김봉현은 “1948년 12월 17일 토벌대가 무장대를 가장해 마을사람들을 도평교 운동장에 모아 놓고 폭력을 행사하고 주민들을 처형한 후 마을을 불태웠다.”라고 기록했다.³⁸⁸⁾

그런데 최근 토벌대의 제주시 도평마을 방화는 1949년 1월 3일(음력으로 1948년 12월 5일) 경에 이루어졌음을 밝혀주는 증언들이 나왔다.³⁸⁹⁾ 도평교도 이날 토벌대에 의해 전소되었다. 도평분교장 연혁에 1948년 1월 2일 교사 전소되었다는 기록³⁹⁰⁾은 1949년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37) 오라초등학교

제주시 오라교에서 펴낸 「향토지」는 방화의 주체를 표현하지 않고, 단순히 1948년 12월 중순 목조 5개 교실의 교사가 전소되어, 폐교된 것으로 피해 상황을 기록했다.³⁹¹⁾

오재옥은 1949년 1월 2, 3일경 토벌대가 연미마을 불지르며, 이 마을에 있던 오라교도 함께 전소시켰다고 증언해 주었다.³⁹²⁾

오라교가 전소된 날자는 기억하지 못 하지만 토벌대에 의해 소실되었다는 사실은 고봉식, 고찬중, 고병혁 등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³⁹³⁾

(38) 삼양초등학교

1949년 1월 3일 무장대가 내습하여 학교를 전소시켰다.³⁹⁴⁾ 이때 교장 송문평과 학도대 3인 등 부락민 약 40명이 희생되었고, 7개 교실 및 부속건물 일체가 전소되었다.³⁹⁵⁾

388) 노민영(1988), 앞의 책, p.232.

389) 오성찬(1989), 앞의 책, p.37 ;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1997), 앞의 책, p.657.

390) 외도국민학교(1987), 앞의 책, p.64 ; 제주도교육위원회(1979), 앞의 책, p.212.

391) 오라국민학교, 「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p.27.

392) 오재옥(1927년생, 제주시 오라2동)의 증언(증언날자 2001년 4월 22일).

393) 고봉식(1923년생, 제주시 오라2동, 당시 오현중교사, 제주도교육감 역임, 증언 날자 2001년 4월 17일)·고찬중(1931년생, 제주시 오라2동 연미마을, 증언날자 2001년 4월 28일)·고병혁(1934년생, 제주시 오라3동, 증언날자 2001년 4월 28일)의 증언.

394) 제주도교육위원회(1987), 앞의 책(Ⅱ), p.31.

395) 삼양국민학교, 「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p.21, p.54.

(39) 하례초등학교

1949년 1월 3일 하례리를 습격한 무장대는 보초서던 주민을 살해하고 남원읍 하례교를 전소시켰다.³⁹⁶⁾ 이때 피해 규모는 4개 교실 및 관사 등이었다.³⁹⁷⁾ 이날 무장대는 마을향사도 방화했고, 학교에는 휘발유를 뿌려 횃불로 교실마다 불을 질렀다고 한다.³⁹⁸⁾

(40) 하귀초등학교

1949년 1월 8일 무장대의 습격으로 애월읍 하귀교가 전소되었다.³⁹⁹⁾ 당시 하귀교 교사였던 강재윤은 교무실을 포함하여 7개 교실이 있는 본관 건물과 관사가 전소되었다고 필자에게 증언해 주었다.⁴⁰⁰⁾

(41) 화북초등학교

약 90%정도 완공단계에 있던 화북교를 무장대가 전소시킨 것은 1949년 1월 11일이었다.⁴⁰¹⁾ 이날 습격으로 건물은 물론 학적부마저 소실되었다.⁴⁰²⁾ 이때 전소 피해는 9개 교실과 1회부터 18회 이전의 학적부 등이었다.⁴⁰³⁾

(42) 성읍초등학교

1949년 1월 13일 무장대가 습격하여 주민들을 살해하고 가옥에 불을 지르면서 표선면 성읍교를 전소시켰다.⁴⁰⁴⁾

(43) 신촌초등학교

1949년 1월 19일 무장대의 습격으로 조천읍 신촌교가 전소되었고, 이때 피해 규모는 10개 교실 및 학교비품 일체였다.⁴⁰⁵⁾

396)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152.

397) 하례국민학교, 「향토지」, (제주:남도인쇄사), 1987, p.64.

398) 하례마을(1999), 앞의 책, pp.124~125.

399) 애월읍(1997), 앞의 책, p.705 ;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283.

400) 강재윤(1920년생, 애월읍 하귀리, 당시 하귀교 교사, 초등학교장 정년퇴임)의 증언(증언일자 2000년 8월 26일).

401) 오성찬, 「제주의 마을 시리즈」⑨ 화북리, 도서출판 반석, 1989, p.60 ; 화북동운영위원회(1991), 앞의 책, p.144 ; 제주4·3 제50주년 학술·문화 사업추진위원회(1998), 앞의 책, p.180. 그런데 1948년 10월 13일에 전소된 것으로 보는 기록도 있다(노민영(1988), 앞의 책, p.213.).

402) 화북동운영위원회(1991), 앞의 책, p.121.

403) 화북국민학교, 「화북동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pp.25~26.

404)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p.87~88 ; 자유수호협의회(1997), 앞의 책, p.17.

(44) 어도초등학교

1949년 1월 15일 무장대가 구물동을 소각시키면서 애월읍 어도교를 전소시켰다.⁴⁰⁶⁾ 또한 무장대에게 1949년 1월 26일에 전소되었다는 기록도 있다.⁴⁰⁷⁾ 그리고 1948년 12월 3일 전소되어 폐교⁴⁰⁸⁾되었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는 정정되어야 할 것 같다.

(45) 북촌초등학교

조천읍 북촌교의 4·3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1949년 2월 10일 전소되어 폐교”⁴⁰⁹⁾, 혹은 “1949년 2월 20일 전소되어 폐교”⁴¹⁰⁾라고 기록한 문헌들이 있다. 그리고 피해 유형을 단순히 “1949년 2월 10일 폐교”⁴¹¹⁾되었다라고 기록한 문헌도 있다.

제주4·3연구소는 증언채록 과정에서 북촌리 대학살 이후 군인들이 민보단을 동원하여 북촌교 건물을 조금씩 뜯어다가 화목(火木)으로 쓰고 그 중 쓸만한 기둥 같은 것은 함덕 대한청년단 사무실과 어느 개인집을 짓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⁴¹²⁾

북촌마을에서 마을주민 약 4백명이 집단학살당한 북촌 대학살은 1949년 1월 17일과 1월 18일 이틀 사이에 벌어졌다.⁴¹³⁾ 그리고 해안마을이었지만 북촌리는 1월 19일에 소개를 당하게 되었다.⁴¹⁴⁾

따라서 북촌교 건물이 토벌대에 의해 뜯기게 된 것도 1949년 1월 말경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6) 더덕초등학교

1949년 2월 5일 애월읍 더덕교가 4·3으로 전소되었다.⁴¹⁵⁾ 방화의 주체가

405) 신촌국민학교, 「신촌향토지」, (제주:삼화상사), 1987, p.36 ;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528.

406) 제주4·3 연구소(1990), 앞의 책(4·3 장정 3), pp.60~61.

407) 어도국민학교, 「어도향토지」, (제주:삼화상사), 1987, p.23.

408) 제주도교육위원회(1979), 앞의 책, p.215.

409) 김민규(1991), 앞의 책, pp.319~320.

410) 제주도교육위원회(1979), 앞의 책, p.219 ;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279.

411) 북촌국민학교, 「북촌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p.30.

412) 제주4·3 연구소(1990), 앞의 책(4·3 장정 3), p.39.

413) 제민일보 4·3취재반(1995), 앞의 책(③), p.96.

414) 제주4·3 연구소(1990), 앞의 책(4·3 장정 2), p.39.

415) 더덕국민학교, 「더덕학구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p.51 ; 애월읍(1997), 앞의 책, p.725 ; 제주도교육위원회(1979), 앞의 책, p.214 ;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528.

기록되지 않은 더럭교의 피해 상황을 하가마을에서 증언채록을 한 결과 무장대에 의해 소실되었으며, 당시 학교는 2개 교실 규모라고 했다.⁴¹⁶⁾

(47) 예래초등학교

4·3의 혼란 속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신축운동이 활발했는데 대표적인 곳이 예래교였다. 순 마을 자력으로 1948년 12월에 5교실을 완성시켰다. 불행히도 1949년 2월 12일 무장대에 의해 전소되었다.⁴¹⁷⁾

(48) 의귀초등학교

남원읍 의귀교의 4·3에서의 피해를 다룬 기록들은 소실된 사실은 전하지 않고 단지 폐교된 기록만을 남겼다. 그런데 폐교일자를 놓고 “1948년 12월 15일”⁴¹⁸⁾과 “1949년 3월 10일”⁴¹⁹⁾의 두 견해가 있었다.

필자는 여느 중산간 마을의 학교들처럼 토벌대에 의해 소실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증언자들을 만났다. 그런데 의귀교는 소실된 것이 아니라 민보단에 의해 건물이 해체되어 전소된 남원교의 가교사를 짓는데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⁴²⁰⁾

의귀리에 대한 초토화작전은 다른 지역보다 약 10일 가량 앞선 1948년 11월 7일에 있었고, 이 토벌로 의귀리는 300호 중 약 20여 호만 남고 모두 불태워졌다.⁴²¹⁾ 이날부터 의귀리 사람들은 노약자들까지도 피난에 나서 주변 산야에서 숨어 지냈다.⁴²²⁾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의귀교는 11월 7일을 전후하여 교육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48년 12월 26일부터 의귀교에 2연대가 주둔했다.⁴²³⁾ 이후부터 의귀교

416) 임인봉(1932년생, 애월읍 하가리, 증언일자 2001년 4월 22일)·장제춘(1939년생, 당시 하가교 학생, 제주중학교교사 정년퇴임, 제주시 삼도2동, 증언일자 2001년 5월 29일)·장운형(1922년생, 애월읍 하가리, 증언일자 2001년 5월 29일)의 증언.

417) 김종근, 「예래동지」, 1988, p.23. 그런데 2월 11일에 전소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238.).

418) 의귀국민학교, 「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p.79.

419)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288.

420) 김윤조(1926년생, 남원읍 의귀리, 당시 위미·남원교 교사, 초등학교장 정년퇴임, 증언일자 2001년 4월 1일)·현입영(일명 현영립, 1915년생, 제주시 연동, 증언일자 2001년 4월 5일)의 증언.

421) 제민일보 4·3취재반(1997), 앞의 책(④), pp.293~294 ;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137.

422)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p.137~138.

423)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139.

는 토벌대가 주변 산야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감금하는 수용소로 변했다. 1949년 1월 13일 경 의귀리 주둔 2연대는 남원읍 태흥1구로 이동했다.⁴²⁴⁾

따라서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의귀교 건물의 해체는 2연대가 태흥리로 이주한 이후 이루어졌을 것이다. 현입영은 그 시기를 1949년 2월 경이라고 증언했다.⁴²⁵⁾

(49) 하도초등학교

1949년 9월 29일 무장대에 의해 7개 교실 중 6개 교실이 소실되었다.⁴²⁶⁾ 제주교육사(1999)에도 1949년 9월 29일 교사 일부가 소실된 것으로 기록되었다.⁴²⁷⁾

(50) 난산초등학교

1951년 4월 8일 무장대의 습격으로 성산읍 난산교가 전소되었다.⁴²⁸⁾ 피해 정도는 4개 교실 전소였다.⁴²⁹⁾ 그런데 1951년 무렵은 무장대의 세력이 아주 약했던 시기이므로 필자는 무장대에 의한 피해라기보다는 실화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김두황은 무장대의 습격이 1951년에 있었고, 이 습격으로 학교가 소실되었다고 전해 주었다.⁴³⁰⁾

그리고 제주교육사(1999)는 표선면의 홍산초등학교가 4·3으로 교사가 소실되었다가 복구된 것으로 기술했다.⁴³¹⁾ 그런데 홍산교의 경우는 방화가 아닌 실화로 밝혀졌다.⁴³²⁾ 따라서 홍산교에 대한 기록도 정정이 필요하다.

이밖에 4·3으로 전소된 개량서당들도 많다. 제주시 봉개동의 동보서숙⁴³³⁾, 제주시 해안동의 신수사숙⁴³⁴⁾, 제주시 오동동의 무명서당⁴³⁵⁾ 등이 4·3으로 전소된 개량서당이라고 할 수 있다.

424)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116.

425) 현입영(일명 현영립, 1915년생, 제주시 연동 거주, 의귀교 해체될 때 현장에 있었다 함)의 증언(증언 날짜 2001년 4월 5일).

426) 하도국민학교, 「하도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p.37.

427)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283.

428)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 「난산리지」, (제주:창원인쇄사), 1999, p.98. 그런데 1951년 4월 5일을 전소 일자로 잡고 있는 기록도 있다(난산국민학교, 「난산리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p.24.).

429) 난산국민학교(1987), 앞의 책, p.24.

430) 김두황(1927년생, 성산읍 난산리)의 증언(증언날자 2001년 3월 9일).

431)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535.

432)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114.

433) 제주4·3연구소(1997), 앞의 책(4·3과 역사 28호), p.25.

434)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525. 현재 노형교해안분교장의 전신임.

435)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의 서당교육」, (제주:시민당인쇄사), 1994, p.127.

전소여부는 불확실하지만 4·3으로 폐설된 개량서당들도 있다. 제주시 아라동의 아촌숙 서당⁴³⁶), 한림읍 상명리의 상명한문서당⁴³⁷), 애월읍 장전리의 무명서당⁴³⁸), 한경면 저지리의 대왓목서당⁴³⁹), 한경면 청수리의 무명서당⁴⁴⁰), 성산읍 고성리의 고성서당⁴⁴¹), 남원읍 위미리의 앞집서당⁴⁴²) 등이 대표적이다.

2) 4·3으로 인한 교육시설의 피해

필자가 각종 문헌 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파악한 4·3에서 피해를 입은 교육 시설은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5개교였다.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조사 기간과 노력 부족으로 더 많은 문헌을 조사하지도 못 했고, 더 많은 증언자를 만나 뵈지 못 해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들이 더 있었는데도 찾아내지 못 했을지도 모른다.

교육시설의 피해는 4·3의 진상 규명과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계속 조사되고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필자는 단지 이 연구를 처음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무장대가 불지른 학교는 전소 날자와 방화의 주체가 거의 모든 문헌에 비교적 기록이 잘 되어 있었다. 그러나 토벌대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방화의 주체도, 전소일자도 대부분 불명확했다. 게다가 일부 학교는 지금까지도 방화의 주체를 무장대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⁴⁴³

송당교의 경우이나 “군작전 수행으로 전소”란 표현을 썼을 뿐 제주교육사(1979, 1999)와 대부분의 마을 향토지 그리고 각 초등학교에서 1987년경에 발행한 향토지 등에는 토벌대에 의한 전소라는 표현을 숨기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표현을 못 했을지도 모른다.

4·3을 언급하는 것이 오랫동안 금기시되었고, 국가권력기관이 행한 모든 일들

436) 제주도교육연구원(1994), 앞의 책, p.123.
437) 제주도교육연구원(1994), 앞의 책, p.176.
438) 제주도교육연구원(1994), 앞의 책, p.195.
439) 제주도교육연구원(1994), 앞의 책, p.242.
440) 제주도교육연구원(1994), 앞의 책, p.249.
441) 제주도교육연구원(1994), 앞의 책, p.258.
442) 제주도교육연구원(1994), 앞의 책, p.287.
443) 제주시 아라교, 애월읍 장전교.

이 정당시되었던 상황에서, 토벌대가 불질렀다는 표현 자체가 국가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슬픈 모습을 교육현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토벌대에 희생된 수많은 4·3의 영령을 가족으로 모신 제주인들이 연좌죄에 묶여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제주교육계도 병어리 냉가슴 앓듯 어찌할 수 없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 왔을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학교 연혁에 무장대의 학교방화가 비교적 자세히 기록된 것처럼, 토벌대의 방화 내용이 기재될 수 있어야 하겠다. 연혁이 바르게 기록되어야 교육적 차원에서 4·3의 진상 규명에 일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4·3 이전에 학교가 설립되어 교육활동을 펼치다가, 학교가 전소·폐교되어 후에 복구되었으나, 4·3 이전의 상황을 학교 연혁에 올리지 않고, 복구 이후의 사실만을 연혁으로 다룬 학교도 있었다.⁴⁴⁴⁾ 또한 4·3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⁴⁴⁵⁾

필자가 조사한 4·3으로 인한 교육시설의 피해 상황을 종합하면 <표-7>과 같다.

<표-7>

4·3에서의 교육시설의 피해 종합

구분 학교별·군별		피해 상황	
		피해 학교 수	피해 정도
초등학교	제주시	10	전소 9, 부분전소 1(외도교)
	북제주군	20	전소 16, 부분전소 1(하도교), 해체 3(조수,북촌,청수교)
	서귀포시	1	전소 1
	남제주군	14	전소 10, 부분전소 1(수산교) 해체 3(의귀교, 무릉농교, 신례교)
	소계	45	소실 39(전소 36, 부분전소 3), 해체 6
중학교	서귀포시	2	전소 2(중문중학원, 서귀중학교)
	북제주군	2	폐교 2(조천중학원, 단국중학교)
	남제주군	1	전소 1(남원고등공민학교)
	소계	5	소실 3(전소 3), 폐교 2
총 계		50	소실 42(전소 39, 부분전소 3), 해체 6, 폐교 2

* 각종 문헌과 증언을 토대로 필자 작성

444) 제주시 영평교.

445) 성산읍 수산교.

<표-7>을 통해 소실(전소, 부분전소), 건물 해체, 폐교(446) 등의 형태로 교육시설의 피해 양상이 아주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폐교되거나 건물이 해체되었던 교육시설만을 종합하면 다음 <표-8>과 같다.

<표-8> 4·3으로 폐교되거나 해체된 학교

시기	피 해 유 형		
	폐 교	해 체	
1948년 5월	조천중학원		
1948년 9월	단국중학교		
1948년 11월		조수교	
1948년 12월		신례교	무룡동교 청수교
1949년 1월		북촌교	
1949년 2월		의귀교	
계	2	6	

* 각종 문헌과 증언을 토대로 필자 작성

시기별로 무장대와 토벌대 어느 쪽에 의해 초·중등 교육시설이 소실되었는지를 나타낸 것이 다음 <표-9>, <표-10>이다.

<표-9> 4·3에서 소실된 초등학교

피해 시기	피 해 학 교		계
	무장대	토벌대	
1948년 5월	수산교(부), 저지교(전)		2
1948년 9월	평대교(전)		1
1948년 11월	태흥교(전) 위미교(전) 남원교(전)	광령교(전) 노형교(전) 봉개교(전) 송당교(전) 선흥교(전) 대흥교(전) 가시교(전) 구억교(전) 영평교(전) 서광교(전) 동광교(전) 금악교(전) 아라교(전) 장전교(전)	17

446) 중산간 지역 대부분의 학교는 소개령에 의해 전소된 후 폐교의 과정을 거치나 후일 대부분 복구된다. 필자가 말하는 폐교란 지금까지도 복구되지 않은 학교에 해당하는 용어로 한정한다. 그런데 애월읍 고성 초등학교는 전소·폐교되어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았으나, 여기에서는 전소된 것 한가지로 통계 처리했음을 밝힌다.

피해 시기	피 해 학 교		계
	무장대	토벌대	
1948년 12월	세화교(전) 구엄교(전) 남읍교(전)	고성교(전)	4
1949년 1월	도두교(전) 외도교(부) 삼양교(전) 하례교(전) 하귀교(전) 화북교(전) 성읍교(전) 신촌교(전) 어도교(전)	도평교(전) 오라교(전)	11
1949년 2월	더럭교(전) 예래교(전)		2
1949년 9월	하도교(부)		1
1951년 4월	난산교(전)		1
계	22	17	39

* 각종 문헌과 증언을 토대로 필자 작성(전 : 전소, 부 : 부분 전소)

<표-10> 4·3에서 소실된 중학교

피해 시기	피 해 학 교		계
	무장대	토벌대	
1948년 11월	중문중학원(전) 서귀중학교(전) 남원고등공민학교(전)		3
계	3	0	3

* 각종 문헌과 증언을 토대로 필자 작성(전 : 전소)

<표-9>, <표-10>을 통해 4·3에서 소실된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39개교, 중학교 3개교 등 모두 42개교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 4·3 이전 미군정기에 교육을 수행했던 95개 초등학교의 41%인 39개교, 중등학교의 경우 <표-5>의 16개 중학교의 19%인 3개교가 4·3으로 소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건물이 해체된 <표-8>의 6개교 역시 4·3의 피해이므로 전체 95개교의 47%인 45개교, 중등학교는 <표-8>의 폐교된 조천중학원과 단국중학교를 포함한 전체 중학교 16개교의 31%인 5개교가 4·3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실된 42개교의 피해만을 다루었을 때 <표-9>, <표-10>에서처럼 1948년 11월에서 1949년 1월 사이 불과 3개월 동안에 83%인 35개교가 무장대와 토벌대 양쪽

에 의해 집중적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표-9>, <표-10>에서 소실된 42개교의 피해는 토벌대에 의한 것이 40%인 17개교, 무장대에 의한 것은 60%인 25개교로 나타났다.

그런데 건물이 해체된 6개교는 그 교육시설이 강제로 뜯겼거나, 혹은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해체했거나 이는 토벌작전으로 말미암은 학교시설의 손실인 것이며, 폐교된 조천중학원과 단국중학교도 미군정이나 정부 당국에 의해서 그 교육적 중단이 나타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므로 토벌진영에 의한 교육시설의 피해는 소실된 17개교, 해체된 6개교, 폐교된 2개교를 합한 25개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의 교육시설은 무장대에 의해 25개교가 소실되고, 토벌대에 의해 25개교가 소실·폐교·건물 해체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은 것이 된다.

그런 까닭에 제주교육의 기반은 무장대와 토벌대 양쪽에 의해 초토화되었고, 양쪽 모두 제주교육에 미친 교육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948년 10월 20일에서 12월 31일까지는 토벌대의 무제한적인 초토화작전의 전개로 도내 전역에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시기였다. 경비대는 해안선에서 5km 이상의 중산간지대를 '적성지역'으로 간주한다고 포고령을 내리고 주민 소개령과 동시에 마을에 대한 방화와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다. 특히 12월 연대 교체를 앞둔 9연대는 '좋은 전과와 기록을 올리려는 욕망'에 의해 해안마을로 소개당한 주민들마저 대거 학살했다. 토벌대에 쫓긴 무장대는 아지트를 산중 깊숙히 옮기는 한편 때때로 해안마을에 보복 기습전을 시도했다.⁴⁴⁷⁾

이 시기에 토벌대에 의해 소실된 학교는 광령교·노형교·봉개교·송당교·선흘교·대흘교·가시교·구억교·영평교·서광교·동광교·금악교·아라교·장전교·고성교 등 15개교로 모두 중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학교는 소위 '군작전 수행'을 내건 초토화작전의 피해 학교들이었다.

이 시기에 무장대는 해변마을을 습격하여 중문중학원, 서귀중학교, 남원고등공민학교, 태흥교, 위미교, 남원교, 세화교, 구업교와 중산간 지역의 남읍교를 전소시켰다.

1949년 1월에는 9연대와 교체된 2연대가 도착한 후 무장대의 공세가 한때 활기를 띠면서 해안지역의 도두교, 외도교, 삼양교, 하례교, 하귀교, 화북교, 신촌교와

447)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앞의 책(①), pp.10~11.

중산간 지역의 성읍교, 어도교 등 모두 9개 학교가 무장대에게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토벌대에 의해 도평교와 오라교가 전소되었다.

소실, 폐교, 건물 해체 등 피해를 입은 50개 교육시설에 대한 지역별 피해 상황을 현재의 행정구역별로 나타내면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지역별 교육시설 피해 현황

	무장대	토벌대	계		
			읍·면	시·군	
제주시	도두교(전) 외도교(부) 삼양교(전) 화북교(전)	봉개교(전) 노형교(전) 영평교(전) 아라교(전) 도평교(전) 오라교(전)	10	10	
북 제 주 군	구좌읍 평대교(전) 세화교(전) 하도교(부)	송당교(전)	4	22	
	조천읍 신촌교(전)	대흘교(전) 선흘교(전) 북촌교(해) 조천중학원(폐)	5		
	애월읍 구엄교(전) 남읍교(전) 하귀교(전) 어도교(전) 더럭교(전)	광령교(전) 장전교(전) 고성교(전) 단국중학교(폐)	9		
	한림읍	금악교(전)	1		
	한경면	저지교(전)	조수교(해) 청수교(해)		3
서귀포시	중문중(전) 서귀중(전) 예래교(전)		3	3	
남 제 주 군	대정읍	구억교(전) 무릉동(해)	2	15	
	안덕면	서광교(전) 동광교(전)	2		
	남원읍 태흥교(전) 위미교(전) 남원교(전) 하례교(전) 남원고등공민학교(전)	신례교(해) 의귀교(해)	7		
	표선면	성읍교(전)	가시교(전)		2
	성산읍	수산교(부) 난산교(전)			2
계	25	25	50	50	

* 각종 문헌과 증언을 토대로 필자 작성(전 : 전소, 부 : 부분전소, 해 : 건물해체, 폐 : 폐교)

<표-11>을 통해 4·3에서 도내 전역에 걸쳐 교육시설이 피해를 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시·군별로는 북제주군 22개교, 읍·면별로는 애월읍 9개교, 남원읍 7개교로 그 피해가 극심했다고 볼 수 있다.

3. 교육시설의 피해 이유

광복 이후 학교설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각처에 세워진 교육기관은 마을주민 모두, 좌익도 우익도 합심해서 자금과 노동력을 제공하여 설립한 마을공동체의 상징이었다.

제주인들의 온갖 열과 성이 담긴 이러한 교육시설이 무장대와 토벌대 쌍방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까닭은 무엇일까?

토벌대가 학교를 초토화시킨 이유를 군작전수행을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무장대의 경우는 그들의 잔혹성으로 설명되어져 왔다.

과연 광복 이후 '학교의 의미'란 무엇이었을까? 학교를 불태운 무장대도 입산 전에는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설립에 힘 모았던 마을주민의 일원이었다. 학교설립의 그 눈물나는 과정을 모를리 없는 이들이 학교를 불태운 이유는 무엇일까?

김봉현은 다음과 같이 무장대 쪽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불공대천의 원수들은 제주도 인민들을 진멸하기 위해 도내의 각 학교, 공회당, 향사 등 일체의 공적 건물을 점령해 토벌작전에 사용했을 뿐더러 유치장과 살해 형장으로 이용했다. 증설된 유치장과 영창에는 불쌍한 농어민 대중들이 감금으로써 차고 넘쳤고, 사설 '감금장과 지하실'에는 구슬픈 신음성이 처절했다. 맷소리, 총소리, 욕소리, 꾸짖는 소리, 비명소리는 실로 악마의 수라장이란 문구 그대로인 참상이었다.⁴⁴⁸⁾

토벌대는 학생들의 배움의 터인 130개의 학교를 무력으로 강점하여 감옥과 도살장으로 전용했고, 교직원·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무수히 학살했다.⁴⁴⁹⁾

448) 아라리연구원(1988), 앞의 책(Ⅱ), p.181.

1948년 10월 28일 인민의 무장대는 남원면 일대에 진출해 남원, 위미 등지의 토벌대 지휘소였던 지서, 면사무소, 학교들에 과감한 결사 항전을 감행하고 적들의 지휘계통을 마비 혼란케 하였으며, 그 점령 공사를 파괴 소각함으로써 피검된 근로 대중을 구출하였다.⁴⁵⁰⁾

과연 학교시설이 토벌대의 지휘소와 주둔지가 되었고, 도민을 감금하는 수용소와 감옥이 되었으며, 구타와 폭력이 난무했고, 심지어 학살장소가 되어 피울음이 가득했다는 이 표현은 맞는 것일까?

그래서 감금된 도민을 구출하고, 적의 지휘 계통을 마비시키기 위해 학교를 습격하고 소각했다는 이 표현이 맞는 말일까?

이 문제에 대한 검증은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1차 사료가 전무한 관계로 증언 채록집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3에서 도내 교육시설들은 군작전으로 차출되어 군대가 주둔하면서 불행히도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 못 했다. 특히 계엄령의 발동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제한’⁴⁵¹⁾이 가해져, 학교시설이 군대에 점유되는 현상은 더욱 심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함덕초등학교로 다음과 같은 증언이 있다.

밤낮으로 격전이 치열하여 함덕교는 학교로서의 교육기능은 마비되고, 어린 아이들도 겁에 질려 학교에 공부하러 올 염두를 낼 수 없었다. 이것은 비단 함덕의 경우만이 아니고 제주읍내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도적으로 상황이 비슷했다. 교실은 국방경비대 2연대 3대대 약 300여 명 군인들의 숙소로 사용되었고, 이들이 상주하면서 학교는 공비 토벌의 본부인 동시에 생포되어 검속되는 사람들의 임시 수용소로 활용되었다.⁴⁵²⁾

함덕교는 1948년 10월 4일 9연대가 주둔한 이래 1949년 6월 15일에야 군병력이 완전 철수했다.⁴⁵³⁾ 거의 8개월을 함덕교는 군대에 점유당해, 5~6개월간 수업이 중

449) 아라리연구원(1988), 앞의 책(Ⅱ), p.97.

450) 아라리연구원(1988), 앞의 책(Ⅱ), p.175.

451) 「조선일보」, 1948년 11월 30일자 :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연구원(1989), 앞의 책, p.178에서 인용.

452) 함덕초등학교총동창회(1999), 앞의 책, p.119.

단되어야 했다.⁴⁵⁴⁾

한림초등학교에도 1948년 10월 하순 경부터 9연대 6중대가 주둔했다.⁴⁵⁵⁾ 한림면 관내 주민들이 대거 끌려와 고문을 받았고, 토벌대는 무장대 지원활동을 자백하라고 강요하며 주로 전기고문을 가했다는 증언이 있다.⁴⁵⁶⁾

구좌중앙초등학교에도 1948년 12월 경부터 서청 특별중대가 주둔했다. 그 결과 월정리는 인근마을에서 끌려온 사람들의 학살터로 변했고, 군 주둔지인 학교에 끌려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을 정도였다.⁴⁵⁷⁾

이러한 상황은 제주농업중학교도 마찬가지였다. 11연대 본부로 사용된 제주농중에는 두 곳의 운동장이 있었다. 11연대는 북쪽 운동장을 연병장으로, 남쪽 운동장을 포로수용소로 사용했다. 포로수용소로 사용된 남쪽 운동장에는 수십 개의 천막이 쳐져 천막마다 잡혀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⁴⁵⁸⁾

이밖에 토벌대가 주둔했던 학교로 외도교⁴⁵⁹⁾, 서귀교⁴⁶⁰⁾, 선홍교⁴⁶¹⁾, 송당교⁴⁶²⁾, 성산교⁴⁶³⁾, 의귀교⁴⁶⁴⁾, 중문교⁴⁶⁵⁾, 안덕교⁴⁶⁶⁾, 애월교⁴⁶⁷⁾, 효돈교⁴⁶⁸⁾, 표선교⁴⁶⁹⁾, 영평

453) 함덕초등학교총동창회(1999), 앞의 책, p.137.

454) 함덕초등학교총동창회(1999), 앞의 책, p.439.

45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권,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7, p.444.

456) 제민일보 4·3취재반(1997), 앞의 책(④), p.314.

457)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42.

458) 제민일보 4·3취재반(1995), 앞의 책(③), p.225.

459) 제민일보 4·3취재반(1997), 앞의 책(④), p.86.

460)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179. 그리고 서귀교에서는 4·3 기간에 군인들이 주둔하다 철수하면서 버리고 간 포탄이 당시 관공교실 동쪽 중간 현관쪽에서 폭발하여 다치거나 사망한 아동들이 있었다 한다(강석규, 「황혼에 이른 세월」, (제주:대영인쇄사), 1994, p.41).

461) 제민일보 4·3취재반(1997), 앞의 책(④), p.321.

462)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23.

463)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62.

464)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136.

465)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227.

466)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294.

467) 애월읍(1997), 앞의 책, p.169.

468) 아라리연구원(1988), 앞의 책(Ⅰ), p.298.

469) 표선초등학교총동문회, 「표선교90년사」, (제주:대동인쇄사), 1999, pp.161~162. 표선교에 주둔했던 해병대 모슬포부대 제2대대 일부 병력(40여 명 추정)이 주둔했다 철수하면서 버리고 간 로켓트 포탄(추정) 1발을 어린이들이 장난하다 1950년 초여름에 폭발, 20여 명이 사망한 끔찍한 사고가 표선교에서 있었다 한다(표선초등학교총동문회(1999), 앞의 책, p.162.).

교470)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학교 교정은 때로 학살터가 되었다. 서호교471), 삼양교472), 성읍교473), 도평교474), 어도교475), 화북교476), 심지어 섬 학교인 가파교477)에서까지 교정에서 학살이 자행되었다.

1948년 11월 6일 서호교에 모였다가 눈앞에서 아버지가 희생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던 다음과 같은 증언이 있다.

토벌대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와 같이 학교로 갔어요. 약 50여 명의 주민이 모였는데 장교인 듯한 사람이 연설을 했어요. 연설이 끝나자 몇몇 군인들이 주민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너 나와 너 나와'하며 멱살을 잡고 앞으로 끌어 냈어요. 닥치는 대로 젊은 남자들을 끌어낸 것이지요. 그 중에 아버지도 끼였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가라 했지만 나처럼 가족이 끌려 나간 열댓명의 주민들은 걱정이 되어서 돌아가지 않고 남았어요. 군인들은 우리들에게 '돌아 앉아' 하더니 불려나간 사람들을 팡팡 쏘았어요.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난 쓰러진 아버지 위에 엎어져 '아이고 아버지!'하고 울부짖었어요. 총을 몇발이나 맞았는지 피가 형편없이 흘렸어요. 결국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난 혼자 어쩔 수 없어서 집안 어른들에게 소식을 알리려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데 날은 저물었지만 불에 타는 집들로 인해 온 천지가 별경했어요.478)

특히 초토화 작전이 전개되는 11월 중순 이후 중산간지역에서 소개되어 내려오거나, 중산간지역에서 토벌을 피해 숨어 지내다 체포된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지역의 학교 등에 집단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들 학교시설에는 입산자 가족 등 사상을 의심받은 수많은 양민들도 감금·수용되어, 온갖 폭압이 난무하는 죽음에 이르는

470) 제주4·3연구소(1989), 앞의 책(이제사 말함수다Ⅱ), p.217.

471)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1997), 앞의 책, p.681, p.751.

472) 제민일보 4·3취재반(1997), 앞의 책(④), p.333.

473)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91.

474) 오성찬(1989), 앞의 책, p.37 ;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1997), 앞의 책, p.657.

475) 제주4·3 연구소(1990), 앞의 책(4·3 장정 3), p.60.

476) 노민영(1988), 앞의 책, p.215 ; 제주4·3연구소(1998), 앞의 책(4·3과 역사 30호), p.51.

477)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328.

478) 오복순(서귀포시 서귀동)의 증언 : 제민일보 4·3취재반(1997), 앞의 책(④), pp.275~276에서 인용.

대기장소로 변해갔다.

무장대 쪽에서 학교시설을 집중적으로 습격한 것은 <표-9>, <표-10>에서처럼 초토화작전이 벌어지는 1948년 11월 이후부터였다. 이 시기에 교육시설에 대한 무장대의 방화가 집중된 것은 토벌대가 학교시설에서 저지른 만행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토벌대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고 폭압에 시달린 양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학교시설을 습격·소각했다는 김봉현의 지적도 어찌면 같은 맥락의 말인 것 같다.

지금까지 무장대 쪽에서 학교를 불지른 이유를 좌익 쪽 시각의 인물인 김봉현의 「제주도 인민들의 무장투쟁사」의 기록을 토대로 분석했다.

물론 김봉현의 지적대로 도내 일부 교육시설이 군의 지휘본부, 양민 수용소 등으로 활용되어, 그 안에서 인간으로서 차마할 수 없는 술한 만행들이 자행된 것은 사실이었다. 이런 사실들이 무장대에게 학교 방화의 한 요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문중학원, 예래교 등 군의 지휘소도, 수용소도 아니었던 영세 학교들까지 무차별 소각되었다. 따라서 김봉현의 지적은 학교방화의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뿐이지, 그 자체로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무장대 쪽에서 4·3에서 마을 공동체의 상징인 학교시설을 전소시킨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계속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토벌진영에서 마을공동체의 열과 성으로 설립된 학교시설을 초토화작전이 전개되는 11월 중순 이후, 마을 소개와 동시에 '군작전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집중적으로 파괴한 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토벌대는 계엄을 선포하고 1948년 11월 중순 경부터 초토화작전을 펼쳤다. 토벌대는 무장대의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구실 아래 중산간 마을을, 그 시설이 무장대에게 활용될 수 있다는 가정⁴⁷⁹⁾ 아래 마을공동체의 상징인 학교시설까지 불태웠다.

그리고 4·3의 주도 인물에 김달삼·이덕구·김용관 등 교사출신이 많았고, 그 제자들이 선생을 따르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입산해 무장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

479)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219.

런 연유로 토벌 당국은 교사와 학생들을 사상적으로 의심해 토벌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희생이 속출했으며, 그 배움의 장인 교육시설을 파괴하는데도 주저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학교가 소실될 때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토벌대에 의해 많은 양민들이 처형된 경우가 많다. 또한 무장대가 학교를 습격할 때도 많은 마을주민의 죽음이 동반되었다. 세화교가 불타는 날 1948년 12월 3일에 무장대에 의해 약 48명이 살해되고, 40가호 정도의 집과 향사가 불타는 마을 파괴가 이루어졌다.⁴⁸⁰⁾ 남원교와 위미교가 무장대에게 불탄 1948년 11월 28일의 남원리와 위미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무장대는 경찰을 지서에 묶어둔 채 여러 시간 동안 마을을 휩쓸며 남원과 위미리에서 주민 30여 명 씩을 학살했고, 대부분의 집을 불태웠고 식량을 약탈했다.⁴⁸¹⁾

그 동안 4·3의 연구에서 무고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되어, 그들의 신원과 진상 규명도 어렵다 보니, 학교시설이 파괴되어 제주교육의 기반이 초토화된 사실은 무시되어 왔다.

학교파괴는 지금까지 조사한 대로 무장대와 토벌대 양쪽에 의해, 그 숫자도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토벌대와 무장대 양쪽 모두 제주교육의 기반을 송두리째 초토화시킨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4·3에서의 이러한 교육시설의 파괴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 활동을 오랫동안 불가능하게 하였다. 건국초기 재정의 곤란과 끝이어 일어난 6·25전쟁으로 학교 현장의 복구는 요원한 일이 되었다. 복구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학생들은 폐허가 된 교실의 잔해 속에서 교과서도, 변변한 교구도 없이 향학열 하나만으로 학업을 이어 가야 했다.⁴⁸²⁾

480)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p.48~49.

481)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p.122~129.

482)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410.

4. 4·3의 교육적 극복

제주인들은 4·3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교육적 측면에서 4·3을 극복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것은 4·3의 혼란기에도 학교시설의 신축사업을 기어이 이루어 내고, 전소된 학교시설을 복구하고, 또 새로운 학교들을 설립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혼란이 극에 달한 비상시국에 대비하여 학적부를 따로 보관하거나, 학적부를 살려내기 위해 불타는 학교로 뛰어드는 숭고한 사명의식의 형태로 발휘되기도 했다.

그리고 학교를 지키기 위하여 낮에는 수업을 진행하고, 밤에는 교사와 학생이 하나가 되어 학교를 수호한 그 고난한 과정 하나 하나에 4·3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발휘되었다.

4·3의 혼란 속에 학교 신축작업을 완성시킨 곳은 서귀포시 강정마을이 대표적이었다. 1946년 9월 1일 설립인가를 받아 향사에서 개교한 강정초등학교는 건물이 협소하여, 강정교 신축기성회를 중심으로 현재 강정교 부지 위에 새 학교 건축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4·3으로 학교 신축작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군부대의 도움을 얻어, 그해 1948년도에 4개 교실을 완성하여 다음 해부터 신교사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⁴⁸³⁾

학교시설이 전소된 해안마을이나, 중산간마을에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학교시설의 복구작업이었다. 자식들의 배움의 길을 한시라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정성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휘되었다. 그리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학생들의 노력이 크게 작용하여 학교재건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당시 교육시설의 복구에는 도민의 자발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재외 도민과 재일교포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시설의 복구와 증축에 있어서는 유엔한국부흥단(UNKRA)의 지원을 받아야 했다. 1954년 제 1차 부흥 사업에서 27개 교실을 증축할 수 있는 건축자재가 공급된 것을 비롯하여 제주 교육재건을 위하여 세 차례의 UNKRA 원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⁴⁸⁴⁾

483) 강정마을회(1996), 앞의 책, pp.452~453.

이리하여 1949년 2월 전소되었던 삼양교의 복구를 필두로 도두교, 남원교의귀분교장(남원북교), 광령교, 어도교 등 파괴되었던 교육시설에 대한 복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하가교, 장전교, 위미교, 난산교, 덕수교서광분교장, 남읍교, 제주남교오라분교장, 도두교노형분교장, 함덕교북촌분교장, 세화교송당분교장, 화산교가시분교장, 남원교, 구엄교, 신촌교, 한림교금악분교장, 외도교도평분교장 등이 연이어 복구되었다. 그리고 복구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본교로의 복구가 불가능했던 학교들은 분교장으로 복구를 시작하여 나중에는 상당수의 학교가 본교로 승격할 수 있었다.⁴⁸⁵⁾

특히 화북교는 1926년 개교, 1936년 4개 교실 준공, 1946년초 다시 교사 증축공사가 진행되어 약 90%정도 완공단계에서 제주 4·3으로 전소, 1949년 3월 1일 가교사에서 수업 재개, 6·25 발발의 어려움 속에서도 1950년 10월 1일 석조 함석집 신축 등 이 모든 과정에 주민 모두가 동참했다. 따라서 1920년부터 1950년까지 30여 년간을 화북주민들은 화북교와 더불어 오뚜기 모양으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⁴⁸⁶⁾

이 화북교의 역사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닌 마을공동체의 상징이었으며, 학교의 복구는 마을공동체의 회복 과정이었고, 4·3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의 경주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복구에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린 지역도 있었다. 1967년과 1968년에 이르러서야 서광교동광분교장⁴⁸⁷⁾과 영평교⁴⁸⁸⁾가 각각 복구된 것이 그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다.

4·3의 혼란기에 학교의 복구 활동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마을단위로 주민들의 교육 욕구를 수용하여 새로운 학교들이 설립되어 갔다. 서귀교서흥분교장, 제주남교 광양분교장, 추자교횡간분교장, 제주서교, 한림교명월분교장, 산양교, 가파교마라분교장, 도평교해안분교장 등 초등교육기관들이 새로이 설립되는 결실을 맺었다.⁴⁸⁹⁾

484)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418.

485)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416.

486) 화북동운영위원회(1991), 앞의 책, pp.144~145.

487) 서광교(1986), 앞의 책, p.42.

488) 영평국민학교(1987), 앞의 책, p.45.

또한 중등교육에서도 전소되었던 서귀중학교, 중문중학원이 복구되었을 뿐 아니라 오현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새로이 설립되었다.

불행히도 4·3의 혼란기에 폐교되어 지금까지 복구되지 못한 학교도 있다. ‘잃어버린 마을’이 존재하듯이 ‘잃어버린 학교’가 있었다. 단국중학교, 조천중학원, 그리고 애월읍 고성초등학교가 ‘잃어버린 학교’였다.

고성초등학교는 4·3으로 전소되어 폐교된 이래 지금까지 복구가 되지 못했다. 마을주민들은 지금도 학교 복구의 꿈을 간직한 채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고성리 사람들의 간절한 꿈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4·3 이전 고성교의 부지는 마을유지들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고성교가 폐교된 후 마을 운동장으로 사용되어 오다 면적이 좁아 1971년 이를 처분해 향민의 소원인 학교설립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속칭 ‘강석이왓’ 일대 3,000여 평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 곳은 임시 운동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곳에 2세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박한 희망이다.⁴⁹⁰⁾



4·3의 교육적 극복 노력은 학적부 등 학교 제반 서류를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발휘되었다. 무장대의 방화는 학교건물 뿐 아니라 학적부마저 소실시키고 말았다. 애월읍 고성교의 경우 고성간이학교의 시절의 학적부와 고성교에 관한 일체의 기록들이 소실되었다.⁴⁹¹⁾ 또한 화북교도 학적부의 소실로 현재 화북교 졸업대장은 19회 졸업부터 보관되어 있고 18회까지는 졸업대장을 가져 있지 못해 졸업자에 대한 학적 확인 마저 못해 주는 불행한 학교가 되고 말았다.⁴⁹²⁾

4·3에서 교사들이 이렇게 귀중한 학적부를 살리기 위해 쏟은 노력은 눈물겨운 것이었고, 이 노력의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학적부가 보전되어 전해지고 있다. 당시 세화초등학교 교사였던 분은 다음과 같이 그 당시를 회고했다.

40여 년 전의 어느 날 그 깊은 밤 불바다 속에 학교에 달려가서 학적부만은 내 생명

489) 제주도교육청(1999), 앞의 책, pp.416~417.

490)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1993), 앞의 책, p.172.

491)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1993), 앞의 책, p.166.

492) 화북동운영위원회(1991), 앞의 책, p.145.

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비상하게 대피시켜 놓았다. 이것이 세화교를 잿더미 속에서 재건하게 된 당시의 상황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든다.⁴⁹³⁾

필자가 만났던 증언자들에 의하면 남원교⁴⁹⁴⁾, 하귀교⁴⁹⁵⁾, 위미교⁴⁹⁶⁾ 등에서도 그 혼란했던 시기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학적부를 땅에 파묻어 미리 대피시키는 지혜를 발휘하여 학적부를 살릴 수 있었다고 한다. 학적부가 온전했기에 이들 학교에서는 4·3의 교육적 복구가 한결 손쉬울 수 있었다.

학교가 전소될 때 무장대에 의해 면사무소도 같이 전소되는 경우가 있었다. 면사무소가 불에 탈 때 호적도 같이 타버려 면직원들의 고통은 말이 아니었다. 법원에 가서 불타버린 호적을 다시 베껴오는 등 모든 장부를 다시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었다.⁴⁹⁷⁾

1948년 11월 7일 교사가 전소될 내 비품 및 제반서류 일체가 소실된 서귀중학교에서는 불타 버린 학적부를 재정리했다. 그러나 1947년도와 1948년도에 졸업한 초급중학교 학적부는 결국 근거 자료의 미비로 작성될 수 없었다. 1949년 6월에 졸업 한 3회 졸업생들과 1950년 5월에 졸업 한 농업중학교 1회 졸업생들의 학적부도 각각 1, 2학년의 성적이 기재 안 된 것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⁴⁹⁸⁾

학교에 방화하는 공비들의 만행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려는 노력도 대단했다. 각 마을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학교를 지켰고 또 학교 교직원들이 끝까지 직장을 사수하려고 힘썼으며 학생들도 당번을 두어 밤에는 학교를 그들의 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았다.⁴⁹⁹⁾

특히 교사들은 동료들이 입산하여 무장대로 활동하거나, 빼라사건⁵⁰⁰⁾· 등사판

493) 세화국민학교총동창회(1988), 앞의 책, p.59.

494) 김윤조(1926년생, 남원읍 의귀리, 당시 위미·남원교교사, 초등학교장 정년퇴임)의 증언(증언 날짜 2001년 4월 1일).

495) 강재윤(1920년생, 애월읍 하귀리, 당시 하귀교 교사, 초등학교장 정년퇴임)의 증언(증언 날짜 2000년 8월 26일).

496) 오남련(1925년생, 서귀포시 중앙동, 당시 위미교 교사, 초등학교장 정년퇴임)의 증언(증언 날짜 2000년 8월 27일).

497)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1990), 앞의 책, p.97.

498) 서귀농업고등학교총동창회(1997), 앞의 책, pp.99~100.

499) 제주도교육위원회(1979), 앞의 책, p.121.

500) 무장대에서 살포한 빼라문제로 교사들이 처형당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보성초등학교

도난 사건⁵⁰¹⁾ 등으로 처형당하거나, 예비검속⁵⁰²⁾으로 희생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낮에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밤에는 무장대의 내습으로부터 학교를 지켜내며, 주민을 계몽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⁵⁰³⁾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광복 이후 제주에서 좌익 성향의 교사와 학생들의 활동, 혼란 속에서도 꽃핀 학교설립운동, 4·3으로 입은 교육시설의 피해를 중심으로 4·3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제하 민족운동의 한 축이었던 제주지역의 교사들은 광복 이후에도 건준, 인민위, 민전, 교육자동맹,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등에 활발히 참여했다. 특히 4·3발발 직전 김달삼·이덕구·김용관 등 교사출신들이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여기에는 대정중학교와 조천중학원 등 일선학교에 무장세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제자들을 배경으로 이들의 발언권이 강화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김용관과 이덕구 등 일부 좌익교사들은 학생과 마을주민들에게 상당한 신뢰와 신망을 받았다. 이들 좌익 성향의 교사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자치의식과 민족의식

교였다. 1949년 1월 1일 보성교교장 송병길이 지서 앞에서 순경들에게 타살되고, 나머지 6명의 교사도 처형되었다(제주4·3 연구소(1993), 앞의 책(4·3 장정 6), pp.62~63.).

501) 동남교(당시 성산서국민학교)의 등사판이 없어지자, 무장대의 뼈라 제작을 위해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아 동남교 교사 4명, 성산교 교사 2명 등이 처형되었다(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앞의 책(⑤), pp.65~66.).

502) 예비검속에 걸려 1950년 8월 20일에 처형된 백조일손 희생자 132명 중 당시 현직교장 1명, 교감 1명, 교사 12명, 학생 6명 등이 포함되었다 한다(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서울:월간 말), 2000, p.81).

503) 서귀농업고등학교총동창회(1997), 앞의 책, p.301 참고.

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마을주민간에 공동체적 분위기를 형성시켰다.

1947년 3·1사건에서 경찰의 발포로 도내 거의 모든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수많은 기관 단체가 3·10총파업에 돌입했다. 서귀중에서는 3월 2일부터 3·1 발포에 항의해 맹휴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필자가 만난 증언자는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교사들 스스로 수업을 거부한 것이지 맹휴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위미교 등 일부 학교에서는 제주도청 등 상부의 지시로 파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찰이 파업 주동자 검거에 들어가자, 일부 관공서들이 파업을 풀기 시작했으나, 학교만은 교사와 학생들이 파업을 풀지 않고 끝까지 저항을 계속했다. 이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은 경찰로부터 가장 주목받게 되어, 검거되거나 도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해진지사의 관공리 숙정으로 사상을 의심받은 교사들이 파직당하는 경우도 많아져 교원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교원의 결원을 채우는 과정에 서청출신들이 제주교단에 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들은 취업할 때 학력과 전직 직업을 신고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교사로 임용되기가 수월했다. 결국 이들은 좌익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류된 제주의 교사와 학생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용된 것이었고, 이들의 밀고로 상당수의 교사와 학생들이 희생당한 이야기가 일선교육현장에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정치, 사회적으로 극히 혼란했던 광복 이후 제주에서 전도적으로 학교설립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났다. 제주교육사(1999)에 광복 이전 52개교, 미군정기에 42개교의 초등학교가 설립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필자는 이 통계에 누락된 제주시 영평교와 성산읍 수산교를 찾아냈다. 또한 광복 이전과 미군정기 양쪽 시기에 모두 설립된 것으로 이중 집계된 성산읍 신산교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광복 이후 설립된 초등학교는 43개교였고, 미군정기에 교육활동을 전개했던 초등학교는 모두 95개교였다. 중등학교도 광복 전 2개교에서, 미군정기에는 16개교에 이르렀다.

이 당시 전국적으로도 학교설립운동이 매우 활발했는데, 초등학교는 경북지역은 광복 당시 444개교에서 1948년에 560개교로 126%의 성장을, 전국적으로는 광복 당시 2,834개교에서 1948년에 3,443개로 121%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광복 당시 52개교에서 95개교로 183%라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중등학교

도 전국적으로 광복 당시 166개교에서 1948년에 380개교로 229%의 성장을 보였으나, 제주도는 광복 전 2개 학교에서 미군정기에 교육을 수행했던 중등학교가 16개교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미군정기 도내에 설립된 43개 초등학교의 77%인 33개교가 1946년 1년 동안에 세워졌다. 1946년은 제주에서 인민위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다. 대정, 한림, 조천, 애월면지역의 인민위는 광복 이후의 학교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대정면인민위에서 대정중학원, 한림면지역에서 한림중학원, 서귀면지역에서는 창고중학원을 개설했다. 조천중학원과 하귀중학원도 교사의 구성에서 인민위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많다. 하귀중학원의 설립자 고창옥은 애월면 초대 인민위원장을 지냈다.

커밍스의 교육수준 분석 조사에서 북제주군이 35.7%로 전국에서 교육 수준 1위로 나타났다고 한다. 교육수준이 높았던 제주지역은 좌익적 진보성향이 보다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진보적 성향은 결국 수많은 교사와 학생들을 4·3에 연루시켰다. 4·3의 주도 인물에 김달삼·이덕구·김용관 등 교사출신이 많았고, 그 제자들이 선생을 따르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입산해 무장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연유로 토벌당국은 제주의 교사와 학생들을 사상적으로 의심해 큰 희생을 강요했고, 수많은 교육시설도 파괴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4·3으로 파괴된 교육시설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었다. 필자가 각종 문헌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피해 유형은 소실(전소, 부분전소), 건물 해체, 폐교 등으로 그 형태가 다양했다.

폐교는 단국중학교·조천중학원, 건물해체는 조수교·신례교·청수교·무릉동교·의귀교·북촌교에서 나타났다. 소실된 학교는 42개교로 전소 39, 부분전소 3개교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9, 중학교 3개교였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4·3 이전 미군정기에 교육을 수행했던 95개 초등학교의 41%인 39개교, 중학교는 16개교의 19%인 3개교가 소실되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건물이 해체된 6개교 역시 4·3에서의 피해이므로 전체 95개교의 47%인 45개교, 중등학교는 폐교된 2개교를 포함하여 전체 16개교의

31%인 5개교가 4·3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실된 42개교의 피해만을 다루었을 때 1948년 11월에서 1949년 1월 사이 불과 3개월 동안에 83%인 35개교가 무장대와 토벌대 양쪽에 의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소실된 42개교의 피해는 토벌대에 의한 것이 40%인 17개교, 무장대에 의한 것은 60%인 25개교로 나타났다.

그런데 초토화작전으로 6개교는 건물이 해체되었고, 폐교된 중학교 2개교도 당국에 의해 그 교육적 중단이 나타난 것이므로, 토벌작전으로 입은 교육시설의 피해는 소실 17개교, 해체 6개교, 폐교 2개교 등 모두 25개교가 되었다. 따라서 무장대에 의해 25개교가 소실되고, 토벌진영에 의해 25개교가 손실을 입었다. 그러므로 제주교육의 기반은 무장대와 토벌대 양쪽에 의해 초토화되었고, 양쪽 모두 제주교육에 미친 교육적 피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하겠다.

김봉현은 학교시설이 군대의 지휘소와 주둔지가 되었고, 도민을 감금·폭압을 가하는 수용소, 감옥, 심지어 학살장소였기 때문에 감금된 도민을 구출하고, 지휘 계통을 마비시키기 위해 학교를 습격·소각한 것으로 설명했다. 당시 학교시설의 일부가 군의 지휘본부, 수용소로 활용되어, 그 안에서 술한 만행이 자행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무장대는 중문중학원, 예래교 등 지휘소도, 수용소도 아닌 영세 학교까지도 무차별 파괴했다. 따라서 김봉현의 말은 방화의 한 요인일 뿐이지 전부가 될 수는 없다.

토벌진영은 초토화작전이 전개된 1948년 11월 중순 이후, '군작전 수행'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중산간마을의 학교시설이 무장대에게 활용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공동체의 상징인 학교시설을 불태웠다.

무장대에 의해 소실된 학교들은 전소날자와 방화의 주체가 거의 모든 문헌에 비교적 기록이 잘 되어 있었다. 토벌대에 의해 소실된 중산간지역의 제주시 봉개교, 조천읍 선흥교, 조천읍 대흥교, 표선면 가시교, 대정읍 구억교 등은 방화의 주체에 대한 기록이 없었으며 그 전소일자까지 불명확했다.

더욱이 제주시 아라교, 애월읍 장전교는 무장대에 의해 소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성산읍 수산교는 4·3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 자체가 없었다.

또한 제주시 영평교는 4·3으로 전소되어 복구된 후 현재까지도 학교 연혁에 4·3 이전의 역사가 등재되지 못한 ‘잃어버린 연혁’을 갖고 있다.

4·3은 광복 이후 학교설립 과정에 보여준 제주지역의 공동체적 유대 관계를 파괴시키고 말았다. 수많은 인명피해로 토벌대와 무장대 사이에서 나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이웃을 믿지 못하는 불신감의 팽배로 공동체적 유대는 허물어 지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계에도 그대로 나타나 좌우익의 이념 대립으로 그렇게 도탐던 사제간의 정도, 동급생간의 우정도 무너지면서 교육시설의 초토화와 함께 제주교육을 황폐화시킨 큰 요인이 되었다.

4·3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인명피해를 몰고 왔다. 마을에 따라서는 중간세대가 완전히 단절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교육적 차원에서 자라나는 세대를 키우고 훈육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의 상실을 가져왔다.

학교에서 공부하며 성장해야 할 10대 소년들이 부모를 잃고, 학교가 아닌 일터에서 생계에 매달려야 함으로써 4·3은 이 땅의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잃거나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 하게 했다.

그러나 제주인들은 4·3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꾸준히 기울였다. 그것은 그 혼란기에도 학교신축사업을 완성하고, 전소된 학교시설을 복구하고, 또 새로운 초·중등 학교를 설립한 교육적 정열이 발휘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또 비상시국에 대비하여 학적부를 따로 보관하거나, 학적부를 살려내기 위해 불타는 학교로 뛰어드는 숭고한 사명의식의 형태로도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주변 동료들이 입산하고, 뼈라사건·등사판 도난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고, 예비검속으로 희생되는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도 낮에는 수업을 진행하고, 밤에는 무장대의 내습으로부터 학교를 지켜내고, 주민 계몽에 나서는 등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제주인들은 제주시 화북교의 역사에서처럼 일제시대부터 학교건립과 증축, 4·3으로 파괴된 시설의 복구 등 오랜 세월을 학교와 더불어 오뚜기 모양으로 살아왔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닌 마을공동체의 상징이었으며, 마을 자체였다. 학교의 소실은 마을공동체의 파괴였으며, 그 복구는 마을공동체 정신의 회복이었으며, 4·3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의 경주였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4·3에서 피해를 입은 학교는 50개교였다. 무장대와 토벌대 양쪽에 의해 주민들의 피와 땀이 얼룩진 마을공동체의 상징인 교육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4·3으로 소실되었던 학교 교정에 이 땅에서 청소년들의 배움의 장인 신성한 학교가 또 다시 불태워지는 비극이 없도록 '4·3의 교훈탑(가칭)'을 세우도록 하자.

그리고 학교별로 연혁을 다시 정비하자. 무장대와 토벌대에게 방화된 내용과 그 시기를 정확히 기재하자.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4·3에서의 그 고난했던 제주교육의 실상을 알리고, 더 나아가 4·3의 진상규명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복구가 안 된 '잃어버린 학교'가 존재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학교 복구의 꿈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한다. 그 터에 '잃어버린 학교'라는 팻말을 세우자. '잃어버린 마을'이 중요한 의미가 있듯이 교육적 차원에서는 '잃어버린 학교'도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강석규, 「황혼에 이르는 세월」, (제주:대영인쇄사), 1994.
- 강용삼·이경수, 「대하실록 제주백년」, (서울:태광문화사), 1984.
- 고문승, 「박헌영과 4·3사건」, (제주:신아문화사), 1989.
- , 「제주사람들의 설움」, (제주:일신옵셋인쇄사), 1991.
- 김남식, 「남로당 연구」, 들베개, 1984.
-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력 전략」, (서울:박영사), 1973.
- 김찬흠,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0.
- 노민영, 「잠들지 않는 남도」, 온누리, 1988.
- 박서동, 「영원한 우리들의 아픔 4·3」, 도서출판 관광제주, 1990.
- 서중석외,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 신상준, 「제주도4·3사건」(상), (제주:한국복지행정연구소), 2000.
- 오성찬, 「제주의 마을 시리즈」①~⑩ 도두리~보목리, 도서출판 반석, 1985~91.
- , 「한라의 통곡소리」, 소나무, 1988.
- 이경남, 「분단시대의 청년운동」(상), 삼성문화개발, 1989.
- 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서울:월간 말), 2000.
- 이재오,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서울:형성사), 1984.
- 이현희, 「우리나라 현대사의 인식방법」, (서울:삼광출판사), 1998.
- 조남수, 「4·3 진상」, (제주:태화인쇄사), 1988.
- 조남현, 「제주 4·3사건의 쟁점과 진실」, 들담, 1993.
- 경상북도교육청, 「경북교육50년사」(상), (대구:신홍인쇄소), 1998.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권,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7.
- 도봉선생정년기념문집간행위원회, 「사도여정」, (제주:경신인쇄사), 1997.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 (서울:교육과학사), 1998.
- 석산 김옥찬 선생 기념문집발간위원회, 「성장의 보람」, (제주:경신인쇄사), 1995.

- 아라리연구원, 「제주민중항쟁」(Ⅰ·Ⅱ), 소나무, 1988.
-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연구원, 「제주민중항쟁」(Ⅲ), 소나무, 1989.
- 자유수호협의회, 「제주 4·3 사건 자료집」, (제주:선진인쇄사), 1997.
-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①~⑤, 도서출판 전예원, 1994~8.
- 제주도, 「제주도지」(상·하), 1982.
- , 「제주도지」제2권, 1993.
-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제주:일신옵셋인쇄사), 1990.
-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의 서당교육」, (제주:시민당인쇄사), 1994.
-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교육사」, 1979.
- , 「제주교육연혁지」(Ⅰ·Ⅱ), 1987.
-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사」, 1999.
- , 「제주교육행정발전사」, 1991.
- , 「통계로 본 제주교육 100년」, (제주:태명인쇄사), 1999.
- 제주도의회, 「제주 4·3자료집 : 미군정보고서」, 제주4·3연구소, 2000.
-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 「제주도 4·3 피해 조사 보고서」, 수정·보완판, 1997.
-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 「제주도 4·3 피해 조사 보고서」 2차 수정·보완판, 2000.
- 제주도청, 「1953년도 제주도세요람」, 1954.
- 제주4·3연구소, 「4·3 장정」1~6, 1990~3.
- , 「4·3자료집」창간호, 1989.
- , 「4·3과 역사」28호·30호, (제주:은누리 인쇄문화사), 1997~8.
- , 「이제사 말함수다」(Ⅰ·Ⅱ), 한울, 1989.
- , 「제주항쟁」창간호, (서울:실천문학사), 1991.
- ,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1999.
- , 「제주신보」(1947.1.1~1948.4.20.), 실천문학사, 1991.
- 제주4·3 제50주년 학술·문화 사업추진위원회,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서울:학민사), 1998.
- 청암정년기념논문집발간위원회, 「못 다한 사도」, (제주:남경인쇄사), 1995.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충북교육사」, 고려서적주식회사, 197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 근현대 교육사」, (서울:정아인쇄사), 1995.

<논 문>

- 강정구,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조선의 분단”,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제주 4·3연구소, 역사비평사, 1999.
- 고창훈, “4·3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해방 전후사의 인식』4, 한길사, 1989.
- , “제주민중항쟁의 경제사회적 해석”, 『제주항쟁』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 김대근, “제주도 4·3사건의 정치적 배경에 관한 연구”, 동의대 석사학위논문, 1996.
- 김동만, “제주지방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역사비평』봄호, 1991.
- 김성례, “국가폭력과 여성체험”,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제주4·3연구소, 역사비평사, 1999.
- 김종민, “제주 4·3항쟁 : 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봄호, 1998.
- 김지수, “4·3과 중산간 마을의 거주공간 변모-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무등이왓을 사례로”,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류상영, “8·15 이후 좌·우익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해방전후사의 인식』4, 한길사, 1989.
- 박명립, “민주주의, 이성, 그리고 역사 이해-제주 4·3과 한국현대사”, 『제주 4·3 연구』, 역사비평사, 1999.
- , “제주도 4·3 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8.
- 박진순, “제주도 4·3항쟁 연구-배경 및 성격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박찬식, “일제하 제주도 민족해방운동 주도 세력의 성격”, 『제주항쟁』창간호, 제주4·3연구소, (서울:실천문학사), 1991.
- 안종철, “전남지역인민위원회 성격에 관하여”, 『역사비평』 봄호, 1991.
- 양정심, “제주 4·3항쟁에 관한 연구--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1995.
- , “제주 4·3항쟁에 관한 연구동향”, 『역사와 현실』 27, 1998.
- 양진건, “미군정기 제주교육(Ⅰ)”, 『탐라문화』17호, (제주:경신인쇄사), 1997.
-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8.
- 오금숙,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 사례”,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제주4·3연구소, 역사비평사, 1999.

유봉호, “중등교육”, 『한국근현대교육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이광호, “미군정의 교육정책”,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1985.

이정주, “제주 ‘호미’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4·3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9.

임대식, “제주 4·3항쟁과 우익 청년단”,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정민혜, “남로당의 적화 전략에 관한 연구-4·3사건과 관련하여”,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한준상·정미숙, “1948~53년 문교정책의 이념과 특성”, 『해방 전후사의 인식』4, 한길사, 1989.

존 메릴, “제주도 반란”, 『잠들지 않는 남도』, 온누리, 1988.

<향토지>

김민규, 『조천읍지』, 도서출판제주문화, 1991.

김봉옥, 『고내리지』, (제주:경신인쇄사), 1980.

김종근, 『예래동지』, 1988.

박용후, 『모슬포』, (제주:경신인쇄사), 1989.

강정마을회, 『강정향토지』, (제주:도서출판 서울문화), 1996.

광령1리, 『광령약사』, (제주:재승종합인쇄사), 1990.

남원읍 신례1리, 『예촌지』, (제주:영동인쇄사), 1988.

남원읍 신례2리, 『공천포지』, (제주:일신옵셋인쇄사), 1994.

남원읍 하례2리, 『학림지』, (제주:전자출판 천지), 1994.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 『난산리지』, (제주:창원인쇄사), 1999.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온평리지』, (제주:경신인쇄사), 1991.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가스름』, (제주:대동원색인쇄사), 1988.

노형지편찬위원회, 『노형지』, (제주:성심인쇄사), 1996.

북제주군, 『북제주군지』(상), (제주:경신인쇄사), 2000.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 『평대리』, (제주:일신옵셋인쇄사), 1990.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고성리지」, (제주:대원인쇄사), 1993.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 「증보남읍향사」, (서울:평범사), 1984.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제주 고산 향토지」, (제주:태화인쇄사), 2000.
 서귀포시, 「서귀포시지」.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1987.
 애월읍, 「애월읍지」, (제주:선진인쇄사), 1997.
 연화친목회, 「연동향토사」, (제주:신제주인쇄사), 1986.
 예래동노인회, 「예래동지」, (제주:대신인쇄사), 1993.
 위미신용협동조합, 「위미리지」, (제주:일신옵셋인쇄사), 1991.
 조수리향토사 편찬위원회, 「조수향토사」, (제주:대한인쇄사), 1988.
 중문마을회, 「중문향토지 불난디야 불싸지라」, (제주:유경인쇄사), 1996.
 중문면 상·하예리, 「예래지」, (제주:대영인쇄사), 1979.
 판포리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판포리지」, (제주:경신인쇄사), 1995.
 하례마을, 「하례마을」, 도서출판서울문화사, 1999.
 한림읍, 「한림읍지」, (제주:신명인쇄사), 1999.
 화북동운영위원회, 「화북동향토지」, (제주:재승종합인쇄사), 1991,
 가시국민학교, 「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광령국민학교, 「향토지」, (제주:삼화상사), 1987.
 구업국민학교, 「구업학구향토지」, (제주:삼화상사), 1987.
 금악국민학교, 「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난산국민학교, 「난산리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남원국민학교, 「향토지」, (제주:영동인쇄사), 1987.
 남읍국민학교, 「남읍학구향토지」, (제주:삼화상사), 1987.
 노형국민학교, 「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대흘국민학교, 「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더덕국민학교, 「더덕학구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무릉동국민학교, 「향토사지」, (제주:삼성인쇄사), 1987.
 봉개국민학교, 「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북촌국민학교, 「북촌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삼양국민학교, 「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서광국민학교, 「서광리지」, (제주:삼성인쇄사), 1986.

선홍국민학교, 「선홍학구향토지」, (제주:삼원인쇄사), 1987.

송당국민학교, 「송당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신도국민학교, 「신도향토지」, (제주:태화인쇄사), 1987.

신례국민학교, 「예촌」, (제주:성심인쇄사), 1987.

신촌국민학교, 「신촌향토지」, (제주:삼화상사), 1987.

아라국민학교, 「아라지」, (제주:선우옵셋인쇄사), 1987.

어도국민학교, 「어도향토지」, (제주:삼화상사), 1987.

영평국민학교, 「영평·월평향토지」, (제주:대동원색인쇄사), 1987.

오라국민학교, 「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외도국민학교, 「향토지」, (제주:태화인쇄사), 1987.

의귀국민학교, 「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장전국민학교, 「장전학구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조수국민학교, 「조수학구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태흥국민학교, 「태흥리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평대국민학교, 「평대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풍천국민학교, 「풍천약사」, (제주:태화인쇄사), 1987.

하귀국민학교, 「하귀학구향토지」, 신제주인쇄사, 1987.

하도국민학교, 「하도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하례국민학교, 「향토지」, (제주:남도인쇄사), 1987.

화북국민학교, 「화북동향토지」, (제주:성심인쇄사), 1987.

서귀농업고등학교총동창회, 「서농 60년사」, (제주:경신인쇄사), 1997

세화국민학교총동창회, 「세화교50년지」, (제주:대동원색인쇄사), 1988.

송당국민학교총동문회, 「당오름」, (제주:대림인쇄사), 1994.

제주농업고등학교총동창회, 「제농80년사」(I · II), (제주:경신인쇄사), 1990.

태흥초등학교총동창회, 「동창회지」, (제주:성심인쇄사), 1996.

표선초등학교총동문회, 「표선교90년사」, (제주:대동인쇄사), 1999.

한림중학교, 「한림중학교 50년사」, (제주:신명인쇄사), 1997.

함덕초등학교총동창회, 「함덕초등60년사」, (제주:하늘출판인쇄), 1999.

<ABSTRACT>

An Influence of 4·3 on the Education of Jeju

-- mainly concerning the damage of educational institution --

Youn, Seok-Chan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 Kwon, In-hyuk

Most of researches on 4·3 has been mainly concerning the background of 4·3 and the problem of massacre of innocent people. There were very few studies that had treated with 4·3 in the field of culture, art, or home or in the light of a women's problem. Also the actual condition of the damage in the educational side has never been investigated. This study aims at showing how briskly school foundation movement had been developed in Jeju-do after the liberation of our country and how 4·3 had had an effect on the education of Jeju, mainly treating with the damage of educational institu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digested as follows;

First, many teachers in Jeju took part positively in such an activity as Council of People's Commissars after the liberation. And ex-teachers, such as Kim Dal-sam, Yi Duck-gu, and so on, took the lead in Jeju-do Branch of Nam-ro Party just before 4·3 broke out. These leftist teachers tried to inspire the spirit of self-government, national consciousness and the sense of oneness with Jeju people including their students. Not a few ex-teachers with such leftist leanings were among the leaders of 4·3. Also many of their students joined them and became guerrillas. For these reasons teachers and students of Jeju-do were suspected ideologically. As a result many of them were victimized and not a few educational facilities were destroyed.

Second, after the liberation school foundation movement were briskly developed all over Jeju-do.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s increased from 52 just

before the liberation to 95 in 1948. Its growth rate amounted 183%(national growth rate, 121%). The number of middle schools increased from 2 to 16(national growth rate, 229%). Thirty three out of 43 elementary schools founded under the rule of American Forces were built only for one year in 1946. The year was the time when the activities of the Council of People's Commissars were done most briskly. The investigations have shown that the Council of People's Commissars played a role in founding and managing schools in the area of Dae-jeong, Hallim, Jo-cheon, and Ae-wol.

Third, until now no investigation has been made into the damage of educational institution by 4·3. But in my own way I could find out these facts through every kind of documents and recordings in the testimonies;

Forty two school buildings were burnt down., six elementary school buildings were pulled down and two middle school buildings were closed. That is, the total of the schools damaged by 4·3 amounted to 50. Among 42 schools burnt down were 39 elementary schools and 3 middle schools, which shows that 41% out of 95 elementary schools in Jeju-do and 19% of 16 middle schools were destroyed by fire. Twenty-five of them were destroyed by the guerrillas, which amounted to 60% out of the whole burnt-down schools. The rest(25schools) were destroyed by the punitive force. The above-mentioned six middle schools and two elementary schools were respectively pulled down or closed by the authorities concerned. As a result, the education of Je-ju was badly hit by both the guerrillas and the punitive force.

Even in a swirl of 4·3 Je-ju people did their best to restore the educational facilities. To them the destruction of schools meant that of the community. Also Their efforts to restore them meant the recovery of their sense of oneness of and their educational efforts to overcome the damage by 4·3.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August, 2001.